

시로 읽는 성보순례
적막, 먹빛으로 번지다
국보 제9호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백제시대 ▶2면

현대불교

나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의
도반을 만나지 못하거든
차라리 굳은 의지로 혼자서 가라
어리석은 자와 짝하지 말라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1월 1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74호 2012년 2월 8일 수요일

교육·복지 이제 문화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2012년 신년기자 간담회
진각문화전승원 개원법회 맞춰 회당문화재단 설립

"2012년을 '종단의 문화 표교 원년의 해'로 정하고 대중에게 생활불교의 가르침을 폭넓고 깊게 전파하겠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1월 30일 서울 월곡동 진각종 총인원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혜정 정사는 "진각문화전승원 불사 회향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며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개관법회를 봉행하고 불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관할 구청에 임시사용허가를 요청해 준공검사 전 입주를 추진 중이다.

진각문화전승원은 1만2500㎡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돼, 총인원, 복합전시관, 강당, 종조박물관, 밀교자료실, 세미나실, 종무행정공간, 도서관과 밀교체험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진각종은 진각문화전승원을 밀교적 가르침과 세계 및 한국밀교문화역사를 조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진각종은 종단 숙원사업인 회당문화재단을 금년 중 설립·발족한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문화의 세 축을 구축해 생활불교를 통한 전법교화의 기치를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로 설립되는 회당문화재단은 통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일부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진각종은 전문성이 필요한 공연·학술 이사 등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할 방침이다.

진각종은 창종 이후 처음 교육재단을 설립해 위덕대 등을 개교·운영해 왔다. 이후 국가복지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복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한 복지재단은 단일복지재단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설립되는 회당문화재단은 불교문화의 가치 창달을 위한 것으로 교육·복지·문화의 세 축이 완성돼 진각종의 교화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각종은 진각문화전승원 좌측 1000여 평 부지에 연내 (가칭)진각문화체험관과 교육관을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착공할 예정이다. 진각국제문화체험관은 일본 몽골 중국 스리랑카 등 진각종의 해외 교류국가의 성직자 교육과 다문화 가정 지원, 한국불교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된다.

창종 66주년 '문화' 화두로
생활불교 대중 전파키로
교육·복지 등 괄목할 성장
조계종서 벤치마킹 시도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도 강화된다. 진각종은 진각문화전승원 개원에 맞춰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의 어록을 영어 일어 중국어 네팔어 싱할리어(스리랑카) 스페인어 불어 등 다언어로 번역·출간한다. 미주지역 등 해외 심인당 수계법회도 지속적으로 봉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유럽지역 문화교육기관과 함께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스리랑카 네곰보에 운영 중인 유치원에 이어 정식 학교도 설립·운영된다. 진각종은 지난해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12년 학제의 교육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생 150명 등이 수학 중이다. 진각종은 이들이 진급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학제를 연내 개설할 예정이다.

진각종이 두각을 보여 온 사회복지활동도 지속·강화된다. 진각복지재단은 불교계 최초로 서울 도선동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진각부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서울 성동구 도선동 심인당에 5층 규모로 들어서는 진각부자보호시설에서는 20세대 45명의 한부모 가족이 생활하게 된다.

조계종은 3월 15~16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3원장·부실장 스님·교구본사 주지·중앙종회의원 등 150여 명이 진각종을 방문해 '종단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관계자는 "방문·연수를 통해 창종 66년을 맞은 진각종의 발전 노하우를 통해 조계종의 변화의 길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혜정 정사는 "조계종 지도자의 방문은 진각종이 창종 후 66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교육·복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까닭이다. 진각종의 중앙집권제로서의 장점과 교육·복지 사업 노하우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혜정 정사는 2009년 4월 통리원장에 설출돼 1년 4개월 여 남은 임기에 맞춰 송사 등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혜정 정사는 "인수인계한다는 데, 내가 인수 받은 것은 모두 '내 탓'이다. 인계는 제대로 된 것만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종단 안정과 화합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며 "진일보한 교화의 기틀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소임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수행과 종교간 대화로 세계 평화를

조계종 차기 종정 진제 대종사 美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모든 인류가 각자 생활 속에 마음을 닦는 수행을 꾸준히 해서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큰 지혜와 큰 자비를 갖추어 인류평화에 큰 공헌을 하리라 확신한다."

조계종 차기 종정인 진제 대종사는 2월 1일 美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지도자회의(The international Leaders Seminar)에 참석해 각국 대사와 상하원 의원 등을 대상으로 연설했다. 국제지도자회의는 2일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 사전 모임이다. 스님은 2일 본행사인 국가조찬기도회에도 한국 불교계 인사로는 최초로 참석했다.

대종사는 국제지도자회의에서 "자비·사랑·명상·관용 같은 윤리적·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어리석은 이들을 일깨워주며 굶주림과 질병을 없애는 선행을 실천하는 면 등 다방면에 걸친 세계 여러 종교간 대화를 통해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의 연설에 180여 국 1200여 명은 기립박수했다.

이에 앞선 1월 30일 진제 스님은 美 뉴욕 맨해튼 유대교 교회인 템플 임마누엘에서 세계 각국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불교의 참선 수행을 통해 세상의 갈등과 불만을 치유할 수 있다"며 "세계 주요 분쟁 종식을 위해 교리적 차이를 초월해 종교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개신교 카톨릭 이슬람교 배화교 등 세계 각국의 종교지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재가자도 한마음으로 돕겠습니다" 불교 가치를 토대로 활동하게 될 불교포럼(상임대표 김동건) 임원들이 공동 취지문을 낭독하고 있다. 불교포럼은 1월 3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불교 각계 지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가졌다. 불교 포럼은 불교 교리 토론부터 사회 현안 연구 등 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께 죄송하고

종교계 수장 최초 용산참사 사면 요청

범어사 선거와 관련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불교계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 사면을 요청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교계 수장 중 최초로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 특별사면을 청와대에 2월 2일 요청했다.

스님은 아직도 비극이 계속되는 현실에 종교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전달했다. 용산 참사는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후 첫 번째로 방문한 사회 현장이며 올해로 발생 3주기를 맞았다. 현재 8명이 안양교도소 등에서 수감 중이다.

자승 스님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구속된 철거민과 용산 참사 관련자들에게 관용의 정신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스님은 "진정한 대화·소통은 관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일이다. 현 정부가 주창한 공생사회를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석방과 특별사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국민화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과 종단 관계자들은 범어사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종단 현안관련 긴급 간담회' 참석자들은 위법사항 발견시 선거 이후라도 당선 무효 조치를 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세계문화유산 위해 정부가 나선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연등회가 세계적 축제로 거듭나고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월 30일 문광부에서 열린 한류문화진흥단 현판식에서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은 K-POP과 드라마 등 대중문화가 한류 중심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연등회 등 전통 문화를 접목시켜 한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광식 장관은 "지정 문화재가 안됐어도 세계문화유산 신청 준비를 해왔다. 연등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좌복 털고 중생위한 만행길 오르다

전국선원 2월 6일 동안거 해제

눈푸른 납자들이 동안거 용맹정진한 좌복을 털고 만행길에 올랐다. 2월 6일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등 총림을 비롯한 전국 선원에서는 일제히 해제법회를 열었으며 각 총림 방장 스님들은 수좌들의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2월 6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해제법회에서 선지식을 만나 법좌를 둘로나누는 분반좌 선문답을 들고 만행길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기를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정리한 〈동안거 선사방함록(禪社芳啣錄)〉에 따르면 이번 동안거에는 99개 전국 선원(총림 5곳, 비구선원 58곳, 비구니선원 36곳)에서 총 2382명(비구 1201명, 비구니 979명, 총림 202명)의 스님들이 안거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법문 2면 · 차주 상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874호 CONTENTS

동안거 해제 법어 2
종합 3
2044 한국불교 전망
범어사 관련 성명서
중앙일보 '종정' 폄훼 발언
불자들 4
군종교구 신년기자 회견
종합 6
경전속 식물연구 보고서 발간
해외불교 14
러연방 부랴티아, 불교 움튼다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간화선 수행의 교과서, 무문관
무문관 참구



장휘옥 · 김사업 제창
175×230mm 양장 /
416쪽 / 값 22,000원

10년 전,
두 사람은 수행을 위해
잘나가던 동국대학교 강단을 떠나
외딴 섬 오곡도로 들어갔다.
…
번쩍, 몽둥이가 날아오고
물컵에 담긴 물이 꽁꽁 얼 정도로 추운
선방에서
화두를 뚫다.





"무(無)를 보았느냐?"
"아직입니다."
곧 방장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네가 아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화두를 참구할 의지가 없는 게야!!!"

방장스님은 요령을 흔들었다. 썩 물러가라는 뜻이다. 식은땀이 흘렀다. 3, 4시간 후에 또 독참을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화두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김사업 저자의 첫 번째 독참)

저자들은 2003년 일본 임제종 고오가쿠지(向嶽寺) 선방에서 첫 독참을 가졌다. 독참(獨參)은 스승과 제자가 일대일로 만나 수행의 진척을 점검받는 선불교의 오랜 전통이다. 무사들이 생사를 걸고 대결을 하듯, 스승과 제자는 독참 때 목숨을 걸고 대면하는 선의 결전장이다.

"방장스님과의 독참 자리에서 머뭇대다간 번쩍 몽둥이가 날아오고, 모멸감에 치를 떨 만큼 자존심이 짓밟혔죠. 하지만 그때마다 화두를 뚫고 말겠다는 분심이 일어났어요."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9호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적막, 먹빛으로 번지다

이 재 무

부소산 에돌아가는
강물 쳐서 더운 몸 식히고
탑돌이하며 천년 묵언 듣는다

흐르는 물 소리쳐 울게 한,
마음의 냇가 솟은 돌들의
뼈아픈 시간들을
탑신 흘러내려온 그늘에 담근다

항아리 속
오래 묵힌 간장 같은
적막, 먹빛으로 번진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이재무 시인은… 충남 부여 출생. 1983년 〈실천문학〉으로 등단. 시집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푸른 고집〉 등.

분반좌의 도리를 아는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흥화존장(興化存奘)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다자탑 앞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에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이 거짓을 전하면 만 사람이 진실을 전하느니라."

선불후불(先佛後佛)이 심인(心印)을 전하는 것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이심전심(以心傳心)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 선종의 신통묘용입니다. 정법상전(正法相傳)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오직 선가(禪家)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산청허 선사는 〈선가귀감〉에서 "세존께서 삼처전심한 것이 선지(禪旨)가 되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분좌(分座)는 법좌를 반 씩 나누어 앉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뒷날 많은 선사들에 의하여 반분좌로 이어집니다. 특히 대혜종고 선사가 경산(徑山)에 주석했을 때, 동림도안(東林道顔) 선사가 뒤따라 와서 배알하고 아침저녁으로 질의 응답한 끝에 비로소 종지(宗旨)와 계합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대혜선사와 법좌를 반으로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지가 면면히 끊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도록 전해오는 결국 알고 보면 분반좌인 것입니다. 동안거 90일 동안 열심히 제대로 정진한 납자는 해제 후 만행길에서 분반좌에 조금도 망설임 없는 선지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분반좌가 없었다면 공부가 모자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서 더욱 용맹심을 내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月來松色寒
雲去青山露

달이 뜨니 솔빛이 싸늘하고
구름 걷히니 푸른 산이 드러나네.

수행인 '진실된 사고' 가져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총림 (叢林)은 종합수도장으로 결제와 해제가 따로 없는 곳입니다. 기왕에 해제라 이름 붙였으니 산승이 해제 대중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으로 인한 무명 업식 때문에 온갖 번뇌망상이 나타나 현실에서 너와 나라는 존재현상으로 인한 분별의 인식 경계도 허물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의 분별은 주체와 객체로 나눌 수 있으며, 주체에서 본 객체는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와 나라는 존재는 주체로부터 분리된 객체로서의 존재이며, 현상은 주체가 인식한 객체이며, 또 우리의 존재는 현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경계가 허물어져 자유로울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행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된 사고입니다. 진실은 순수와 청정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적 사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야 하겠지만, '진실은 자체가 진리이므로 만법이 귀일하듯이, 주체와 객체가 합일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영원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식 대상과 현상이 순수하고 고요할 때 반드시 시공을 초월한 경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菩提本清淨
起心即是妄
對境即千差
無心一境閑

보리는 본래 맑고 깨끗한데,
마음을 일으키면 곧 이것이 망령됨이라.
경계를 대함이 곧 천 가지로 다르나
무심한 한 경계가 한가롭도다.

"윤회고 다해야 해제"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오늘은 임진년(壬辰年) 해제일이며 또 포살법회이기도 하다. 어떤 것이 진정한 해제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포살인가?

정진하여 삼세육추(三細六麤)가 모두 떨어져 윤회고(輪回苦)가 영원히 다한 것이 진정한 해제이며, 포살(布薩)을 받지 않는 마음이 진정으로 포살을 잘 받는 것이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다는 것은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확철대오하여 수용자재(受用自在)함에 있는 것이지 언어문자로 표현된 계의 이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십중대계(十重大戒)라든가, 사바라이(四波羅夷), 사십팔경구계(四十八輕句戒)라는 이름에 따라 갈 것 같으면 부처님의 계를 잘 모르는 것이다.

자성청정(自性淸淨)한 자리에서는 부처도 그 곳에 머물지 못하고 중생도 그 곳에 머물지 못하여 일체가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성청정계(自性淸淨戒)며, 무작계(無作戒)며, 무위계(無爲戒)며, 심지계(心地戒)이다.

山自青水自綠 淸風拂白雲歸
盡日遊盤石上 我捨世更何希
물도 푸르고 산도 푸른데
맑은 바람 백운을 쓸어가누나
종일 반석에 앉아 선정삼매에 노나니
내가 세상의 온갖 번거로움을 버렸는데
또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해제는 다시 조이는 것"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參禪切莫用人情 用得人情道不成
直得一番寒徹骨 豈將瓮響作鍾鳴

공부하려한다면 간절히 인정을 내지 말라. 인정을 낸다면 도를 이루지 못하리라.

오직 골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어봐야 하거늘 어찌 옹기 소리를 종소리라고 우기려 하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뜻을 세운 사람은 냉철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느 때는 살을 도려내는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진 바람과 서리를 견뎌내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매화를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 풍상을 이겨낸 절개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인정을 베풀기 시작하면 이미 수행과는 요원해 집니다.

오로지 '이 뭣 고?' 라고 간절하게 다져 나가십시오. 해제는 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여서 느슨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다져서 백척 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내딛기 바랍니다.

宿昔青雲志 蹉跎白髮年
誰知明鏡裏 形影自相憐
옛 적에 품었던 청운의 뜻이여!
아차 하는 새 어느 덧 백발이 되었네.
누가 알았겠는가!
거울 속의 얼굴을 보고 안타까워할 줄은.

"밥도둑은 면하였습니까"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오늘 삼동안거가 끝나는 날 해제 대중에게 이르노니 밥도둑은 면하였습니까. 지난 90일 동안 밥값을 숫자로 셈을 하자면 그 무게가 한없을 것입니다.

이제 밥값을 셈해서 받아야겠습니다. 해제대중은 밥값을 계산해서 이 산승에게 가져 오십시오. 밥값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거늘 스스로 송(頌)하여 가로되

賊身已現 變主才怒
却彼白拈重踏故 邏踪人兮受罪汚
栲着痴頑不通路 翻身堀地盡生埋
兒孫俱喪何人顧 杳然失了賊來路

도둑의 몸이 드러나니
주인으로 변하여 화를 내고

날 도둑을 맞았다가 거듭 밟으니
순라가 되었다가 죄를 뒤집어 쓰네.
고로 씌운 듯 어리석고 완악해 통하지 않아
몸을 뒤집어 땅을 파서 생매장 해야겠다.

그 자손들 누구가 돌볼꼬
도둑이 오던 길을 까마득이 잊었도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현불뉴스에 있습니다.

범어사 산중총회는 법정 기한 내 여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귀의삼보 하옵고,

작금의 범어사로 인해 불교계가 겪고 있는 아픔과 위상추락에 대해 할절신체의 마음으로 참회를 올립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소납은 문도의 일원으로써 안타까움과 책임을 통감하고 범어사 중진들을 만나 먼저 진실한 참회를 통해 실추된 종단의 명예와 본사의 청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종단은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선거제도의 혁신 등 대책을 강구했으며, 범어사도 곧 운영회의를 열어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어사는 이 아픔을 기억하고 의식의 변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거듭 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제 26대 범어사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여법하게 진행되어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유신의 큰 계기로 삼아야 함을 주장합니다. 산중총회가 여법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분규가 지속되는 양상으로 발전될 소지가 다분하며, 화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선거가 파행으로 진행된다면 선거권이 있는 400여명 대중의 종헌 종법상 권리 또한 훼손당합니다. 무엇보다 '선찰대본산 범어사'가 법정 기일 내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고 '사고사찰'로 될 시 불교계는 물론, 불심의 도시 부산불교의 위상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사기를 잃고 자괴감과 더불어 한없는 우려와 의혹 속에 현 상황을 바라보는 조용한 다수의 범어대중들이 있습니다.

부디 금번 범어사의 산중총회가 자숙의 자세와 참회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 여법하게 치러져서 빠른 안정과 명예회복, 청정가풍을 면면이 이어가도록 범어사 자체의 뼈를 깎는 노력과 제방 대덕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불기 2556(2012)년 2월 3일

범어문도 법응 외 합장

2044년 한국불교 전망…우울한 잿빛

불교미래사회硏, 통합종단 출범 50년 후 예측

"대비책 미비시 교세 감소 불 보듯"

통계자료를 통한 미래 한국 불교 예측 결과, 2044년 한국불교는 종교인구 급감, 출가자 감소 등 교세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는 1월 31일 '미래 한국불교의 자화상'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는 2044년의 불교의 미래상을 그렸다. 이번 연구는 1994년 종단개혁의 의미가 50년 후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예측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조계종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 〈불교 및 승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등을 선행 자료로 활용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우선 종교지형의 변화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수는 1985년 186만명, 1995년에 295만명, 2005년 514만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불교 및 개신교에 비해 신자수는 낮지만 증가율은 1985년~1995년 58.23%, 1995년~2005년 74.38%로 10년 사이 크게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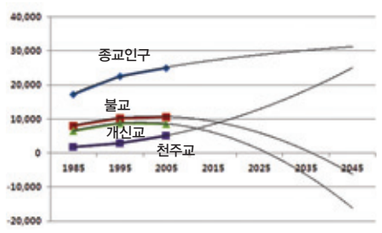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이런 종교인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 이후 2044년까지의 종교별 인구 증감 및 향후 예상추이(표1 참조)를 내놓았다.

예측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정체기인 불자수는 이후 점차 감소해 2044년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개신교 역시 감소세가 예측됐다. 최근 10년 사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천주교만이 꾸준히 상승, 2044년 경 천주교 신자수가 2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총인구가 2018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천주교는 한국 최대 종교가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추세선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프에 나타난 극단적 수치보다 방향성이다. 교세 하락에 대한 대비책 없이 현 추세를 방기하면 2044년이 오기 전 불교는 심각한 붕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불교미래연구소는 2044년 출가자수 감소 및 노쇠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9년 12월까지 조계종 행자교육원 수료 현황에 따르면 2000년 528명이었던 수료자는 이후 점차 감소해 2005년 326명, 2009년 266명 수료에 그쳤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행자교육원 수료자의 평균 증감유율은 7%에 머물렀다.

〈종교지형 장래 추세〉



통계자료 통한 미래 예측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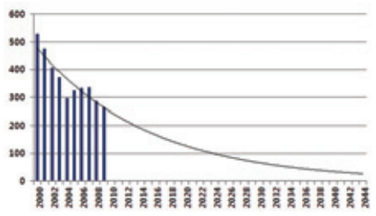
천주교 신자 늘지만 불자 줄어

신도수 늘일 특단조치 절실

2009년 266명 수료 현황을 복리공식 $(a(1+r)^n)$에 적용하면 21명$(266\times(1-0.07)^3?)$ 가량의 수치가 산출된다. 마찬가지로 현재 65세 이상 승려를 기준으로 예측하면 2044년에는 노스님 비율이 36.95%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2.3%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연구소는 이런 현상이 종단 인력 부족, 노후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종단 지출 증가 및 재정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2044년 경 종단 예산은 현재의 71% 수준으로 퇴보해 실질 가용재원 감소로 사업 여건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쇠해지는 조계종 출가율〉



승려인구 노후화 40% 달해

종단지출 증가 · 재정 약화 우려

철저한 미래진단 수립 · 실천해야

종단 예산은 2010년부터 총액이 3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소세이다. 더구나 조계종 일반회계 세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분담금이 증가할 수 없는 구조를 지닌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현 종법령에 의해 규정된 분담금 납부 체계는 종단 내 각 주체의 이해관계 대립 및 종법령 개정의 어려움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금액이 지연 인상되는 정률 구조 또한 아니다"고 말했다. 분담금 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044년 분담금 수입은 현재와 동일한 160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조계종은 최근 재정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수익사업이 일반회계 세입의 4%에 불과해 빠른 성장세를 통해 유의미한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 밖에도 ▷종단의 행정시스템이 노후화로 교구와 사찰, 승가와 재가의 소통 불능 ▷중앙종회 의석수 100석까지 증가 ▷집행부 3원 체제의 총무원 단일체제 일원화 ▷사법기능 강화 ▷교구자치 범위 확대 ▷사찰 통폐합, 음력 중심의 법회 문화 소멸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소장 퇴휴 스님은 "보고서의 모든 예측이 정확한 수치적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밀함이 떨어진다. 현 추세대로라면 불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불교의 미래를 어떻게 희망적으로 만들 것인지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종정스님 비유 논란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한 공중파 방송에서 조계종 조정을 빗댄 발언이 불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김 논설위원은 불교 폄훼 의도는 절대 없다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김진 논설위원은 1월 24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안철수 교수의 정치 행보에 대해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논설위원은 "안철수 교수가 보인 정치적 스타일이나 행보로 보면 조계종 종정 같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불자와 일반 국민들은 불교 폄훼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조계종이란 색안경 낀 그 단어가 지독하게 편협한 맘이 가득하다는 표현이다"고 지적했다.

김진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원장의 난해한 워딩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가기 어려운 종정 스님들의 설법으로 비유한 것뿐이다. 언론인의 단순한 비유법이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은 또 "성철 스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종교인이다. 나는 평소에도 불교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논설을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돈봉투가 선거법 바꿔

부정선거 3~10년 공권정지…근본대책 촉구 한 목소리

범어사 선거와 관련해 각 계의 성명서와 근본 대책 방안이 촉구되는 상황에서 중앙종회가 통합선거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 등이 함께한 연석회의를 2월 1일 열었다. 이들은 3월로 예정된 임시중앙종회에서 '통합선거법' 제정 통과에 합의했다.

'통합선거법'은 총무원장 선거, 중앙종회의원 선거, 교구종회의원 선거, 본사주지 선출 산중총회 등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합 선거법은 부정선거 적발시 3~10년 까지의 공권정지, 형량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종단도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종단 현안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 마련을 논의했다. 또한 불교 각계의 성명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또 불교계 돈 선거의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중 처벌과 선거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범어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의불교평화연대도 종단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정의불교평화연대는 ▷수수 금품 사회환원 등 범어사 사태 관련자 참회 ▷파사현정 정신으로 근본 개혁 단행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 ▷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1월 27일자 성명에서 선거문화 혁신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왜곡된 선거문화와 풍토를 혁신하는 제도적 보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국민 행복 위한 민생정치 나서달라"

총선을 앞두고 예방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민생정치를 당부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환담했다.

한명숙 대표는 "대표가 된 이후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절절히 전이됐다"며 "종교계에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나서 달라"고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에 자승 스님은 "국민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민생 챙기기를 직접 나설 예정으로 사각 복지를 챙기겠다. 손발을 맞춰 민생 챙기기에 함께 나서달라"고 답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 화합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국민 행복과 평화 위해 불자역량 모은다"

조계종 불교지도자네트워크, 불교포럼 31일 공식 발족

불교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불자 역량을 모으기 위한 불교포럼이 공식 발족됐다. 조계종 핵심과제 중 하나인 불교포럼은 주요 종책 수립과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불교포럼은 1월 3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불교 각계 지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 앞서 불교포럼은 임시총회를 통해 상임대표에 김동건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를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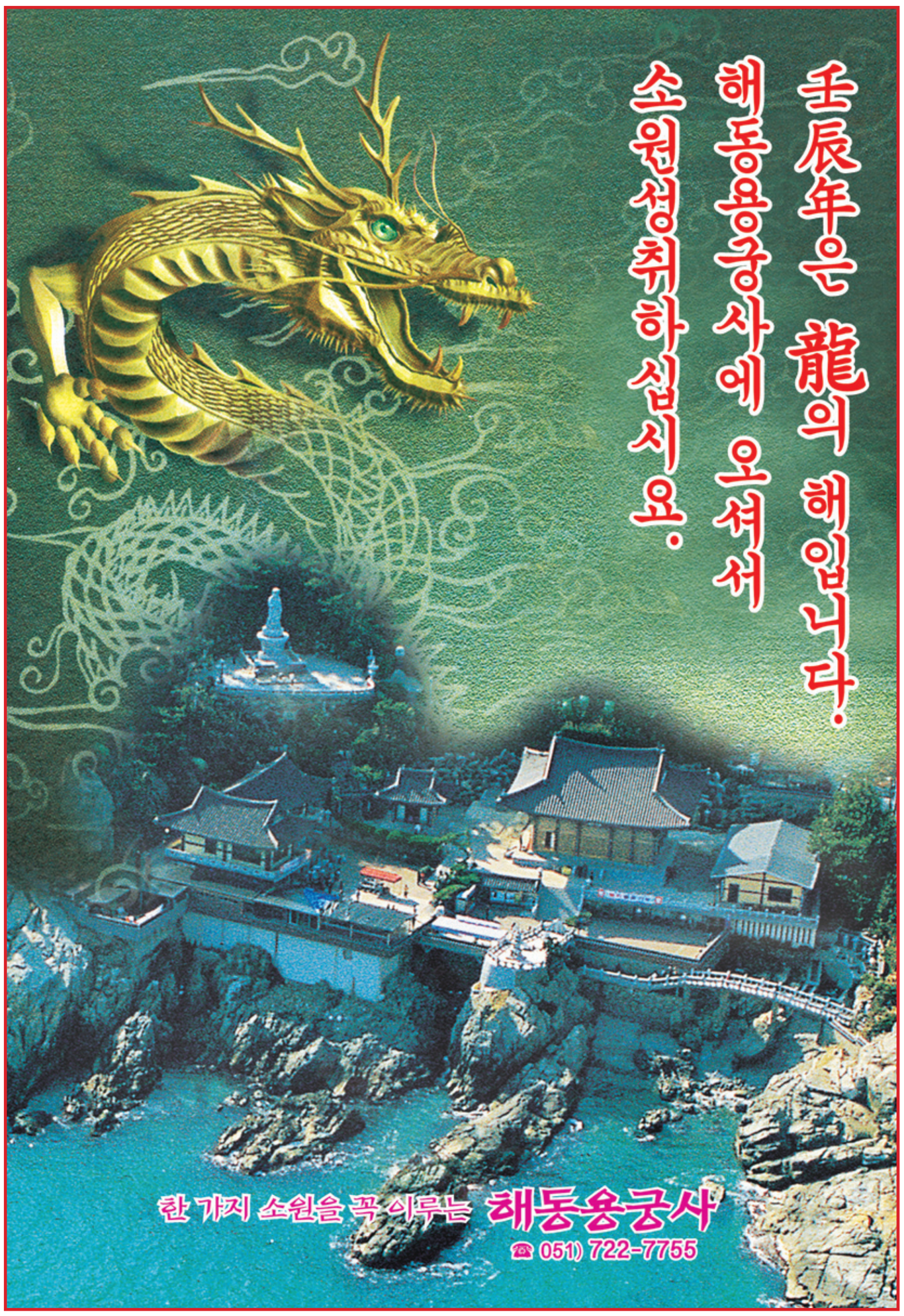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공공기관)과 김희옥 동국대 총장(교육), 박진열 한국일보 부회장(언론), 박준현 삼성자산운용 사장(금융), 설동근 교육기술기술부 전 차관(행정부),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청와대), 성상철 한국병원협회장(보건의료),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체육), 이정길 방송인(대중예술), 김장실 예술의전당 사장(문화예술),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출판인쇄), 이택순 전 경찰청장(경찰), 원태호 합참차장(군대)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여러분들은 불교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동량(棟樑)"이라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임대표 김동건 대표는 "불교포럼을 활성화하는 데 헌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불교포럼은 △불교교리토론 및 강연회, 워크숍 개최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및 실현을 위한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 주 문



김포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은 부설 김포불교대학 제1기 신입생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조계사 정월 방생 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2월 12일 강릉 등명락가사에서 정월 방생 기도를 봉행한다.



수덕사, 고암체험관 건립 추진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고암 이응노 화백 작품기념 고암체험관 건립을 위해 1월 30일 충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한국불교대학 특별방생법회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1월 30일 영천 '참 좋은 병원'과 경주 대관음사 무문관을 방문한데 이어 문무대왕릉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법조불교인연합, 신년법회

임채진 법조불교인연합회장은 1월 31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前 검찰총장 김종빈 (봉은사 신도회장) 등과 함께 법조불교인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봉은역사공원 해제 추진 총력"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봉은사가 2012년 봉은사 수행환경 침해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봉은역사공원 해제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1월 31일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봉은사 종책 기조를 밝혔다.

진화 스님은 "2010년 주지 교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도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1년 대중들의 노력으로 안정을 확보했다. 총수입도 전년대비 8.9%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는 봉은사가 2011년 진행한 무비스님 등 선지식 초청법회인 선교율대법회와 관음보살 42대원 다라니기도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9월 21일 시작된 42대원 다라니기도는 봉은사 앞 코엑스의 개발열풍으로부터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다라니독송으로 3년간 계속된다.

봉은사는 1971년 8월 7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종교 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증축 등이 제한받고 있다. 경내지가 모두 도심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등 각종 규제법의 적용으로 불사가 불가능해 수행환경이 열악해 졌다. 여기에 인근 코엑스의 대규모 증축 계획안이 발표되는 등 고층건물들로 인해 심각한 환경 침해까지 받고 있다.

이에 봉은사는 가람정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내외국인 내방객 수용 및 도심사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복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 전문가, 변호사,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다.

진화 스님은 "현재 수립 중인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르면 지하에는 큰 법당과 주차장, 부속시설이 지상에는 옛 문헌을 바탕으로 옛 가람을 최대한 복원할 계획"이라며 "가람 정비를 통해 수행과 기도의 도량 분위기를 이어가는 한편 종단을 대표한 자정과 쇄신 결사 중심도량으로서 수도권 포교 거점 사찰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봉은사는 핵심신도 양성을 위한 신도교육 활성화에도 나서 기초학당, 불교대학, 리더십 교육과정인



불교아카데미, 교양교육과정인 연화대학, 경전학교 등 교육과정을 심화하고 교육과정을 연등조직 활동과 임원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진화 스님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수행도량으로서의 위치를 봉은사가 다시 다지는데 종단 안팎의 지원과 불자님들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호국연무사 35억원 더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불자 동참 당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2012년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완공을 바탕으로 제2 군포교 중흥의 바탕을 마련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2월 1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논산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이 4월 말 낙성식을 앞두고 있다"며 "신축법당 완공에 이어 군승교육 및 포교지원 강화, 역량결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은 1월 31일까지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설비 공사 등 전체 공정의 92.4%가 진행됐다. 군종교구가 설계변경 등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20억원 가량 공사비를 줄였지만 불사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35억원 가량이 부족하다.

자광 스님은 이날 완공을 위해 부족한 공사비에 대한 추가모연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군종교구가 공개한 불사회계 내역을 보면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불사의 70%인 일반불자들의 참여로 진행된 반면, 조계종 교구본사 총 4억 1000만원을 비롯해 타종단 참여가 전무하는 등 사찰단위의 참여가 절실하다.

자광 스님은 "불사 재정 투명성과 공정성에 한 점 부끄럼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미래 포교인력 양성에 신축법당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낙성식을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종특별교구는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불사 동참현황을 홈페이지와 교계 신문 등을 통해 게재하고, 시주한 7000여 불사동참자들을 동판에 새겨 영구보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축법당 불사가 대부분 일반불자들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재정 투명성 확보에 만



자광 스님이 불사금과 함께 힘들게 모은 사연을 보내온 불자의 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종특별교구는 이밖에 올해 신규 중점사업으로 군승 교육 강화로 한 달이던 예비군승교육을 83일 로 늘렸으며 현역 군승 20명으로 구성된 교육전담팀을 구성, 교육과 동시에 사관 양성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삼군 사관학교 졸업생 연합수련대회 등을 개최한다.

스님은 "불교계를 이끌어갈 젊은 불자 양성의 요람이 될 호국연무사는 미래를 책임질 시대적 불사"라며 "원만회향으로 불법홍포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원태호 국군불교총신도회장 등 불자장성들은 1월 3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군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원태호 국군불교총신도회장(합참차장), 손수태 국군예비역 불자회장, 민병덕 군불교후원회장 등 군불교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승 스님은 임원들에게 108염주를 건네주며 활발한 신행활동과 군불교 진흥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안현진 카누 국가대표, 동국대 발전기금 쾌척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1월 30일 카누 국가대표 안현진 씨가 학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안현진 씨는 2월 20일에 동국대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울산광역시청 실업팀에 입단할 예정이다. 안현진 씨는 2011년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 제92회 전국체육대회 1인승 200M 우승과 카나디언 1인승 1000M 한국 신기록 우승 등 한국 최고의 카누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안현진 씨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법현 스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시장에 자리한 불교계선원과 서울 은평구, 시민단체가 함께 펼치는 새마을프로젝트가 화제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에 자리한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갈현 2동 주민 대표로 은평구청(구청장 김우영)과 함께 2월 1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우영 은평구청장,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지역 정관계자들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원음 들을 학인스님들 오세요"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학감 성륜 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해외유학생 제1호였던 성륜 스님이 선운사 불학(초기불전)승가대학원 학감에 임명됐다. 이로써 초기불전 전문교육기관인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은 빨리어 삼장 교수사를 모두 갖추게 됐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학감 성륜 스님은 1월 30일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모집 일정 등을 발표했다.

성륜 스님은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학감 겸 논장 교수사로 최근 임명됐다. 율장 교수사 재연 스님, 경장 교수사 환성 스님에 이어 논장 교수사가 갖춰져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에 빨리어 삼장 교수사가 모두 갖춰졌다. 학인스님들의 많은 진학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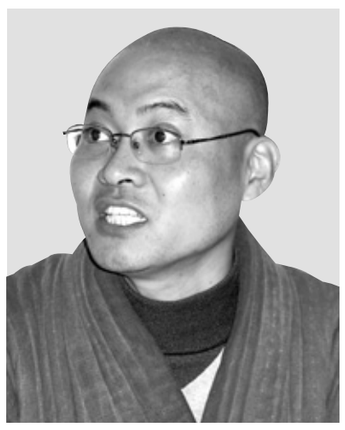
스님은 1989년 태안사 벽봉 스님을 은사로 입산출가해 1993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5년 중앙승가대 졸업 이후 제방 선원에서 안거와 기도정진했다. 2000년 실상사 화엄학승가대학 졸업. 이후 2004년까지 실상사 화림원에서 수학 및 화엄학림 교수사를 역임했다.

2004년 인도로 유학한 스님은 2011년까지 8년 여간 범어와 빨리어를 수학하며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인도 뿌나대에서 '디가니까야에 나타난 관용적인 표현들에 관한 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성륜 스님은 "실상사 화림원에서 수학하며 붓다의 가르침이 일어나게 된 여러 배경들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고, 이를 계기로 범어·빨리어 원전을 직접 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겨 인도로 유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기후·언어·문화적으로 낯선 인도까지 유학을 않고도 이제는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에서 초기불전을 배울 수 있다. 교수사 및 외래교수 스님들의 남다른 학문 열정도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의 자랑이다"라고 설명했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에서는 기초문



법·삼장 강의 등 빨리어 특강 외에 위빠사나 수행 등을 가르친다. 원서 접수는 2월 17일까지. 전형은 21일 선운사 대학원강당에서 치러진다.

한편, 불학승가대학원은 3월 12~14일 〈인도불교사〉 역자인 호진 스님을 초청해 초기불교 특강을 개최한다. 이어 15~17일에는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의 주제특강 '혁명가 붓다'가 진행된다. 063)561-1280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인사〉 동국대 경주병원장 심재철 교수 선임



동국대 경주병원은 2월 1일 심재철 산부인과 교수를 동국대 경주병원 신임병원장으로 선임했다. 심재철 병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의과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1991년 경주병원 개원 당시부터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해, 의과대학장, 의학전문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문화대학 2012학년도 신입생모집

대 학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주간·야간) – 00명

· 교과과정 (2년 4학기 / 수·금요일 / 한 학기 4과목 수강)

불교심리학.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불교생태심리학. 불교상담학. 성격심리학. 집단상담Ⅰ. 아비담마와 상담. 이상심리학. 자아초월 심리치료 실습. 예술치료. 위빠사나수행과 상담. 상담면접 및 기술. 심리검사 및 평가 외.

※ 학교 사정에 따라 과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명상학과 (주간·야간) – 00명

· 교과과정 (2년 4학기 / 수·목요일 / 한 학기 4과목 수강)

사마타수행의 이론과 실습. 불교명상학. 알아차림과 자아. 명상과 몸. 위빠사나 수행의 이론과 실습. 현대명상의 이해와 실제. 불교수행과 실습. 종교명상의 이해. 선의 이해와 실제. 명상과 치유. 비교명상의 이해. 인도·티벳불교명상의 이해 외

※ 학교 사정에 따라 과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의시간 [각 90분 강의]

· 주간반 : 1교시 – 14:00~15:30, 2교시 – 15:40~17:10

· 야간반 : 1교시 – 19:00~20:30, 2교시 – 20:40~22:10

■ 수 업 료 : 1학기당 300,000원

■ 입학자격 : 고교졸업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

대 학 원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야간) – 00명

· 교과과정 (2년 4학기 / 수·목요일 / 한 학기 4과목 수강)

불교심리학. 불교생태심리학. 상담심리치료. 정신병리학. 자아초월심리와 심리치료. 부부 및 가족상담. 불교경전속의 상담사례. 집단상담Ⅱ. MBSR수용전념치료. 개인상담 사례연구 및 실습 실존치료. 개인상담 실습 및 슈퍼비젼. 상담과 표현예술 치료 유식학과 상담. 심신통합 이론과 실제 외.

※ 학교 사정에 따라 과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의시간 [각 90분 강의]

· 야간반 : 1교시 – 19:00~20:30, 2교시 – 20:40~22:10

■ 수 업 료 : 1학기당 400,000원

■ 입학자격

1) 본 대학 기타 불교교양대학 불교심리상담과정을 이수한 자

2) 정규 대학과정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서 상담관련학을 전공을 하거나 졸업예정인 자

■ 특 전

· 불교심리상담사 준3급, 준2급 자격증 수여 : 불교심리상담학과 졸업자에 한하여 하나의 절차에 따라 불교심리상담사 준3급, 준2급 자격증을 수여함.

· 장학혜택 : 성적우수자, 근로장학생 외.

· 수업료 할인혜택

스님 50%, 동반가족(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 남매, 자매 1인에 한해) 50%

◐ 원서교부 및 접수처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02-707-1072)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양식은 www.kbpf.org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심사 후 개별통보)

◐ 교부 및 접수기간

2012년 1월 16일 ~ 2012년 2월 29일

◐ 개강일자

2012년 3월 7일(수) 주간 - 오후 2시

야간 - 오후 7시

◐ 문 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02)707-1072



‘네가 나의 부처, 내가 너의 부처’ 깨닫는게 수행



대한불교진흥원 신년대법회

화엄사상-자연생태와 사회생태의 둘 아닌 조화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1월 30일~2월 3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대법당에서 ‘2012년 임진년 신년대법회’를 열었다. 행사는 ‘조화로운 대우주 자연의 세계, 자연생태와 사회생태의 둘 아닌 조화’를 주제로 우리시대 선지식 5인의 법문으로 진행됐다. 첫 법회는 1월 30일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이 ‘화엄사상,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로 법문했다. 1월 31일에는 인드라망 공동대표 도법 스님이 ‘화엄 속 통섭의 미학(너와 나의 대립을 넘어)’를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들은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화엄사상을 통한 삶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해결법을 제시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화엄사상 무엇을 말하나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

화엄은 불교의 핵심사상입니다. 불교가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을 이유는 〈화엄경〉 때문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 열반 후 800년이 지나 편찬된 경전입니다. 부처님은 성불하신 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사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 인도는 ‘신의 천국’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을 모시다 유일신으로 통일됐습니다. 그 유일신이 바라문신입니다. 부처님은 처음 바라문교에서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바라문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수행을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수행을 다 마쳐도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로 선정(禪定)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은 신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업에 의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업의 주체는 바로 마음입니다. 세상의 창조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인간은 신에게서 해방됐습니다.

3000년 전 인도를 비롯해 모든 나라는 신에 의해 존재했습니다. 중국은 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을 천자(天子)라 불렀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함부로 항거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상나라시대 마지막 왕인 주왕은 폭군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주왕을 공격한 사람이 바로 무왕이었습니다. 무왕은 문왕의 아들입니다. 문왕은 임금에게 항상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투기한 주왕은 문왕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사실에 분노한 문왕의 셋째아들 무왕은 강태공과 함께 주왕을 공격했습니다. 백성들은 무왕이 왕을 공격해 왕의 자리에 오르자 크게 걱정했습니다. 신이었던 왕을 공격해 나라가 몰락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왕이 왕위에 오른 뒤 나라는 더 번창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00~500년 뒤, 주나라 시대에 공자가 등장하면서 완전한 인본주의사상이 대두됐습니다.

업에 의해 태어나고 죽으니
세상의 창조자는 바로 ‘나’
화엄경 핵심 ‘마음 · 보살사상’
좋은 말 좋은 행동이 보살의 길

한나라시대 한무제는 인본주의 사상을 다시 신본주의로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인본주의사상이 지속되면 누군가 자신을 공격해 왕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음양오행설’입니다. 사주를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구분지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주에 왕의 사주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왕의 사주는 제외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사주를 보면 대통령, 재벌사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정주영 회장 등과 한날 ·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까요. 이처럼 팔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자라는 것은 모두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일체유심조’ 사상과 더불어 보살사상이 핵심입니다. 〈화엄경〉이 부처님열반 800년 후에 만들어진 것은 제자들이 너무 수행해만 몰두해 자신의 경지를 즐기기에 바빠, 다른 이들의 고통은 두루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불교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화엄경〉이 등장하면서 불교는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전환됐습니다.

〈화엄경〉에는 관세음보살 · 문수보살 · 지장보살 등 많은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이 보살들은 중생을 위해 대자비심을 일으켜 성불하시는 분들입니다. 즉, 자신을 버리고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살입니다. 〈화엄경〉은 보살의 핵심경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수행을 위한 기도입니다. 대자비를 성취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탐닉하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보리살타는 위로는 부처님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즉, 보살이 돼서 중생을 구하고 보살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보살이 수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살은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理下化衆生)’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진리 아닌 것을 행하지 말고 말하지 않으면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업을 알아채, 단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진년에는 ‘일일일선(一日一善)’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 좋을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도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화엄속 통섭의 미학

인드라망 공동대표 도법 스님

불교에서는 언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불자들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언어만 제대로 다뤄도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근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고 치면, 그 중 60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다 땅에 떨어진 새끼줄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시겠습니까. 대개 뱀을 상상할 겁니다. 이어 ‘그 뱀이 나를 물지는 않을까’ 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몽둥이 · 칼 · 총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작용이 세상에 핵무기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뱀이 아닌 새끼줄임을 확인하면 공포는 사라집니다. 공포를 해소하는 일은 염불을 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삶의 과학입니다. 사실만 제대로 확인해도 인생의 100근의 짐 중 60근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처럼 단순 · 명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가르침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모두 이해하고, 바로 이룰 수 있으며, 검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불교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이해했다면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맞고 틀린지에 대해 검증해야 합니다. 불교가 심오해서 검증할 수 없다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이뤄져 있고, 어떤 경지인가, 어떻게 살아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생명입니다. 국가 · 민족 · 종교 · 사랑 · 꿈 등 모든 것은 내 생명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나의 본래면목을 알지 못하고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길을 제대로 알고가야지, 열심히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생명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흔히 ‘나는 나’, ‘너는 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를 들여다보면 생명은 모두 하나입니다.

우주는 하나의 그물 인드라망
‘혼자도 잘 살 수 있다’ 전도몽상
도둑질하면 감옥 갈 걱정하듯
지금 제대로 살면 후생 걱정 없어

태양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도 우리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 · 이웃이 없는 사회에서도 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드라망 세계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는 하나의 그물로 엮여져 있습니다. 낱낱의 존재는 그물의 그물코처럼 존재합니다. 현대인들은 너 없이 나 혼자도 잘살 수 있다는 전도몽상을 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를 낳은 것은 자식입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려면 연기적 사유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중 주인은 따로 없습니다. 모두 다 그물코입니다. 이런 이치로 보면 희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살피면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억울한 생각만 거둬내도 인생을 훨씬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도둑질을 한다면 내일은 감옥에 갈 걱정을 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대로만 살면 후생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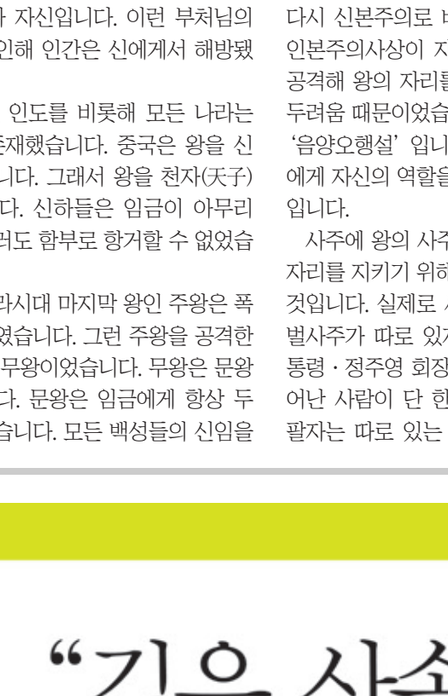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를 부처님처럼 대하면 인생은 화목하고 평화로워 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참선입니다. 내가 곧 우주인 것입니다. 내 생명은 다섯 가지로 규정합니다. ▷가장 귀중한 존재 ▷가장 완성된 존재 ▷가장 주체적인 존재 ▷가장 창조적인 존재 ▷가장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본래 부처라 말합니다.

부처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두발은 땅을 딛고 있고, 두 눈은 옆으로 찢어지고, 코는 수직으로 곧게 향해있습니다. 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부처님도 졸음이 오면 잠을 자고,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부처는 따로 없습니다. 존재자체가 부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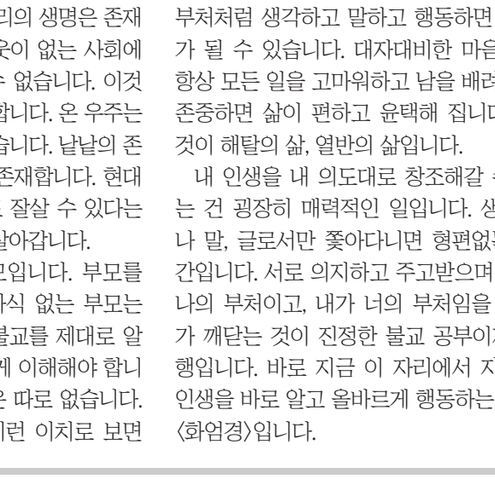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도깨비 방망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입니다. 부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항상 모든 일을 고마워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면 삶이 편하고 윤택해 집니다. 이것이 해탈의 삶, 열반의 삶입니다.

내 인생을 내 의도대로 창조해갈 수 있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생각이나 말, 글로서만 쫓아다니면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주고받으며 네가 나의 부처이고, 내가 너의 부처임을 모두가 깨닫는 것이 진정한 불교 공부이자 수행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깊은 산속 바위틈에서 떨어지는 약수와 같은 글들!
이 책이 나에게 이런 편안함을 줄 줄이야…. 읽는 내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
– 독자 최홍근(happy_0801)



월스트리트저널이 극찬한 ‘영혼의 멘토’!
‘차세대 리더 300인’으로 선정된 혜민스님의 인생 잠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지음 | 우창현 그림 | 값 14,000원
베스트셀러 1위 (에세이 분야)



“이 책에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혜민 스님의 지혜로운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필독을 강추합니다.” –이외수, 작가

관계에 대해, 사랑에 대해, 인생과 희망에 대해… ‘영혼의 멘토, 청춘의 도반’ 혜민 스님의 마음 매뉴얼!
하버드 재학 중 출가하여 승려이자 미국 대학교수라는 특별한 인생을 사는 혜민 스님. 트위터에 올린 성찰과 위안이 담긴 글들이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리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수십만 트위터리안들이 먼저 읽고 감동한 혜민 스님의 인생 잠언! 마음이 약해진 이들에겐 한 첩의 보약이, 꽉 막힌 듯 가슴이 답답한 이들에겐 한 알의 소화제가 되어줄 것이다!

혜민 스님 트위터 2030 멘토 혜민 스님. ‘혼자서 도 닦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함께 행복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트위터로 현재 한국 종교인 중 가장 많은 팔로워를 지녔다. 하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미국 햄스셔대 종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2 신원빌딩 2층 | 전화 02-3140-4621~3 | 쌤앤파커스의 책들은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쌤앤파커스

6년 간 전국 사찰 돌며 관정사업 보시

'보현회'와 김태룡 회장 등 선행



"무사히 마치고 불자들에게 보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찰 지하수 관정 사업'이 종료 됐음을 보고하던 산수음료의 김태룡 회장(사진)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 회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 경영자 최고위과정 총동창회 봉사모임 '보현회'(회장 정인악)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보현회와 김태룡 회장은 6년에 걸쳐 물이 부족한 사찰을 대상을 지하수 관정 보시 사업을 실시해왔다.

김 회장은 "보현회에서는 의외로 식수가 부족한 사찰이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보현회가 관정 개발한 곳은 경기도 양평의 법화사와 강원도 낙산사, 충남 아산의 옥련사 등 6년 동안 33개 사찰과 수녀원 1곳에 등 모두 37곳이다.

오랜 세월 관정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잊지 못할 사연들도 많았다. 전북 장수군 영월암은 6년 여의 개발 기간 중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다. 여러 가지 여건 상 관정 개발이 쉽지 않아 1년 6개월에 걸쳐 작업을 실시해야 했다.

강원도 영월군의 한 수녀원은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인근 선유사 관정 개발을 추진 하던 중 식수가 부족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돕게 됐다. 이곳의 수녀와 선유사 주지 지온 스님은 학교 동창 사이인 특이한 인연을 갖고 있다.

보현회가 개발한 수량은 1일 총 3018t으로 식수 인원으로 환산하면 하루 1만 2000명이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양이다. 관정 개발을 요청한 곳은 많았으나 개인 사찰이나 주변 여건이 열악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불가피하게 제외했다. 김 회장은 어쩔 수 없이 제외된 사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 했다.

"당초 계획했던 곳의 관정 개발은 모두 완료된 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여 곳 정도 모아서 개발 보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범 기자

음식·동물 방송 생명경시 '빨간불'

보리, 4개월 간 모니터링 결과 공개

방송모니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리가 '생명생태주의 시각에서 본 방송'에 대한 보고서를 1월 3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11년 9~12월 4개월 동안 방영된 KBS '한국인의 밥상', MBC '공감 특별한 세상', SBS ' TV 동물농장' 등 방송 3사의 음식 및 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리는 "음식은 곧 생명임에도 TV 교양프로그램들이 동식물을 단순한 먹거리로 보고, 회 뜨는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하는 등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리의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음식소재도 생명체라는 인식 부족 ▷건강을 위협하는 육식 편중 식단 ▷외식 문화 조장으로 식생활비 상승 ▷밥상문화 실종 등이 문제가 지적됐다.

'한국인의 밥상'은 10월 13일 방송된 '무안 갯벌 낙지' 편에서 산 낙지를 끓는 국물에 산채로 넣었다. 11월 10일 '추자도 조기' 편에서는 살아있는 생선의 회 뜨는 모습을 방송했다.

'6시 내고향'은 분석대상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음식꼭지를 방영했다. 그 과정에서 생명체를 살상하거나 먹거리로만 취급하는 모습도 모니터링 기간 동안 287회나 지적됐다. 특히 리포터가 양미리를 산채로 불에 구우면서 "어서 먹어달라고 저렇게 꼬리를 치켜든다"는 등의 멘트가 방송되기도 했다.

이들 프로그램 중 외식과 가정식을 구분할 수 있는 5개의 프로그램에서 외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식생활비(53.6%)의 비중이 교육비(4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TV 프로그램들이 앞장서서 외식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보리가 11~12월에 방영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125꼭지 중 38꼭지가 외식을 소개하거나 가정식과 외식을 함께 소개했다. 가정식만 소개한 경우는 19꼭지에 그쳤다.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들은 음식을 소개하면서 어른보다 젊은 리포터가 먼저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입에 가득 물고 대화를 하는 등 전통 예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보리는 "음식 소개에 급급해 밥상 문화는 상실됐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릇이 넘치도록 푸짐한 양을 강조하고 있다. 또 환경위기 시대에 비닐장갑을 끼고 조리하는 장면도 방송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경전에 많이 나온 식물 콩·장미·벼 순

사찰생태硏 10개월 조사
'한글대장경' 속 식물 정리
불교식물원 조성 등 활용

경전에 기록된 식물 목록이 확인돼 불교식물·생태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사찰생태연구소(소장 조채희)는 1월 30일 안국동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불교 경전에 나타난 식물 목록 기초 조사 보고서'를 소개했다. 연구소는 지난 해 4월부터 10개월에 걸쳐 동국역경원의 318권의 〈한글대장경〉을 기본 자료로 목록을 추출했다. 또한 한국빠알리성전협회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발간한 빨리어경전을 추가로 조사했다.

식물 이름이 확실하거나 식물로 추정되는 이름만을 추출했으며 경전 속 식물이름과 한자이름 또는 중국명, 영어명이 확인되거나 일반이름과 학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만 보고서에 기재했다. 특히 한글대장경의 식물이름을 기준으로 대조식으로 정리해 식물의 이름과 경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사료로 사용한 한글대장경과 빨리어 경전에 수록이 검색된 식물은 1만 5000여 횟수로 나타났다. 이 중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는 9684회로 나타났다. 대표 식물명으로 정리하면 312분류군으로 정리되며 103과(科) 237속(屬) 296종(種) 16변종으로 분석됐다.

콩과(科) 식물은 26분류군이 발견돼 경전 속에서 가장 많이 출현했으며 장미과(20 분류군)와 벼과(20분류군) 등도 다수 출현했다.

이 중에서는 한반도에서도 자생하는 식물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나리의 경우 한글대장경 169권 〈소요당집〉에서 발견되는데, 우리나라로 불교경전이 전래된 이후 추가로 기록된 식물이다.

붓다의 행적과 관계가 깊은 3대 성수는 콩과의 교목인 무우수, 보리수, 사라수로 확인됐다. 붓다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가던 중 나무 아래서 산통을 느끼고 붓다를 낳았다. 탄생수인 이 나무는 공과의 교목인 무수(無憂樹)이다. 범어로 Asoka로 쓰기 때문에 아쇼카나무라 하기도 한다. 붓다가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다가 정각에 이르렀는데 이 나무는 뽕나무과 나무이며 불교 경전에서는 주로 보리수(菩提樹) 또는 도수(道樹)로 쓴다. 중생제도에 힘쓰다 나무 아래서 열반에 든 열반수는 사라수(娑羅樹)이다.

불교를 대표하는 꽃인 연꽃에 대한 확인 결과 범어를 기준으로 5가지로 구분됐다. Padma 혹은 Lotus로 불리는 연꽃인 Nelumbo nucifera Gaertn.을 의미하고 나머지 4가지는 모두 수련속 Nymphaea에 해당하는 백련 Nymphaea alba L.(우발화, White Water Lily), 청련 Nymphaea caerulea Savigny(Blue Water Lily), 홍련 Nymphaea pubescen Wild.(구물다화, Red Water Lily) 및 소건제가화 Nymphaea rubra Roxb. ex Salisb. (White or Blue Water Lily)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명 확인 결과 홍련 Nymphaea pubescen Wild.과 소건제가화 Nymphaea rubra Roxb. ex Salisb.는 같은 꽃의 이명으로 확인돼 경전 속 연꽃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정리됐다. 향후 연꽃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조채희 소장은 "한국불교 최초로 국제적·학술적으로 통용되는 학명에 의해 불교경전 속 식물을 목록화 한 것은 큰 성과다. 숲의 종교의 불교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현재 추진 중인 불교수목원의 기초 계획 단계에서 도입할 대상 식물종을 선정할 때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신년 맞아 잇따른 온정의 손길 새해에도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사진 왼쪽 두번째)은 2월 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 국제선센터 건립에 2억원을 지원했다. 선원은 또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여성광장 건립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다. 이에 앞서 1월 30일에는 화계사(주지 수암) 신도회가 학생 장학금으로 1700만원을 희사했고, 같은 날 대전비구니청림회(회장 성련)는 태국 홍수재난 구호기금으로 400여 만 원을 전달했다. 또 1월 31일에는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의 치료비로 써달라며 면목어머니산악회(회장 서맹례)가 500만 원을 기탁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 2월의 환우 선정

여상헌 군(외상성뇌손상, 사지마비)

2010년 4월, 경기도 화성의 농촌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을 앗아갔다. 큰 화물트럭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논으로 향하던 여상헌(18)군을 들이받은 것. 여 군은 그 때 뇌손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여상헌 군은 경기도 화성시 태권도 대표로 나갈 정도로 운동을 잘하는 건강한 학생이었다.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가 많았던 여 군은 장애아를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다니던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여상헌 군의 아버지는 화성의 〈한마음회〉 봉사활동 회원으로 본인도 넉넉하지 않은데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왔다. 지난 2000년에 농사일을 하다 한쪽 손에 부상을 입어 현재 장애 3급이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온 아버지는 아들이 아픈 후로 기운이 나지 않는다.

아들의 오랜 입원으로 부모는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막한 상황이다. 치료비, 입원비 등으로 월 120여 만 원이 드는데 오랜 입원과 앞으로의 긴 재활기간을 생각하면 버겁기만 하다.

여상헌 군의 부모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고, 상헌 군을 위해 민영보험 하나 들어 놓은 것이 없다. 얼마 전 농사짓던 땅도 처분했다.



상헌 군은 현재 사지근력 강화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여상헌 군이 하루빨리 일어나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10·27법난 기념자료집 발간

10·27법난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 등을 모은 법난기념자료집 〈아! 어찌 경천동지할 일이…〉가 1월 27일 발간됐다.

조계종이 펴낸 기념자료집에는 조계종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과 함께, 법난 피해자인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 등 피해자 스님들의 고문과 가혹행위 증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조사결과보고서 등이 수록됐다.

조계종은 기념자료집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전원, 청와대와 정부 부처, 대학도서관(201곳), 국공립도서관(452곳), 전국주요사찰(640곳) 등에 무료 배포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10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소리과정** : 기본 예불. 도량석. 종성.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 등 전과정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 **작법·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강 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 초 스 님

- **개강일시** : 2012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 화요일 – 작법(무용)과정 : 오후 1시 ~ 오후 3시 / 범패 소리과정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12년 2월 ~ 2012년 3월 5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 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눈에 띄는 박사학위청구논문들

중앙승가대 진관 · 퇴휴 스님
동국대 하춘생 · 이성운 등

2012년 2월 전국 대학에서 학위수여식이 개최된다. 그동안 연구 업적 등이 학위논문을 통해 세상에 소개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불교계에서도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에서 출 · 재가자들이 불교학 발전을 위한 대들보 하나씩을 내놓았다.

동국대에서는 하춘생 동방불교대 교수와 이성운 정우서적 대표가 박사학위를 받는다. 하춘생 교수는 '한국 근 · 현대 비구니의 문중형성과 그 의의'를 주제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해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성운 정우서적 대표도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주제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해 심사가 끝난 상태이다.

중앙승가대학에서는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장)과 퇴휴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이 각각 '동산의 불교계정화운동 연구'와 '한국 근현대 승가교육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불교 정화운동 뿌리와 핵심 조명
"이승만 개입으로 정화운동 왜곡"

월운 스님의 회고에 따르면 격문은 "오호라 슬프도다, 사자신충이 사진사자육인가 하여 여래 정법 중에 마군자생하여 여래 정법을 괴멸하는도다…"였다.

진관 스님은 "동산 스님의 정화운동은 한국불교계 내부 정화라는 순수한 목적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개입으로 세속적 권력에 의해 왜곡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논문에서 정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초월해 불교계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역동성을 함께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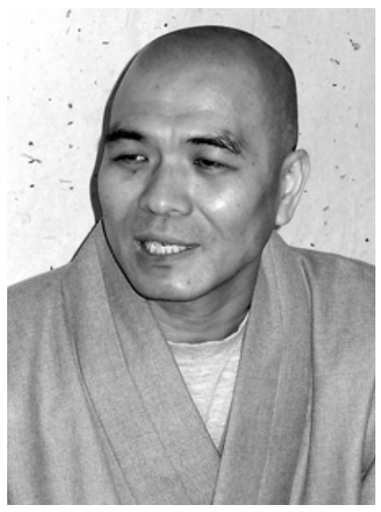
진관 스님은 "동산의 정화운동은 스승 용성의 건백서를 실천하려는 의지의 산물이었다"고 강조했다. 건백서는 용성 스님이 한국불교전통을 지키기 위해 스님들의 엄격한 계율생활을 촉구한 문서로, 스님은 두차례에 거쳐 건백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했다.

조계종 교육사 최초로 정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의 논문 '한국 근현대 승가교육사 연구'는 스님이 조계종 교육부장을 지내며 가졌던 학문적 의문들을 해소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스님은 논문에서 근 · 현대 승가교육을 ▷근대기(1906~1910) ▷일제강점기 및 해방공간기 (1910~1954) ▷조계종 성립 이후(1954~1994) ▷개혁종단 출범 이후(1994~현재)로 나누어 고찰했다.

퇴휴 스님은 근대 승가교육의 시작을 1906년 명진학교(現 동국대) 설립으로 보고, 시대순으로 조계종 교육제도의 변화를 정리해 효율적인 인재불사 계획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

근현대 승가교육사 분석
승가교육, 전통과 현대 사이 표류

퇴휴 스님은 "1906년 명진학교 설립을 기점으로 볼 때 조계종은 100년 이상의 근대식(현대식) 승가교육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 승가교육은 전통(강원)과 현대(동국대 · 중앙승가대)의 선택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이는 100년 전 승가에서 진행됐던 갈등이 답습되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 교육기관 일원화를 통해서만이 승가교육의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불교의례 근원 최초 살펴

이성운 정우서적 대표는 조계종 의례위원회 위원이다.

이 대표의 논문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는 한국불교의 주요의례인 시식과 공양의례의 구조와 의미, 수용자의 인식 등을 통해 한국불교 주요의례 체계를 살핀 연구서이다. 특히, 한국불교의 시식의례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일용의식수문기〉에서 분류한 것과 달리 독창적인 구조로 재분류한 것은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성운 대표는 시식의례를 ▷소청 ▷시식 ▷왕생으로 분류했다.

이 대표는 "법요집 · 의례집을 출판하면서 번역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 동국대 대학원 석 · 박사과정에서 불교의례를 전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의례집 대로라면 인사를 올리고는 "이래서 인사했습니다"라고 뒤늦게 고하거나, 인사하고서는 "또 오세요"라고 말하는 등 뜻을 알고서는 순서를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우서적 **이성운** 대표

불교의례 체계 · 의미 연구
'예송의례' 불교 핵심 수행도량

이 대표는 "'나무'와 '귀의'가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나무'는 '나무아미타불' 등 칭명이 뒤에 따라 특정 불보살의 원력과 내가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 '귀의'는 수계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성운 대표의 논문은 '불교의례는 사상의 현재화이며 수행의 도량이며 교학의 보고'로 정리된다.

이 대표는 "한국불교의 시식 · 공양의례와 그것을 여법하게 봉행하기 위해 닦는 일상의 정근인 예송의례는 불교의 핵심수행을 실천하는 수행도량이며, 핵심적인 교학과 한국불교 사상을 담은 보고이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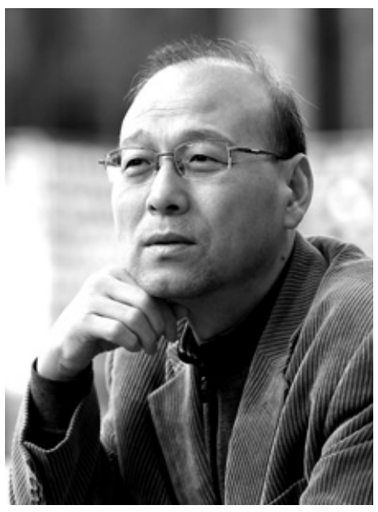
한국 비구니 문중 처음 집대성

하춘생 교수의 '한국 근 · 현대 비구니의 문중형성과 그 의의'는 국내 비구니 문중의 첫 학술적 조명이다. 교계 기자출신으로는 첫 박사학위를 받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하 교수의 논문은 그동안 비구니계 일각에서 회자 · 소통되던 비구니승가의 문중 전체를 한곳으로 섭수해 정리한 결과물로 교단사적 의미와 가치가 크다.

학계에서는 이번 하춘생 교수의 연구물을 토대로 비구니 내지 비구니문중 연구에 천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 비구니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가 활성화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로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됐다.



동방불교대 **하춘생** 교수

비구니 문중 첫 학술 조명
기자시절 비구니 기획 취재가 계기

당시 불교신문 기자였던 하 교수는 1991~1999년 '한국의 비구니' 제하의 기획기사를 연재하며 근현대기를 살다간 비구니고승들의 행장과 사상을 교계에 소개했다. 비구니 위상강화를 위한 역동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도 하거니와, 하춘생 교수의 연재물은 당시대를 한국 비구니에 교계 관심이 모아지는데 일조했다.

이때부터 하 교수는 한국 비구니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연재물을 토대로 하춘생 교수는 1998년과 2001년 〈깨달음의 꽃〉(1 · 2권)을 출간했다. 이 책들은 비구니계에서 '깨꽃'으로 통할 만큼 인기가 많았다. 비구니 위상 제고의 시대적 요청은 2006년 6월 전국비구니회가 '한국 비구니 수행전통에 대한 포럼'을 개최로 이어졌다. 이 자료들은 단행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1 · 2권)로 발간됐다. 이어 2004년 한마음선원은 '동아시아의 불교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일련의 비구니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마다 하춘생 교수의 '깨꽃'이 나름 계기를 제공해줬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하 교수는 "비구니에 천착하게 된 정황들을 스스로 소명으로 받아들여 전공학문으로 삼게 됐다. 당시 동료기자들과 '비구니문중'까지는 내가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금번 학위논문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돼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한국의 사지' 부산 · 광주 전남 · 제주편

불교문화재硏, '한국사지총람' 일부 정리 · 발간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는 문화재청(청장 김찬)과 부산 · 광주 · 전남 · 제주지역의 폐사지(廢寺址)에 관련 문헌조사와 정밀현황조사를 시행해 〈한국의 사지(寺址) - 부산 · 광주 · 전남 · 제주편〉을 발간했다.

책은 지난해 발간한 〈한국사지총람〉에 수록된 부산 · 광주 · 전남 · 제주지역 폐사지 672개소를 대상으로 사역(寺域) 확인, 식생(植生), 유구 · 유물 수습, GPS(위성위치 추적시스템) 좌표 기록 등 사지 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사지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와편에 대해서는 3차원 스캔 작업을 통해 그 이미지를 탁본처리 후 수록했고, 중요문화재가 남아 있는 사지는 현재의 주변 환경을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항공촬영을 해 보고서에 담았다.

〈한국의 사지〉는 옛 문헌과 각종 연구자료 등의 성과물을 반영해 흩어져 있는 사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사지의 보존 · 관리방안 마련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2014년 전국의 폐사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조사를 추진하게 되는 폐사지 학술 조사사업은 올해에도 대구 · 경북지역의 1410여 폐사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 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염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말기암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가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묻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요.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한국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어요”

익산 숭림사
외국인 노동자 전통불교문화체험


스리랑카, 태국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50여명이 숭림사 템플라이프를 체험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 템플라이프에 참가해 한국불교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익산불교문화센터(센터장 무여) 사티(sati)법당의 스리랑카 빤야사라 스님, 지도법사 선공 스님을 비롯한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노동자 50여명은 1월 29일 익산 숭림사 템플라이프에 참가해 천년고찰 숭림사의 역사와 가람배치, 주변 자연환경, 템플스테이 운영 등을 둘러보고 수행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을 준비한 숭림사 주지 지광 스님은 “낯선 이국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환영한다”며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건강하시길 부처님 전에 기원 드린다” 고 말했다.

스리랑카 빤야사라 스님은 “오늘 템플라이프 체험을 통해 전통사찰에서 한국불교를 접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 전통건축물에 매료됐다는 스리랑카 출신의 수와라띠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놀랐다”며 연신 카메라에 건축물 사진을 담기 바빴다.

대화의 시간에는 참가자들간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스리랑카에서 온 불교신자인 푸스파크마라는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배웠다”고 말했고, 사라티는 “우리는 운이 좋아요. 아여기 온 것은 행운이다. 템플스테이는 너무 멋진 곳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슬람교도 임마란은 “공부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며 “좋은 가르침 많이 듣고 간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스리랑카인 페르난도는 “매일 부처가 산다. 템플스테이가 너무 멋지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온 기독교신자인 알마는 “템플스테이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며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 참 아름다운 곳이다”고 말했다.

익산불교문화센터 산마사띠법당 센터장 사띠 스님은 “현재 법당에 120여명이 나오고 있으며, 법회에는 30여명이 참가한다” 며 “새해를 맞아 한국사찰을 찾아 큰스님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체험해 기쁘다. 앞으로도 숭림사 템플스테이에 자주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소 인근 지역의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익산 숭림사 지광 스님은 1월초에도 사티 법당의 외국인노동자들의 용인 에버랜드 관광을 주선한바 있다. 스님은 평소에도 외국인노동자들이 마음 편하게 법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김장김치, 간식 등을 후원해 오고 있다. 또 익산사암여합회, 익산 신도회와 대원회 등에서도 꾸준하게 사티법당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익산불교문화센터 사티법당은 약 18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30여명이 법회에 동참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신행회, 자비나눔의 날 행사 개최

광주지역 대표적 신행단체인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1월 27일 광주 운림동 소재 수자타에서 ‘아름다운 자비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비신행회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가와 후원자에 대한 ‘자비나눔의 상’과 인증 뱃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최고상인 자비나눔의 상에는 ▷노인복지부분 이춘순, 유명선, 오태숙, 백기해, 정희원 ▷청소년 밑반찬 부분 최길심 ▷차문화에는 최순심 ▷밥차에는 차이나궁 가족 ▷호스피스에는 곽윤희 ▷후원자에는 김은희, (주)미트원, 무진로타리 ▷특별상에 유호현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연간 600여 자원봉사자 중 1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수여하는 골드 뱃지에는 김정분, 박춘자, 박광하, 정옥례, 기명자, 곽윤희, 이춘엽, 박춘애, 유성란, 김삼옥, 신영례 회원이 수상했다.

5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수여하는 실버 뱃지에는 김현자 외 18명이, 2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수여하는 그린 뱃지에 박형자 외 45명의 회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광주 불교NGO연대 상임대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임원 스님들과 봉사자, 후원회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1부 불교의례에 이어 사업경과보고, 인사말, 광주불교방송 공동 캠페인 협약식, 자비나눔상 시상식, 자원봉사 인증뺏지 수여식과 2부 문화공연, 만찬이 진행됐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지난 99년 창립해, 부설로 한꽃노인복지센터, 한꽃茶문화아카데미, 재가 화엄학림이 있으며, 십시일반 밥차, 청소년밑반찬 지원사업, 호스피스, 청소년 장학사업과 상담지원사업, 빛고을MY리더스클럽, 한꽃시민선방, 위빠사나 수행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자들 스리랑카 쉼터건립 나서

부산 청량사 스리랑카 법회

부산 청량사(주지 현엽)는 1월 29일 스리랑카 고승 수마나시리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수마나사리 스님은 13세에 불교에 입문해 30년 넘게 수도한 스님으로 스리랑카 고찰인 빨리가타 타자마하비하라야 사 주지다.

이날 행사는 부산 경남 지역 스리랑카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 건립과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이명남 추진위원장은 “무역대행 및 통관업을 하고 있던 중 스리랑카 잔디 씨를 알게 되면서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게 됐고, 평소 모이고 싶어도 모일 공간이 없음을 알게 돼 단합의 뜻으로 법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청량사 신도들과 스리랑카근로자들은 매달 법회에서 각 만원의 보시금을 모아 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나눔의 행복한 무료 푸드마켓 문열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광산나눔드리푸드마켓 개소


바라밀 이사장 현고 스님이 지역관계자들에게 푸드마켓을 설명하고 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푸드 마켓을 운영한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은 2월 1일 광주시 무진대로 212번길에 광산나눔드리푸드마켓을 개소하고, 광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에게 무료로 식료품을 지원했다.

이날 개소한 광산나눔드리푸드마켓은 지역기업체와 일반인들이 후원한 생활필수품을 광산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결식위기가정 및 긴급지원대상자들이 매월 1회씩 5개 품목에 한해 무상 구입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소외계층에게 특정 품목을 일방적으로 지원했던 것에 비해 푸드마켓은 본인들이 필요한 식료품을 마켓에 나와 직접 구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원식에는 현고 스님(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장), 도제 스님, 김동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산지역 정관계인사와 불교신도들이 참여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개소한 푸드마켓은 기부자들로부터 다양한 물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장터이다”라며, “저소득층 이용자가 희망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중심 지원 푸드마켓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산나눔드리푸드마켓은 1억 8900만원의 지원금(국비+시비)으로 전체면적 137제곱미터에 물품매장과 상담실, 휴게실, 물류창고를 갖췄으며, 사회복지사와 복지도우미 2명이 운영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산지역의 (주)이마트와 ‘희망나눔프로젝트’ 협약식을 맺고 향후 물품구매와 지원에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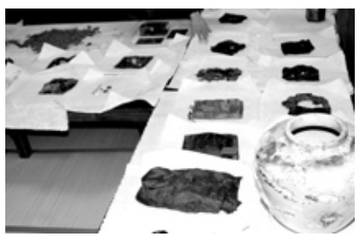
범어사 칠층석탑서 사리 등 복장물 출토

범어사(주지 정여)는 1월 29일 문화광장 조성을 위해 범어사 칠층석탑을 이전 해체하는 중 사리를 비롯한 복장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견된 복장물은 금은 제사리기 및 사리 2과와 옥기류 금속류 자수품 경전 오곡 목제품 등 8종 54점이다. 특히 사리기 내함은 금으로 만들어졌다. 함께 발견된 조성기와 경전은 습기로 인해 훼손된 상태였다.

범어사 칠층석탑은 조성 당시 인도 달라파라 스님이 1938년 4월 15일 한국에 오며 모셔온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봉안했다고 기록돼있다. 칠층석탑은 1984년 대웅전 옆에 있던 것을 현재 자리로 옮겼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팔공산 석굴암 재단법인 연등장학회 장학금전달 재단법인 연등장학재단(이사장 법등)은 1월 30일 대구동부교육청에서 제7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영남지역 고교생과 대학생 50명에게 3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 스님(팔공산 석굴암 주지)은 “마음의 원을 세워 다져 간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마음공부를 통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법등 스님이 불교인재 육성을 위해 8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연등장학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317명의 학생들에게 2억 5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젊은불자 육성 발원 대법회

《 일 시 》 2012년 2월 18일 오후 3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공연장
《 주요 프로그램 》
● 주제발표 : 왜 젊은 불자에게 기대하는가?
– 젊은불자 육성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보고
–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 축사
– 대학생 불자들의 국악연주와 율동
– 젊은불자 육성불사를 위한 서원과 다짐



불교가 우리 지도이념이 되려면
젊은 불자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전국대학 불교학생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군승법사 없는 군법당에 부처님 가르침을
꼭 전해야 합니다.

전국 350개 대학 중 불교학생회가 조직된 대학은 144개에 불과하고, 불교 신행 활동을 하는 대학생은 2,000여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군부대의 1,600개 종교시설 중 군법당은 410곳에 불과하며, 군승법사는 13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불련총동문회에서는 젊은 불자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단법인 大佛**을 설립하고 **젊은 불자 육성 발원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동참을 바랍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 사단법인 대불

서울 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4-1번지 한국수입업협회빌딩 4층
전화 02) 720-1963 / 팩스 02) 3483-0772 / E-mail : cogenlee@hanmail.net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고 무엇을 밖에서 구하는가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④

화두의 본질



믿음 · 분심 · 의심하기 강조는 회피 막고 화두에 직면 위함 보조는 회피 경험 본래문제 연결 반조 없는 화두 사량분별 사구

문제 회피

회피란 일반상담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직면을 피하는 것이다. 화두참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회피가 일어난다. 화두참구에서 믿음 · 분심 · 의심하기를 강조한 것은 이런 회피를 방지하고 화두에 곧장 직면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화두가 긴장감을 만들고 답답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의 본래면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처음 접한 이들은 당황하고 난감해한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렵다고 굴복 당해 회피하기 쉽다. 이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이곳에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급진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험과 같다. 이럴 때 내담자는 갑자기 다른 질문을 하면서 긴장감에서 회피한다. 일반상담에서 내담자는 고통스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나 부인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인정하기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자신의 방어적인 성격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회피의 사례는 선문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마조와 무업과의 문답이다. 마조는 훤칠한 용모를 가진 무업을 보고 "커다란 법당인데 그곳에 부처가 없구나"라고 말했다. 이때 무업은 절하면서 "교학공부를 했지만, 선종에서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마조는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일 뿐,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무업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시어 전한 심인(心印)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것은 현재의 문맥에서 벗어난 다소 엉뚱한 질문이다. 묻는 그 마음에 직입하지 못하고 사량분별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회피이다. 이때 마조는 "다음에 다시 오게"하고는 무업을 돌려보냈다. 무업이 일어나 나가는 것을 마조가 다시 불렀다. "이보게." 무업이 고개를 돌리자, 마조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순간에 무업은 깨닫고 마조에게 절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수심결〉 질문자의 경우는 '수행을 하면, 어떤 신통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것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로서 화두(이것은 필경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신통변화라는 다른 문제로 이동한 것이다. 이는 분명하게 갈등과 긴장감에서 오는 회피적 질문이다. 마치 무업이 갑자기 '달마대사가 전한 심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과 같다. 명백하게 그 문답의 문맥과는 다른 내용을 묻는 것이다. 물론 이런 부분은 상담자로서도 충분하게 이해 되고 또한 필요한 일이다. 마조는 무업을 돌려보낸 다음에 다시 질문을 했다. 이번에는 매우 극적인 방편을 사용했다. 하지만 보조국사는 내담자를 친절하게 수용하면서, 깨달음의 돈오(頓悟)에 의지해 치열히 수행하는 점수(漸修)에 의해서 신통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대답에 대해서 질문자는 다시 묻는다. 돈오면 점수가 아니고 점수라면 돈오가 아니다. 이들의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광반조의 직면

일반상담에서 내담자가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회피하고 혹은 다른 질문을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때, 상담자가 취할 수 있는 문제는 대개 4가지이다. 하나는 그 회피와 저항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내담자는 여기서 어느 정도 지나면, 스스로 다시 자기의 문제로 되돌아온다. 두 번째는 회피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통찰하도록 돕는다. 왜 그것을 접촉하지 못하고 회피하는지를 스스로 자각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회피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경험내용을 다시 본래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다시 처음 과제로 돌아오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내담자의 새로운 관심분야를 무시하는 방법이다. 보조국사는 세 번째의 방법을 사용하고, 마조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했다.

이미 돈오라면 점수가 아닙니다. 점수라면 돈오가 아닙니다. 돈오와 점수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기의 신령스런 앎[靈知]이 참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마음 밖으로 부처를 찾아 물결치는 대로 헤매다가, 홀연히 선지식에게서 들어갈 길을 지시받아 일순간에 빛을 돌이켜[一念廻光] 스스로 본래의 성품[本性]을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성품은 원래 번뇌가 없고 완전한 지혜의 성품[無漏智性]이 본래부터 스스로 다 갖추어져 있어, 곧 모든 부처와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돈오(頓悟)이라고 한다…(중략) 점차 닦는다는 것은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더불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지만 시작이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習氣)을 갑자기 단박에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고 점차 훈습하여 공능이 이루어지고 꾸준히 성태(聖胎)을 길러서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다. 그러므로 점수(漸修)라고 한다.

여기서 내안의 불성 · 영성을 자각했지만,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로 말미암아 장애를 단박에 없앨 수는 없기에, 깨달음에 의지하여 수행을 꾸준히 하여 성스런 태[聖胎]를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돈오의 과정을 보조국사는 회광반조(廻光返照)로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질문자의 관심을 본래의 문제, 처음 주제로 다시 되돌린 것이다. 회광은 밖으로 향하는 빛을 안으로 돌린다는 의미라면, 반조는 내면으로 돌아와서 돌이켜 비추어보는 일이다. 〈이것은 필경 무엇인가〉 화두는 바로 이런 회광반조를 발생시키는 발문이 된다. 질문자가 새롭게 제기한 신통의 문제를 회광반조의 주제로 다시 바꿔준 것이다. 그럼으로써 본래의 자기성품의 고요함과 신령스런 앎을 순식간에 자각하도록 돕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여기서 경험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긍정적인 요소로서 텅 비어있음, 신령스러움, 온전함과 같은 영적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로서 번뇌, 습기와 같은 마음현상이다. 명상수행은 마음의 부정적인 습기에서 곧장 신령스러움을 경험하는 방법적, 혹은 과정적인 요소이다. 이것이 반조(返照)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난다. 하나는 화두와 반조의 관계이다. 다른 하나는 습기와 신령한 앎의 관계이다. 다음을 보자.

어떤 방편으로 한 생각을 기틀에 돌리어[一念廻機], 문득 자기 성품[自性]을 깨닫습니까?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이다. 다시 어떤 방편을 내겠는가?…(중략) 이미 자기의 눈인데, 눈을 다시 보려 하는가? 만약 눈을 잃지 않은 줄만 알면, 곧 눈을 보는 것이 된다.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기의 신령스런 앎[靈知]도 또한 이와 같다.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무엇을 다시 알려고 하는가? 만약 알려고 한다면, 더욱 알 수 없다. 다만 알 수 없음을 알면, 이것이 곧 성품을 보는 것이다.

제 분상에 의거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텅 비어 고요하고[空寂] 신령스런 앎[靈知]'의 마음입니까?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텅 비어 고요하고 신령스런 앎의 마음이다. 어찌하여 돌이켜 비추어[返照] 보지 않고 도리어 마음 밖에서 찾는가?…(중략)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에서, 듣거나 보고 웃거나 말하고 화내거나 즐거워하고 옳거나 그르거나 하는 갖가지의 행위와 동작을 하는데, 말해보라. 필경 누가 이렇게 운전하고 행위하는가?

여기서 보조국사는 일상에서 보고 듣거나 즐겁고 화내는 마음현상이 모두 텅 비인 본성, 신령한 앎, 영성의 작용이라고 말한다. 조사선에서 '평상의 마음이 그대로도(平常心是道)'라는 주장과 상통한다. 일상의 마음과 영적인 마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마조화상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 묻고 대답하는 이것이 그대로 공적이고 영지이다고 말한다. 불성은 이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에, 다른 방편이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번뇌의 마음과 신령한 진여의 마음은 서로 다르지가 않다. 〈기신론〉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생멸심(生滅心)이나 진여심(眞如心)이나 모두 한 마음[一心]이다. 이들은 두 개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양자를 통합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생멸 · 진여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양자는 서로 분리돼 별개처럼 작용한다. 생멸이면 진여가 아니고 진여이면 생멸이 없다. 이들 양자를 통합하는 것이 바로 반조이다. 우리는 반조를 통해서 신령한 앎을 획득하고, 이런 신령한 앎에 의해서 습기에서 벗어난다. 이점은 반조의 명상심리적 기반이다.

다음으로 간화와 반조의 관계이다. 보조국사가 내담자에게 자주 하는 질문 혹은 반문은 '이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돌이켜 비추어보지 않고 무엇을 밖에서 찾으려 하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행동을 필경 누가 이렇게 운전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본질에서 자꾸 회피하는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영성을 그대로 자각해 직면하도록 돕는 질문, 곧 발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조가 밖으로 나가는 무업을 돌려세우고는 '이게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반조를 촉발하게 한다. 이것은 회피하는 내담자를 본성에 직면시키는 세 번째의 단계로서 회광반조이다.

만약에 내담자가 이것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고 애써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서 마음공부를 한다면, 이것은 곧 화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보조국사가 직접 언급을 않고 있지만 화두(話頭)는 끝내 반조(返照)여야 한다. 반조는 습기를 제거해 진여로서 영성을 경험하게 만든다. 반조가 없는 화두는 사구로서 잘못된 길에서 해매게 한다. 단언컨대 화두의 본질은 회광반조이다. 회광반조가 없는 화두는 사량분별하는 선병에 떨어진다. 무업의 경우처럼, 질문에 의해서 회광반조가 촉발되고, 반조가 있으면 그곳에 깨달음이 있다. 상담자가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내담자가 반조해 스스로 내면의 불성, 영성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선종사에서 회광반조를 강조한 인물은 중국에서 임제 · 대혜 · 몽산 화상 등이고, 한국에서는 보조 이후로 나옹 · 한암 선사이다. 이점은 선종의 중요한 수행의 특징이다.



명상상담연구원장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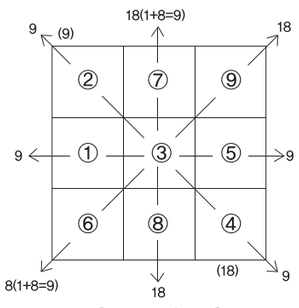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구단구궁법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출강 및 통신 2012학년도 제 21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1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제2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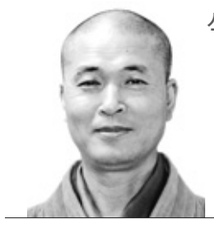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2년 2월 24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절박한 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조주의 주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왕이 그야."

問 如何是趙州主 師云 大王是

조주(趙州)는 원래 지역 이름이다. 조주 스님이 한 곳에서 40년을 넘게 살다보니 지명이 곧 스님의 호(號)가 된 것이다. 학승이 조주 스님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은 것은 조주 스님의 '본성'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조주라는 지역의 주인은 나라의 대왕이라고 대답했다. 물론 비유로써 대답한 것이다. 조주 땅의 주인이 대왕이듯 조주 스님의 몸을 이끌고 다니는 주인은 마음, 곧 심왕(心王)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에 나라의 주인은 국왕이지만, 일신의 주인은 마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므로 능히 왕이라는 호칭을 써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을 법왕(法王)이라고 불렀다. 나라의 주인은 국왕이지만 진리(法)의 왕은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자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마음이 일신의 주인이라고 본 조주 스님의 정신이다. 마음이 바르면 몸도 바르지만 마음이 똑바르지 않으면 몸도 똑바르지 않게 된다. 이 몸의 주인은 영(靈)이나 신(神)이 아니고 마음(心)이다.

학승이 물었다.
"절박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원컨대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오줌 누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問 急切處請師道 師云 尿是小事 須是老僧自去始得

무엇이 가장 절박한 일일까? 조주 스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닥쳐왔을 때가 바로 절박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나라에 지진이나 수해같은 큰 변고가 닥쳐오면 국가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재해복구를 거들기도 한다. 그때, 가장 시급한 일은 재해복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일은 자기의 본신(本身)을 회복하는 일이다. 〈법화경〉에서 장자의 아들이 자기가 훌륭한 집안의 자손임을 잊어버리고 걸인으로 돌아다니듯이 일체 중생은 자기가 부처의 아들(佛子)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부처의 삶은 평화롭다. 그러나 중생의 삶은 고달프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 한 찰나 깨달으면 된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오로지 본인이 해야 한다.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가서 단 1회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설법을 듣는다면 곧 깨어나 부처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선불교에서 지향하여가는 깨달음의 길이다.

학승이 물었다.
"누가 부처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은 선상(禪牀)에서 내려와 그 학승을 위로 쳐다보고 또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이 사나이는 이렇게 키가 장대하다. 세 토막으로 절단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런데 굳이 위라느니 아래라느니 하면서 물어볼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問 如何是佛向上人 師下禪床 上下觀瞻相云 者漢如許長大 截作三橛也得 問什麼向上向下

조주 선사를 구순피선(口脣皮禪), 즉 다른 선사들과 달리 입으로 진실을 가리키는 선사라고 말하지만, 사실 본 〈조주록〉을 보면 조주 선사 역시 다른 선사들처럼 살아있는 법문을 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번 문답도 그런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주 선사의 가리킴이다.

부처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 부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학인이 질문한 것인데, 조주 선사는 일부러 선상에서 내려와 질문자를 위로 올려다보고 또 아래로 내려다보는 연출을 해 보이면서, 너는 세 토막으로 잘라도 좋을 만큼 큰 사내인데, 더 윗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묻느냐면서 질책성 가르침을 준 것이다.

부처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다시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너는 부처야. 부처가 최고 높은 자리다. 너는 내면은 부처이고 표면은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으로 족해. 부처라는 이름도 거추장스러워. 사람, 그 이상 높은 단계를 찾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⑤

출가하는 일은 어렵다 속가에 머물러 사는 일도 어렵다 〈테라가타〉

펄 펄 눈이 내린다. 눈이 쌓여만 간다. 누군가는 이 눈을 맞으면서, 눈을 쓸어내고 있다. 이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더 내려가면 길은 빙판길이 되리라. 눈길 위에서 엉덩방아를 찧고, 낙상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리라. 눈길을 가는 일은 어렵다. 하기는 눈길이 굳이 아니더라도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도(道)나 법(法)은 모두 길이다. 영어로는 'way'다. 주어진 길이든지, 자기 스스로 만들면서 가는 길이든지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꾸벅 꾸벅 부지런히 가야하고,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니까. 이 간단하게 보이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길을 가다가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게 된다. 길가에 핀 꽃들에 마음을 빼앗겨 길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먹기도 한다. 어떨 때는 길 자체에 대해서, 길을 만든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혹은 함께 길을 가는 길벗들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다. 그 화를 내는 일이 정당한 일이든지, 즉 길에 부합하는 일이든지 아니든지 무관하게 화를 낼 수도 있다.

길을 통째로 들어내서 쳐 박아 버리고도 싶다. 그 길 안에서 부당하고도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날수록 그런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는 내가 갈 길 자체가 없어진다. 그 부당하고도 부조리한 길을 제외하고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더 좋은 길이 없을까, 언제나 꿈을 꾼다. 하지만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다. 힘들지 않는 길은 없다. 나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고, 나 스스로를 내다버려야 한다. 결코 출가자가 가는 길이라 해서 더 쉬운 것도 아니고, 속가에 사는 몸이 걷는 길이라 해서 더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 길은 그 길대로 어려움이 있고, 이 길은 이 길대로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그 어느 길도 우리에게 도피처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젠타 비구의 노래가 옳다. "출가하는 일은 어렵다. 속가에 머물러 사는 일도 어렵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차라리 돌아갈 제3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길을 피하고서는 나의 길이 없다. 눈이 오던, 바람이 불던 꾸벅 꾸벅 갈 수밖에 없다. 길을 가면서 길을 만들고, 길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이다. 가르침·도·법 역시 '길'이다.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심오한 길이 있다. 심오할 가르침이 있다는 것만이 우리를 이끄는 불빛이 된다. 젠타 비구가 "하지만 가르침은 심오하다"라고 할 때, 그 뉘앙스는 "그 어떤 길도 다 어렵긴 마찬가지다. 다행인 것은 그 행진에 대한 가르침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리라.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보폭은 어느 만큼 벌려야 하는지 잘 기록해 놓은 길라잡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눈길 끝에 깜박깜박 보이는 초가집 호롱불처럼 우리



를 비쳐준다. 그 가르침을, 그 길라잡이를 들고 가야 한다. 길을 가면서,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왼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 길라잡이를 펼쳐야 한다. 그 속에 들어있는 약도를 보고서 확인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으면 영생하고 멸망치 않는다고 말이다. 우리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다. 함께 가는 길벗들 중에도, 혹시 교만심으로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눈길 같은 한 세상, 살아내기가 힘들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오한 가르침, 즉 심오한 경전이 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 기산심해



산 같이 바다 같이

氣山心海(기산심해)
기세는 산같이 마음은 바다같이

氣: 기운 기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서화산책 이번호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2년 2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2년 3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2년 2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2년 3월 9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0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2월중
◆개강일시 : 2012년 2월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풍수지리 허한 곳에 계담 조성 길한 땅 만들어

계담

계담(溪潭)은 사역주변을 흐르는 계류를 인공적으로 막아 못과 같은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찰에는 계담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사찰에서 계담을 조성했던 까닭은 그것이 가진 여러 가지 수자원적 가치 때문이다. 스님들은 이러한 가치를 잘 파악해 계담을 만들어 충분히 활용했다. 계담은 풍수지리적으로 허한 땅이나 좋지 않은 땅을 길한 땅으로 만든다. 계담은 필요한 비보와 엽승의 기능을 했고, 경관적으로는 아름다운 미적 대상으로 기능했으며, 자원적으로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물을 비축하기 위한 저수조로 기능했다.

우리나라 사찰은 기본적으로 장풍득수하기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있다. 좋은 땅의 조건은 좌청룡 · 우백호 · 남주작 · 북현무의 형성이 뚜렷함과 동시에 계간수가 풍부해 음과 양의 기운이 절묘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용의 기가 뭉친 혈 앞에 깨끗한 물이 고여 용맥의 생기가 보호돼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못이 형성돼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공적으로 못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 못이 바로 계담이다.

경관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담은 대체로 세 가지의 미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계담에 물을 고이게 하여 주변의 삼라만상을 비치도록 하는 영지의 효과, 못물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시각적 효과, 계담에 고인 물이 보를 넘어 떨어지면서 형성하는 폭포의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계담은 방화수나 허드렛물을 저장하는 저수조가 되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 위한 욕조가 되기도 하였다. 방화수는 목조건물이 주였던 산지사찰에서는 매우 긴요한 쓰임새를 가졌을 것이다. 특별히 욕실을 갖추지 못했던 지난날의 형편을 감안할 때, 계담은 훌륭한 욕조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청된다.


월정사 계담은 경관적으로도 중요하다.


은해사 계담은 주변의 암벽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 사찰에 만들어진 계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송광사 계담이다. 송광사 계담은 아름다운 수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수경관 자체의 아름다움도 일품이지만 물 위에 그림자가 비치는 영지효과와 계담의 물이 보를 넘어 떨어지는 폭포효과는 이 계담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송광사 계담은 일주문을 들어서면 왼쪽 편으로 길게 자리를 잡고 있다. 멀리 조계산에서 내려오는 자연계류를 막아서 만들었다. 송광사 계담에는 무지개 다리와 그 다리 위에 회랑 모양으로 길게 건축한 우화각, 육감정(六鑑亭)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임경당(臨鏡堂) 건물이 사시사철 물에 그림자를 비치고 있다. 그야말로 특별한 세계를 연출한다. 여기에서 육감정이란 말은 육근(六根: 眼, 耳, 鼻, 舌, 身, 意)을 고요히 해 지혜롭게 마음을 비춰보는(鑑) 정자라는 의미이다. 임경당은 거울 같은 물가에 가깝게 지은 집이란 뜻일 것이니 송광사 계담은 일찍부터 송광사의 경관에 의미를 부여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찰 수자원 가치 빛나는 계담
저수조 · 경관 조성 등 다기능
송광사 계담은 경관 조성 위함
백양사 · 해인사 등 영지 기능

백양사 계담도 빼놓을 수 없는 사례이다. 백양사 계담은 백양사 들어가는 입구에 조성돼 있다. 송광사 계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면적이 넓다. 백양사에 언제부터 계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나 오래된 누각인 쌍계루와의 상관성을 따져 볼 때, 계담의 역사 또한 오래되었음이 분명하다. 단지 지금과 같은 규모의 계담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쌍계루는 1370년에 붕괴된 이후 1377년에 복구됐고, 지금의 쌍계루는 1980년에 복원됐다. 1381년에 쓴 이색의 '백암산정토사쌍계루기(白巖山淨土寺雙溪樓記)'에는 "이곳에서 두 계곡의 물이 합쳐지므로 '쌍계루'라고 이름했다"는 기록이 있어 쌍계루의 역사를 고증한다. 백양사 계담은 풍수지리적 차원에서 설명되기도 하지만 경관적으로 볼 때, 백양사 대웅전 후면에 높이 솟아있는 백암산(741.2m)의 그림자를 물위에 비치도록 하는 영지의 기능이 우선된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사찰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저수조로 활용됐을 것이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왼편으로 길게 자리한 계담. 무지개 다리와 그 위 회랑 모양 건축물과의 조화가 빼어난 경관을 이루고있다.


해인사 계담에 비치는 삼라만상의 풍경은 일품이다.

해인사에도 사역 동측편으로 흘러내리는 오대천이 사역 남쪽에 자연적으로 고여서 형성됐다. 다른 사찰에서 인공적으로 보를 막아 조성한 계담과는 차이가 있다. 이 계담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금강연(金剛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역 바로 전면부에 자리를 잡고 있고 물이 맑아 사찰에 머무는 생기를 보호하는 풍수적으로 길한 물에 해당된다. 또한, 계담의 수면에 주변 여러 가지 사물들이 비치는 영지의 기능을 하기도 하여 경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성을 갖는다. 예로부터 월정사에 사는 스님들이 좋아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조용히 앉아 선정에 들기도 좋고, 주변을 포행하면서 자연을 느끼기에도 적당하니 스님들이 좋아할 만도 했으리라. 또, 이곳에는 냉수성 어류인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는데,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이것을 보면 금강연의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은해사 보화루 맞은편 계류에도 낮은 보를 막아 만든 계담이 있다. 이 계담 역시 다른 사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물이 맑고 주변의 경관이 수려해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곳이다. 특히 계담 주변으로 형성된 깎아지른 듯한 암벽은 깊은 산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경관이어서 지난날 은해사의 입지성을 짐작케 한다.

그밖에도 계담을 볼 수 있는 사찰은 이곳저곳에 많이 있다. 당장 생각나는 곳으로는 마곡사, 통도사, 고운사, 천은사, 기림사 등인데, 이 사찰의 계담 역시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풍수적 · 경관적 · 자원적으로 다양하게 기능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특허출원: 20-2011-006164



후령통 및 13종(65가지) 물목을 담은 물목함
물목함 세트 사이즈 (370X250X100)


금합 후령통 및 오방경,팔엽연화, 사리함,양면원경,오보병 등을 팔엽대홍련지도 위에 펼친 전경


은합 후령통 및 오방경,팔엽연화, 사리함,양면원경,오보병 등을 팔엽대홍련지도 위에 펼친 전경

대(80X210) : 금합 350만원 / 은합 300만원
중(60X155) : 금합 300만원 / 은합 250만원
소(50X115) : 금합 190만원 / 은합 150만원

불복장의식 문의 010-2685-0361
불복장의식 연구소장 세림스님께서 직접해드립니다.

諸佛菩薩 腹藏莊嚴具
(부처님 복장점안 장엄구)

복장장엄이란 부처님을 조상하고, 그 내부에 여법하게 종교적 절차를 거쳐 점안을 거쳐 신앙의 대상으로 나투시게 하는 의례과정입니다. 복장의례에 관한 경전은 조선시대 재구성된 "조상경" 및 관련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총 4차례에 걸쳐 재구성된 복장의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의경전과 전통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장장엄 의례 및 과정에 대한 이해는 그리 높지 않아 불교문화를 계승하는 견지에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유상아트에서는 가장 근래에 재편된 유점사본 조상경을 토대로 하여 후령통과 납입물목을 재정리하고, 의례까지 재현하여 본 '불복장 장엄구세트'를 스님 및 불자님들께 선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장장엄과 관련한 여러 경전과 유점사본 조상경에서 일치되지 않고 혼돈을 보이는 오방색에 대해서 유점사본의 조상경의 대부분 물목의 색에 오보병을 맞추어 오방위의 색을 통일시켜 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불복장장엄구의 재현은 불복장장엄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고, 이는 한국 불교문화의 올바른 구성이라는 견지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불복장장엄구의 재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세림스님과 최태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 불교문화의 올바른 계승으로 이어지기를 부처님께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6년 2월

유상아트 김명환 합장

특허출원: 30-2011-0042460



般若波羅密多心經 금동반야심경
고려대장경의 반야심경판본입니다.
• 크 기 : 28.8cm × 14.6cm
• 재 질 : 표면처리 순금 24K
• 보급특가 : 300,000원



목판반야심경
• 크 기 : 28.8cm × 14.6cm
• 재 질 : 원목무늬, 원목좌대
• 보급특가 : 150,000원



한글반야심경
• 크 기 : 28.8cm × 14.6cm
• 재 질 : 원목무늬, 원목좌대
• 보급특가 : 150,000원



신묘장구대다라니
• 크 기 : 28.8cm × 14.6cm
• 재 질 : 원목무늬, 원목좌대
• 보급특가 : 250,000원

* 법보시용, 감사패, 공로패 대용으로 가치 충분합니다.
* 좌대 (받침대)에 24K금박으로 원하시는 글씨를 세겨드립니다.

yoosang 유상아트 전화 031)314-3542 / 318-3545 HP : 010-4711-3542 홈페이지 www.yoosang.co.kr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329-2번지

초의 스님이 좋아한 茶는 禪이 되었다

㉔ 해남 대흥사(大興寺)

일주문을 지나자 부도밭이 나온다. 그야말로 부도 '밭'이다. 부도 54기와 탑비 27기. 서산 대사(휴정;1520~1604)를 비롯해 풍담에서 초의까지. 만화에서 완호까지. 그 밖의 이름들. 조선조 억불의 시절을 살아낸 불명(佛名)들이 시절을 용서한 듯 음각(陰刻)의 깊이를 낮추고, 용서마저도 떠난 이름들은 하나 둘 부도를 떠나기 시작했다. 겨울바람이 장송의 그림자를 흔들고, 스승과 제자의 이름이 한 햇살에 젖고 있다. 땅 끝에 있는 대흥사다.

대흥사의 창건 연대는 정확하지 않다. 426년 신라의 정관 스님이 창건한 만일암이 시작이란 설과 544년 아도의 창건설, 508년 이름이 전하지 않는 비구가 중창했다는 설이 있다. 임진왜란 때 서산 대사가 거느린 승군의 총본영이 있었으며, 1604년(선조 37) 서산 대사의 의발(衣鉢)이 전해진 후 크게 중창됐다. 억불의 탄압 속에서도 대흥사는 많은 선지식을 배출했다. 풍담 스님으로부터 초의 스님에 이르기까지 13 분의 대종사와 만화 스님으로 시작해 범해 스님에 이르는 13 분의 대강사를 배출했다.

"내가 시적(示寂)한 뒤에 의발을 호남도 해남현 두륜산 대둔사(대흥사의 옛 이름)에 전하여 제삿날에 재를 받게 하라." 묘향산 원적암에서 정진 중이던 서산 스님은 원적에 든다. '80년 전에는 네가 나이더니 / 80년 후에는 내가 너로구나' 스님의 마지막 시(詩)다. 스님의 의발은 대흥사에 모셔진다. 그리고 그의 법맥이 대흥사에서 꽃을 피운다. 그 꽃들이 부도밭에 피어있다.

바람이 분다. 차가운 바람 앞에 초의 스님이 앉았다. 찻잔 앞에 앉은 선사는 그 시절 차를 좋아했다. 선사가 좋아했던 '차'는 '선(禪)'이 되었다. 13 대종사 중 마지막 대종사. 마지막 꽃이다. 제자를 찾고 있는 걸까. 선사의 시선이 아직도 그 시절에 머무는 듯하다. 차가운 찻잔에 햇살이 고인다.

마지막이어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대흥사에 가볼 일이다. 마지막이라고 불리는 한 선지식이 도량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량을 떠나지 않고 있는 스님의 형용사가 '마지막'일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스님의 뒤를 누군가 이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고맙고 따뜻한 일인 것 같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어간다는 것, 그 '누군가'가 있기에 세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마지막이란 없는 것이다. 빛깔 잃은 개망초들이 겨울바람을 견디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대흥사 13대종사 중 마지막 대종사이며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 스님 동상


대흥사 전경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들이나 불자님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든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뵙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불교 통일운동 새 장 연 대불련도 IMF 맞아 위축

④ 1990년대 – 시민사회운동으로의 변화와 IMF

1990년대는 사회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 이어 시민사회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시기였다.

시민사회운동은 1980년대의 급격한 민주화를 대신해 보다 세밀하고 점진적인 민주주의의 확산을 의미했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민사회운동의 특징은 합법적·비폭력적·대안제시가 특징이었다.

이는 폭력적·정치투쟁적인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과 사회발달에 따른 대안제시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대중의 인식은 불교계로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맥을 같이한 민중불교운동은 1990년대 들어서며 그 영향력이 크게 축소됐다. 특히 그 내용도 1980년대에 비해 상당히 온건화 되며 뚜렷한 정치성이나 정치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닌 불교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반 대중이 불교로부터 기대한 것은 정치성이 아닌 종교성이었기 때문으로 더 이상 정치적 이슈로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정치적 운동과 함께 여러 불교계 인사들이 시도한 불교적 이론화와 그 논의들이 결실을 맺지 못한 영향도 컸다.

1990년대 운동권의 전반적인 퇴조와 함께 민중불교운동은 쇠퇴의 길을 함께 걷는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진행된 출가와 재가 자간의 이완은 1990년대 들어서 보다 심화됐다. 1980년대 사회참여를 하며 승속을 넘은 동지로서 형성된 관계는 새로이 설정된 종단 개혁이라는 과제 아래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1994년 종단 개혁운동에서 재가자의 종단 참여를 둘러싸고 출·재가자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는다. 종단 참여가 좌절된 재가불자들은 독자적인 세력화를 모색했고 이는 1994년 재가불자연합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대불련은 이러한 틀에 동참했다.

이 당시 재가불자들은 "개혁회의가 역사의 흐름을 놓쳤으며 개혁이 계파와 문중의 이해관계로 점철됐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대불련 또한 내부적으로 종단과의 관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립 이후 제도적으로는 묶여있지 않았지만 창립과정과 이후 지도과정에서 조계종 스님들과의 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불련은 재가불교운동의 독자성과 종단과의 제도적 관계 형성을 고민했다.

1994년 개혁운동 이후 새로운 대승불교운동과 재가불자의 지도력 확보란 현안에 대불련과 재가불자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전개한다. 바로 수행이다.

이 당시까지 불교 내부에서 수행에 대한 대중들의 잠재 욕구는 있었지만 수행이 독립적인 중심사업으로 전개된 적은 없었다. 1970~80년대 각 지역에서 소그룹 단위의 교리교육과 법회, 수련대회가 중앙과 지부 단위의 제도적인 틀 안에 정착됐다. 1992년 대불련은 수행학교와 교화단 활동으로 기존 수련대회에서의 수행을 더욱 제도화 한다. 현재까지 매년 초 열리는 수행학교는 대불련 지도자 육성 및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 KBUF불교아카데미가 교화단 활동으로부터 발전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대구·대전 지역에서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모색되거나 진행됐으며 지역적으로는 정토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 생태운동이 전개된 곳도 있었다.

민중불교운동 1990년대 들어 약화
정치색 덜고 불교개혁·촛점 맞춰
종단 개혁 때 앞장서 제 목소리
재가운동 동참·수행교화 제도화

또 새롭게 대두된 통일 문제에 있어 사회흐름과 발맞춰 대불련 차원에서의 통일운동 또한 전개된다. 1996~1997년에는 '북녘동포돕기운동'이 주요사업으로 전개되며 불교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대불련은 통일순례단 형성 등을 통해 교양교육과 함께 모금 사업도 진행했다.

하지만 1990년대 대불련은 IMF를 전후로 대학생들의 사고가 변화하며 큰 위기를 맞는다. 취업과 경제 중심의 대학문화 변화에서 동아리 활동, 특히 학내 종교활동은 쇠퇴해 갔다.

지역 간 네트워크 붕괴로 인해 대불련 중앙집행부의 각 지역 파악조차 힘든 실정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학내활동을 지도하는 지도교수와 법회 지도법사의 부재, 멀어져간 동문들의 관심 역시 대불련 활동의 둔화의 요인으로 자리했다.

대불련 활동의 침체는 한국불교의 미래축인 젊은 불자들의 역량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도교수와 지도법사, 동문의 새 관계 형성과 지역과 중앙과의 네트워크 복원, 새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 수립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덕현 기자**


1999년 최초 방북단으로 남북불교교류에 동참한 대불련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시위하는 대불련 청년불자들



1994년 부산지역에서 열린 수련대회에서 거리 포교를 하는 대불련 회원들

불자간 유대관계부터 늘려야

28년간 공주 교대 지도법사 해월 스님



"대학생 불교학생회는 아직까지 충분한 역량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계의 관심으로 젊은이들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효사 주지 해월 스님은 20년 넘게 대불련 지도법사로 활동해 온 대불련 근대사의 산 증인이다.

스님은 1976년 원광대 한의과대학에 입학하며 불교학생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출가까지한 스님은 지도법사로 대불련 활동을 계속했다.

해월 스님은 1984년부터 원효사 주지로 있으며 공주교대 지도법사를 맡고 있다. 학생·지도법사 경력을 모두 합하면 스님은 40년 넘게 대불련 활동 중이다.

스님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 사라지는 것에서 대불련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1970년대만 해도 지회별로 수십에서 100여 명 단위의 회원이 있었다. 대불련은 한국불교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날이 갈수록 위축돼 현장에 있는 법사로서 대불련과 불교계 미래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스님은 "대불련의 문제는 활동의 구심점이 없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과 별개로 스님과의 유대관계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학창시절 금산사 도법·원행 스님이 지도해 주셨다. 내가 대불련 지도법사를 맡게 된 것도 학생시절 큰 스님들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스님들을 비롯한 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스님은 공주지역 지회 2곳 중 하나인 공주대 상황을 통해 지회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스님은 "공주대는 한마음선원 음성지원에서 법회를 해주고 있지만 대

"한번 만난 인연 커서도 기억
스님들 관심 절실해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한계
원력 갖고 뛰어야 사람 모여"

학원생까지 해서 3~4명 뿐이다. 그나마 회장이 열심히 활동해서 3~4명으로 명맥을 잇고 있지만 회장이 졸업하고 나면 유지조차 힘들 지경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공주교대도 한때 3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있었다. 근래 10여명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그나마 교대여서 인성 교육과 관련한 종교활동의 관심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한 불교 인적 저변이 있다. 열심히 뛰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불교학생회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도 다른 곳으로 찾아간다"며 불교학생회 자원을 법회로 끌어 들이는 지도법사, 지도교수, 대불련 회원들의 역량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정합니다 제871호 대불련 총동문회 명호근 총재 인터뷰 기사 중 대불련을 대불련 총동문회로 정정합니다.

천태차문화대학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천태차문화대학 제1기

천태차문화대학

수강기간	2년
수강대상	차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수강인원	00명
특 전	1. 수업료 전액 무료 2. (사)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다도대학 수료증 3. 천태종단내 차문화연구원으로 각종 행사에 활동
교 과 목	한국차문화사, 중국차문화사, 일본차문화사, 동다송, 다신전, 불교학개론, 초발심자경문, 예절, 제다, 천태다법

천태차문화대학원

수강기간	2년
수강인원	00명
교 과 목	다경, 일본다도실습, 중국다예실습, 도자기 감상 및 실습, 제다, 천태다법, 다화, 품평, 다시 감상, 특강

천태차문화대학원 심화과정

수강기간	1년
수강인원	00명
교 과 목	차와 명상, 다부, 교육학 개론 및 실기 방법론, 향도, 제다, 홍차 및 테이블 세팅, 다식 및 천연염색, 특강

교육목적

한국불교차문화의 대중화에 노력해온 (사)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가 한국불교천태차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불교차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다도교육을 실시한다.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는 천태차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다도교육을 통해 심신을 청정하게 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목표

차(다도)에 대한 예술·인문·과학·사회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배운다. 한국불교의 전통다예, 헌다의식, 끽다 예법을 익히게 하여 우리나라의 불교차문화 대중화에 기여한다.
천태다법을 연구 계승 발전시킬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다도를 통하여 심신수련과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교부기간 : 2012년 3월 1일 18:00
- 원서 교부처 : 1.천태종 홈페이지→참여마당→자료실
  2.총무원 교육부(구인사)
- 접수 : 2012년 2월 1일~3월 2일 18:00
- 접수방법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7315kyo@hanmail.net)
- 접수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천태종 총무원 교육부
- 원서 접수비 : 5,000원

■ **면접 일시·장소**
- 면접 : 2012년 3월 3일(토) 19:00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강의실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 개강일(입학식) : 3월 7일 17:30
- 문의전화 : 043)420-7315(구인사 교육부)

■ **차문화대학 위치 및 오시는 길**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SKHUB
- 서울역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시내버스 151번, 704번, 8000번
- 고속버스터미널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시내버스 401번

※ 상기 사항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러 연방 부랴티아, 불교 움튼다

인도서 찾은 부흥 단초…부랴티아에서 회향
부다가야 칼라차크라 동시통역 실시간 중계


인도 부다가야에서 열린 칼라차크라 현장. 달라이 라마가 집전한 이번 법회에는 400여 명의 부랴티아 불교도들이 참여했다.

유럽 최초의 불교사원이 있는 부랴티아 공화국. 19세기 볼셰비키 혁명 이후 쇄락한 부랴티아(Buryatia) 불교계가 부흥의 단초를 인도에서 찾았다.

온라인 매체 러시아&인도 리포트(Russia&India Report, http://indrus.in)는 1월 31일 "부랴티아 불교도들이 인도 불교성지 부다가야에서 열리는 법회에 참여하기 위해 순례 길을 나서고, 티베트 사원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00여 부랴티아 스님과 불자들이 부다가야에서 열린 달라이 라마 집전 칼라차크라(Kaalchakra) 법회에 참석한 것은 물론, 법회 실황을 러시아어로 통역해 부랴티아 FM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했다.

러시아 동부에 위치한 부랴티아 공화국은 지금부터 400여 년전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를 티베트와 몽골을 거쳐 수용한 이래 200여 년간 불교가 융성했다. 그 후 볼셰비키 혁명을 기점으로 쇄락의 길을 걸었던 부랴티아 불교는 소비에트 연방(USSR)의 붕괴와 함께 다시 움트기 시작해. 지금은 칼미키아(Kalmykia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공화국), 투바(Tuva, 러시아 중부에 있는 공화국) 등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칼라차크라 법회에 참여한 타마라 소드노모바(Tamara Sodnomova, 61) 씨는 "부랴티아 공화국에는 1300여 불교도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간절히 찾고 있다"며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울란우데(Ulan-Ude, 부랴티아 수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 가르침의 진정한 뜻을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정진하다 보면 그 뜻을 헤아리는 날이 오질 않겠느냐"고 반문한 소드노모바는 "부랴티아 불교계는 80여 년간의 공산주의 체제를 겪으며 대부분의 전통을 잃어버렸다"며 "부랴티아 불교도들이 인도 성지순례와 법회에 참여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그것을 일상에 적용시킬 방편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도 방갈로르(Bangalore, 인도 카라나타카 주에 있는 도시)에서 IT회사에 근무하는 부랴티아인 다리마 다리바카론(Darima Daribazaron) 씨도 이번 법회에 참여했다. 그는 "고국(부랴티아)의 스님들이 인도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부랴티아인에게 법회 참여를 적극 권했다"며 "인도에서 공부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는 부랴티아 불교도들은 지금의 배움을 수천 마일 떨어진 부랴티아에서 회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인도 리포트'는 "티베트 사원대학에서 공부하는 부랴티아 학생 2명이 최근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게쉐(Geshe, 박사) 자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카르나타카(Karnataka, 인도 남서부에 있는 주)에 있는 티베트 사원대학에서 공부해 온 부랴티아 학생들은 12~20년간 티베트어로 진행되는 경전 공부와 토론 과정을 밟아야 받을 수 있는 '게쉐 자격'을 16년 만에 받았다.

오종욱 편집위원

부랴트아 불교와 이티겔로프 스님


다쉬 도르죠 이티겔로프(Dashi-Dorzho Itigelov) 스님

부랴트아(Buryatia) 불교는 '재정 러시아' 시대에 가장 융성했다. 당시 불교계 최고 지도자는 다쉬 도르죠 이티겔로프(Dashi-Dorzho Itigelov) 스님으로, 1917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Czar Nicholas II)로부터 '성인'의 칭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노프가(the House of Romanov)의 300주년 기념식 집전도 맡았다.

기념식은 상트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 세워진 유럽 최초 불교사원 군체쵸니네 다짠(Gunzechoyney Datsan)에서 열렸다.

이티겔로프 스님은 1927년 깊은 명상에 든 채 입멸한 예로도 부랴트아 불교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스님은 법구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유실됐는데, 2002년 부랴티아 불교성지 이볼긴스키 다짠(Ivolginsky datsan)에서 소나무 상자에 싸인 채, 입멸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발굴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발굴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병리학자들은 "불과 36시간 전에 죽은 것처럼 보였다"며 "피부와 근육 등에서 부패가 진행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호주 WA 퍼스, '법등을 밝히다'

2월 2~4일 '호주와 불교' 주제 첫 국제회의…27명 스님·학자 발제

호주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West Autralia, 이하 'WA') 주의 퍼스(Perth) 시에서 법등이 밝았다.

온라인 매체 퍼스나우(www.perthnow.com.au)는 "지난해 WA 퍼스에 이민 온 '에스토니아 닝마 불교(Estonian Nyingma Buddhism)' 대표 벨로 바르트노우 스님이 퍼스 시민들의 불심을 깨우기 위해 지역 사상 처음으로 국제회의와 대중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불교와 호주 2012(Buddhism & Australia 2012)'라는 모토(motto)로, 바르트노우 스님과 WA 불교계가 힘을 모아 기획한 이번 국제행사의 주제는 '불교와 호주를 생각하는 회의(Buddhism and Australia conference)'이다.

"행사가 진행된 2월 2~4일, 퍼스 시민들이 불교의 가치를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바르트노우 스님은 "호주 이민 후 퍼스에 정착해 사는 동안, 이곳 사람들이 불교를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지만 윤리(ethic)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포교의 가능성을 확신했다"며 "퍼스에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퍼스 시민들이 불교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면, 이곳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머독대학(Murdoch University)에서 3일간 열리는 '불교와 호주 2012(Buddhism & Australia 2012)'는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27명의 스님과 학자들이 발제에 나서, 호주 불교의 깊이를 가늠하고 아시아 불교의 가치를 세웠다.

바르트노우 스님은 1980년대 초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고정칼럼을 진행하는 등 매우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 후 유럽으로 이주해 '에스토이나 독립당(Estonian National Independence Party)'을 창당, 구소련에 맞섰던 그은 1988년 에스토니아에서 추방돼, 히말라야 주변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이때 그는 티베트 불교 수행에 매진하며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이주한 그는 스웨덴 등에서 포교에 나섰고, 현재 호주에서 법등을 밝히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달라이 라마, 미국 웨스턴 코네티컷주립대학 방문

10월 18·19일 양일간
'불교적 지혜' 주제로 대중 강연

달라이 라마가 오는 10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웨스턴 코네티컷 주립대학 캠퍼스에서 '불교적 지혜'를 주제로 대중 강연에 나선다.

웨스턴 코네티컷 주립대학의 제임스 슈모터(James Schmotter) 총장은 "달라이 라마가 오는 10월 18·19일 웨스턴 코네티컷 주립대학을 처음으로 방문한다"며 "양일간 티베트 불교의 지혜를 주제로 현대인을 일깨우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의 '10월 방문'은, 1월 10일 뉴욕 주제 티베트 사무국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를 위해 제임스 슈모터 총장이 도 나각 쿤프헨(Do Ngak Kunphen Ling) 스님의 도움을 받아 2년간 노력한 성과물이다. 도 나각 쿤프헨 스님은 현재 웨스턴 코네티컷 주립대학 인근 레딩(Redding) 지역에서 티베트 불교사원을 맡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동북아 불교교류의 가교를 놓다

세계의 불교학자(5)

조박초 중국불교협회 회장



저명한 사회 활동가이자 서예가이며 시인 겸 유명작가인 인물이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불교관련 저서를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발전에 큰 공헌까지 했다. 지금 나열한 직함 중 어느 한 가지도 평생을 바쳐야 하는 일인데 이를 모두 완숙의 경지까지 체득 한 인물, 그가 바로 중국의 조박초(1907~2000) 중국불교협회 회장이다.

조박초 회장은 근대중국불교를 중흥하기 위해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문화혁명이 끝난 중국에 종교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공산화된 중국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조 회장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1992년 한국에서 열린 동북아 불교지도자 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조 회장에게 동국대가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1995년에는 천태종 부산 삼광사를 방문해 처음으로 한국의 수행과 포교현장을 답습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불교교류가 본격화 됐다.

평생을 불교발전과 불교국제교류에 힘써온 조박초 회장은 중국 안휘성(安彙省) 태호현(太湖縣)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모친과 가정의 영향을 받아 불교를 믿게 됐고, 청년시절에는 소주(蘇州)의 동오대학(東吳大學)에서 공부했다.

그러던 중 1927년 여름, 병이 들어 상해(上海) 각원(覺園)에 있는 외삼촌 관경지(關絅之)의 집에서 요양하며 살게 됐다. 관경지는 당시 상해에서 유명한 불교 박사였고, 그 영향으로 조박초 회장은 더욱 불교에 심취하게 됐다.

그 뒤, 젊은 시절부터 불교사업에 투신한 이래 많은 불교계의 저명인사들과 접촉했고, 1928년 이후에는 상해·절강 불교연합회 비서, 상해불교협회 비서, 불교정업사(佛教淨業社) 사장을 역임하면서 불교를 널리 알리는 일과 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

1929년에는 중국불교협회가 발족했고, 초대 회장으로 원영(圓瑛) 대사가 선출됐다. 그리고 태허 대사와 조박초의 외삼촌 관경지 등 아홉 명이 상무위원에 임명됐고, 본인은 주임비서가 됐다. 이때 만난 태허 대사는 훗날 조박초 회장에게 삶의 큰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1937년 '상해 8.13 항전'이 터진 후에는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을 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이때 일본불교도에게 일본의 군국주의를 반대하라는 글을 써 보내기도 했다. 1953년에는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겸 비서장이 됐다. 1980년 이후는 중국불교협회 회장과 중국불학원 원장을 줄곧 겸임하면서 중국종교화평위원회 주석도 맡았다.

조박초 회장은 오랜 세월 불교계에 몸담고 있는 동안 불교인재 양성에 가장 역점을 두고 불교기초지식 등에 관한 입문서 등 많은 불교서적을 저술했다. 1950년 창간된 중국근대 불교학술지 〈현대불학〉에 수많은 논문을 기고했고, 대표적인 저서 〈불교지식문답(佛教知識問答)〉은 문답형식을 빌려 불교교리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한 명저이다. 한국에서도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이 번역했다. 그와 함께 중국불학원을 통해 젊은 승려들이 전문적으로 불교를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현대 중국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했다.

다방면에 재능 뛰어난 불교학자
동국대에서 명예철학박사 수여
한중일 불교교류에 초석마련
중국의 종교자유 위해 평생 노력

조 회장은 또 한중일 3국의 불교교류 확대에도 힘을 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발족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1998년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대회를 연 이후, 매년 3국이 돌아가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단지 중국에 머무르지 않고, 한중일 불교교류를 위해 '3국 황금유대정신'을 주창해 세 나라의 불교유대를 공고히 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

조박초 회장이 93세의 나이로 별세했을 때, 중국불교협회 공식전언에 따르면 마지막 임종직전까지도 "본인은 불제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며 "추도식을 일체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몸을 인체 해부 연구용으로 병원에 기증해 수많은 중국불자들을 감동케 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후 사실상 금지됐던 불교신앙생활을 다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조 회장은 중국 불자들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온 세상 혼탁하나 나홀로 깨었어라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⑥ 제자들의 격외법담

경허 스님의 법을 신봉한 직지사 제산(霽山) 스님은 청정한 지계행과 높은 덕행을 겸비해 제방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제산 스님은 경허 스님이 합천 해인사 조실로 있을 때 시봉을 도맡다 시피했다.

당시 400~500명의 대중이 상주하는 대사찰에서 경허 스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경허 스님을 위해 대중 모르게 곡차를 마련하고 안주감이 될 만한 것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제산 스님 남몰래 안주 올리고
남전 스님은 그 소식에 한소식
만공 스님 몸바쳐 스승공양 다짐
격외도리에 '법따르기' 이어져

제산 스님은 입소문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깊은 밤이면 몰래 절 밖으로 나가 안주를 만들어 경허 스님에게 올렸다. 꼬리가 길면 잡히게 마련, 제산 스님의 행각은 대중 사이에 알려지고 말았다.

산중은 변고가 난 것처럼 야단이었다. 납자 몇 몇이 모이기만 하면 모두들 경허 스님과 제산 스님을 성토하기 바빴다.

당시 주지 남전 스님이 이 소문을 듣고 제산 스님을 찾아 소문의 진위를 물었다.

제산 스님은 태연히 "제가 경허 스님을 위해 한 일입니다"라고 답했다.

남전 스님으로서는 제산 스님을 만나기 전 낭설이겠거니 하며 물었는데 제산 스님의 당당한 소리에 어이가 없었다. 남전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밖으로 나갔다.

남전 스님은 믿기지 않았다. 평소 법력이 높아 추앙받는 선지식 경허 스님, 또 학덕과 율행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진 제산 스님이 아닌가.

남전 스님은 며칠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스님의 고민은 경허 스님의 법력에 대한 의구심에까지 이르렀다.

남전 스님은 경허 스님의 법문을 찬찬히 들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감명이 우러나는 것이 아닌가. 남전 스님은 곧바로 선방에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용맹정진을 시작했다.

신심이 발한 남전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남전 스님이 하루는 대중공양을 하는데 발우를 펴며 제산 스님에게 "스님, 이 발우가 안보입니다"하는 격외 법담을 걸었다. 스님의 높은 경지에 모든 좌중은 크게 놀랐다.

그 후 남전 스님 역시 제산 스님 이상으로 경허 스님을 신봉하게 돼 경허 스님에 대한 소문들을 진정시키는데 앞장섰다.

해인사에서는 어느 날 만공 · 제산 · 남전 스님이 함께 자리해 경허 스님의 법따르기를 견주는 기회가 있었다.

제산 스님은 "누가 뭐라해도 경허 스님께 계속 곡차와 닭고기를 바치리다"하자 남전 스님이 말을 받아 "경허 스님과 같은 어른을 위해서라면 닭이 아니라 소도 잡아 올리기를 조금도 거리낄게 없소"라고 대꾸했다.

이에 만공 스님은 "나는 전쟁이 나 깊은 산중에 모시고 살다가 양식이 떨어져 공양 올릴 것이 없게 된다면 나의 살점을 오려서라도 스님의 생명을 유지케 해 스님이 중생제도 하시게끔 해 드릴 자신이 있소"라고 말했다.

⑦ 마정령의 목동들

경허 스님이 마정령이란 고개를 넘을 때의 일이다. 산에서 나뭇짐을 지고 내려오던 초동들이 스님을 보고 "저 중봐라, 이상하다"며 웃었다.

그때 스님의 행색은 머리는 깎았으되 수염은 길렀으며 맨발에 한손에는 담뱃대를 잡고, 다른 손에는 떡과 과자가 든 자루를 둘러메고 있었다.



그림 · 박구원

아이들의 웃음에 스님이 되물었다.

"아이들아, 나를 알겠느냐?"

아이들이 "저희들은 스님을 알지 못합니다"고 답하자 스님은 "그러면 나를 보느냐"고 물었다.

"예, 지금 스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놈들아 나를 알지 못한다하면서 나를 어찌 본다고 하느냐?"

스님은 차고 있던 주장자를 내어주며 이르길 "얘들아, 누구든지 이 막대기로 나를 한번 때려봐라, 만약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때리기만 한다면 수고한 대가로 이 자루에 든 과자와 돈을 다 주마"라고 말했다.

그 가운데 한 영리한 아이가 나와 "스님, 그게 정말입니까?"하며 스님이 내주는 주장자를 받아 쥐고 힘껏 후려쳤다.

"이 막대기로 나를 때려봐라
제대로 때리면 과자를 주마"
아이들은 주장자로 후려쳤으나
스님 "너희들은 나를 때리지 못했다"

하지만 스님은 계속 아이들을 보고 "때려봐라, 때려봐라"고 말했다.

스님은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때리지 못했느니라. 만약 때렸다면 부처도 때리고, 또 조사도 때리고, 또 세세 제불과 역대 조사 내지 천하 노화상을 한 방망이로 때려 갈길 것이니라"고 말했다.

이에 초동들은 "스님을 아무리 때려도 때리지 못했다고 하니 과자와 금전을 준다고 하는 것은 모두 거짓 아닙니까?"라며 항의했다.

스님은 껄껄 웃으며 "여기 있다. 그럼 가져가거라"하며 돈과 과자를 내주고 마정령을 넘어가며 노래를 한 곡조 읊었다.

온 세상 혼탁하나 나 홀로 깨었어라.
우거진 수풀 아래 남은 해를 보내리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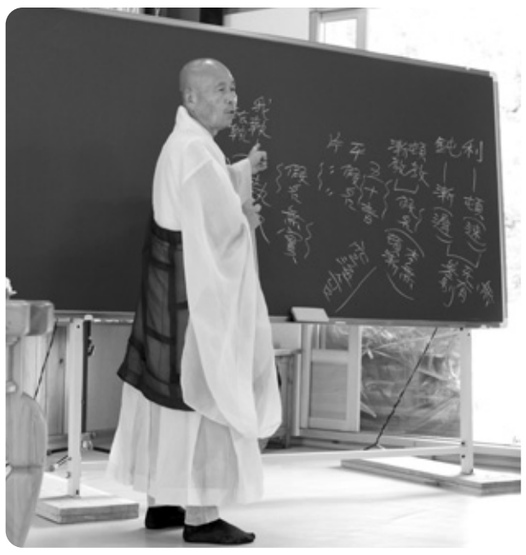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각성 큰스님
"금강경(金剛經)" 고운사 특강

금강경은 선종의 소의경전으로서 가장 많이 독송하고 있는 경전으로
금번 고운사에서는 각성 큰스님을 모시고 금강경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무루 참석하시어 금강경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사구게 한 귀절을 듣던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준다면 항하사 모래수 보다 많은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더 수승하다고 하니, 부처님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로 무한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2월 13일(월) ~ 2월 1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선 체험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
◐ 참가대중 : 사부대중 누구나
◐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이번 강의부터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영남 범음범패 전문 교육

전통사찰 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1)초급반 : 사물(요령,목탁,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쇳송,각단예불,의식
2)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 대령관욕, 천도재(49재), 각종의식
3)작법반 : 오공양작법, 다게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4)고급반 : 운심게, 삼귀의작법(초급,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2년 2월 7일 (화요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 (6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2장 (상시 모집)

* 본원은 종파를 초월한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승려후보생도 수강 할 수 있으며 승려수계득도, 포교원 지도편의도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 할 수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정사 강원
(사)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055)649-6711
팩스 055) 649-6712 HP : 011-874-6775

2012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4기 수강생 모집안내문

스님!!!
사주명리학을 배우십시오.

명리학은 점술류가 아니며 학문입니다. 사찰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께만 **무료**로 6개월간에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주명리학을 완전히 터득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0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6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5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장소 : 제1장소 : 성지관음회 법당(매주 화요일 오후1시~5시까지)
제2장소 : 부산강의실(경상도 지역 스님들을 위한 교육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1시30분~5시30분까지)
◎일시 및 기간 : **2012년 3월초 부터 6개월간**
◎수 강 료 : 6개월간 무료
◎신 청 :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 팩스768-8413

나의서원 나의 신행 〈2〉

이웃과 나눔은 결국 자기 돕는 저축

한국의 수달타장자 주영운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 이사장은 …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나 1962년 한일시멘트에 입사했다. 1985년 한일시멘트 전무이사로 퇴임 후, 평화통일 정책 자문위원, 개풍군 명예군수, 우덕재단 • 승가대학교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주 이사장은 승가원 이사를 비롯해 강남문화원 상임고문,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아산레미콘 주식회사 대표이사, 개풍시멘트주식회사 사장으로 활동하며 불교포교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주 이사장은 2003년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공덕비, 2005년 중앙승가대학교 동문화장 감사비(感謝碑), 2006년 승가원 감사비(感謝碑), 2009년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수훈한 바 있다.

사람들은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을 '한국의 수달타장자' 혹은 '현대의 수달타장자'라고 부른다. 부처님 당시 최초의 절인 기원정사를 세운 수달타장자는 어렵고 고독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급고독장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이다. 보시바라밀 행하기를 좋아하는 주영운이사장이 꼭 그러하다.

불교문화와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주영운 이사장을 서초동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만났다. 미수(米壽)를 넘긴 주영운이사장에게서 맑고도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평생을 잘 살아온 그런 분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이다.

1991년 2억 원의 출자금으로 공익법인 '행원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설립의 밑바탕에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그의 철학이 담겨있다.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은 지난 2월3일 8천5백만 원을 증자하여 기본자산 13억8천5백만원으로 성장했다. 20년이면 산과 물이 두 번이나 바뀌는 큰 이변이 일어나는 세월인데도 주영운이사장은 한결같이 행원문화재단의 증자와 성장에 힘써왔다.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교계 중・고등학생과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에게 지급한 장학금과 행원문화상을 통해 교계 학자와 문화 예술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6억 4000만원에 달하며,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480여 명에 이른다.

2011년 1월에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중앙승가대에 도서구입비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서관은 외형보다는 내실, 양서(良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주영운 이사장은 서둘러 도서구입비 5000만원을 기탁하여 불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인재양성에 대한 주영운이사장의 서원과 발원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게 큰돈을 보시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지 물었더니, 옅은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나누는 것은 결국 자기를 돕는 것이라 생각해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 저축하는 거와 같아요."라고 말했다. 오랜 세월 아낌없이 보시를 해 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다.

주영운이사장은 20년간 아산레미콘주식회사와 개풍시멘트를 이끌어 온 CEO이며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남도내에서 우수 중견기업으로 성공하게 된 비결을 물었더니 "정직과 신용"이라 했다. 주영운이사장은 "부정을 저지르면 자신보다 남이 먼저 알게 됩니다. 회사경영이든 사적인 일이든 정직하면 신용은 절로 따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라고 덧붙였다.

수십 년을 하루 같이, 새벽 세시 반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사모님과 함께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여섯시가 되면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생각한다. 저녁에도 여섯 시에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나서 집 주변공원을 산책한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 취침에 들어가는 것이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비결이며 매일 아침저녁으로 빠뜨리지 않고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비법이라 했다.

주영운이사장은 지금은 북한행정구역으로 개성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기도 개풍군 토성마을이 고향이다. 우리 정부는 개풍군을 미수복 경기도로 규정해 놓고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다. 주영운 이사장은 미수복경기도중앙도민회 부회장과 개풍군민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주영운이사장은 2009년 이북도민 유공자 포상식에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주영운이사장은 어디에서나 보시바라밀을 행하기에 절로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모든 실향민이 그렇겠지만 "죽기 전에 고향땅을 밟아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 했다.

주영운이사장은 어린 시절 하나를 가르치면 그 너머까지 알아버리는 영특한 아이였기에 주변사람들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상급학교로 진학하기가 힘들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일본인 담임선생님이 "내가 학비를 대어줄 테니 개성상업학교로 진학할 것"을 권했다. 어린 마음에 기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불명 '행원' 가르침 실천하자 서원
1991년 장학·문화재단 설립해
20년간 500여 명에 7억원 도움 줘
교계유일 역경·예술상에 매년 시선집중

"집안친척도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일본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안된다"고 거절하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요즈음의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곳에서 일본강의록으로 독학을 했다. 그 후에도 주영운이사장의 주경야독은 계속되었다.

너무나 거룩하게 느껴지는 행원(行願)이라는 불명은 관응 스님으로부터 받았다.

1972년 독산동 심원사에서 초파일에 보살계를 받게 되었다. 그때 관응 스님이 심원사에 법문하러 오셨다가 오계와 법명을 주었다. 그때 받은 불명이 행원이다. "원을 세우고 잘 실천을 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행원이라는 법명을 주셨다"면서 불명대로 살려고 평생을 노력해왔단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행원문화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불명대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원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했다. 주영운이사장은 먼저 한일시멘트 회장인 허채경씨로부터 많은 신세를 졌다고 회고했다.

"1946년 처음으로 인연을 맺어 대한통운에서 근무하다가, 한일시멘트 창업초기에 경리과장으로 입사하여 25년동안 재직했어요. 퇴직 후에는 회장님의 배려로 서전운수를 운영하는 등 40여 년을 그 그늘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다 되면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다가 농원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인에 4만평의 땅을 구입하여 밤나무를 심었어요."

밤 농장은 당시 고부가치 산업이었지만 전문성이 필요했기에, 병충해 방재를 위해 밤새워 책을 독파했다. 밤나무 밑에 물이 고여 죽어가는 밤나무를 살려내고, 가지치기서부터 자연비료까지 노동을 거듭해야 했다. 이러한 노동 덕분으로 일 년에 380가마씩 수확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밤나무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힘에 부치었고, 그래서 그 땅을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때 집사람과 상의해서 돈이 생기면 1억 정도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마련한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한 연유가 무엇일까?

"제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과 일가친척이 있었기 때문이며, 한일시멘트 사장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로부터 입은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내가 뭘 아나요? 그때 동네어른들이 운구해 주시고 해서 장례식을 무사히 잘 치룰 수 있었지요. 한국전쟁 때 한 겨울에 아내는 고향 개성을 떠나 한 살짜리 젖먹이를 등에 업고 피난길에 나섰어요. 추운 날씨에 아기는 밤에 동상이 걸리고 아내도 지쳐서 그야말로 생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지요. 그때 피난길에 처음만난 한 아주머니가 빈집을 찾아 아내를 눕혀놓고 쌀을 얻어다 밥을 해주었는데, 그 아주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꼭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도 그분들로부터 신세진 것을 갚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장학금을 내놓는 것"이라 했다. 춘원의 시 '육바라밀' 중 한 구절이 떠오른다.

'임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80~90년대에는 서울대나 연대, 고대 등 대학에 장학금으로 1, 2억 원을 내놓는 풍조가 있었다. 불자이니 이왕이면 불교 쪽으로 보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승가대 총장을 만났다. 학교에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모든 절차를 도와 줄테니, 재단을 만들라고 해서 1억보다 배나 많은 2억을 보시하여 재단을 만들었다. 1991년 승가대 개운사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재단을 출범시켰다.

그때 승가대 총장은 "2억원을 내놓으면 그 만큼 빈 것 같지요. 그런데 보시를 하게 되면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 채워질 겁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1990년에 설립한 아산레미콘주식회사는 행원문화재단을 설립한 그해 8억 원이라는 수익을 올렸다. 그 빈자리의 몇 배가 채워진 셈이다. 앞에서 "보시란 자신에게 저축한 거와 같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

빙의(귀신병)・신병・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퇴마・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2011년 9월 제20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에서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오른쪽)이 경북대 권오민 교수에게 역경상을 수여하고 있다. 주 이사장은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재단의 13억 8천5백만원의 기본자산을 15억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쯤에서 주영운이사장과 닮은 수달타장자의 일화를 소개해야 할 것 같다.

수달타장자는 거부(巨富)였지만 끊임없이 보시를 하다 보니 창고에 쌓여있던 재물들이 다 나가고 없었다. 부인으로부터 '내일 아침밥을 할 양식이 없다'는 말을 들은 수달타장자는 창고 문을 열어 봤다. 정말로 창고는 텅 비었고, 물레만 하나 남아있었다. 수달타는 시장에 가서 물레를 팔아 며칠 먹을 양식을 마련했다. 집에 막 들어서는데 가섭존자가 탁발하러 들어오고 좀 있다가는 아란제자가 들어왔다. 조금 후에는 부처님이 탁발을 오셨다. 수달타장자는 나머지 양식을 모두 부처님께 드렸다.

옆에 있던 부인이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내일 아침거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수달타야. 창고 문을 열어 보거라!"고 하셨다. 수달타가 창고 문을 열어 보니 거기에 본래대로 자기의 재물이 가득 차 있었다.

주영운이사장은 평생을 욕심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왔다면서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 불행해진다면 차라리 적은 것보다 못하다"고 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부에 대해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富)가 많아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요. 부자가 되는 기준은 보시라고 생각해요."

결코 말씀을 길게 하시지 않는 주영운이사장의 말씀은 화두처럼 오래도록 생각해 보아야 한다.

행원문화재단에서는 역경상, 예술상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다. '행원문화상'을 통해 불교계의 숨은 인재들이 세상에 알려졌고, 수상자들은 더욱 더 힘내어 자신의 분야에 정진하고 있다. 행원문화상 역대수상자들을 대충 열거하자면, 월운스님, 무비스님, 각성스님, 각묵스님, 송찬우, 박범훈, 강형진, 전재성, 성낙주, 김병조, 은정희, 이미령 등 참으로 많다. 그런데 특별히 역경상을 따로 만든 것이 궁금했다.

"나의 오늘은 많은 이의 도움 덕분"
가족들도 한마음으로 재단 증자 참여
고향땅 밟아보는 것 마지막 소원
"물흐르듯 순리대로 살며 최선다하자"

"1972년에 일본으로 여행을 갔어요. 호텔방의 서랍 속에 불교경전이 들어있어 한 번 읽어보았어요. 일본어와 영어 두 가지로 써진 경전인데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쓴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경전을 한글로 이렇게 쉽게 쓴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발원으로 역경상을 만들게 되었지요."

아직까지도 대웅전 등 건축불사에 치중하는 것이 불교의 현실인데, 일찍 인재불사에 관심을 가진 주영운이사장의 혜안이 돋보인다. 불교의 세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그의 생각은 강력하다. 행원문화재단을 설립하여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란다.

"장학재단을 신경 써서 운영하지 않으면 유야무야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증자가 안되면 발전이 없고 답보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재단자금을 증액해나가고 있어요. 요즈음은 금리가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재단수입의 70%는 목적사업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은행으로부터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그것을 잘 운영해나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원문화재단의 운영자금을 증자하는 것은 주영운이사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보시하고 특히 아산레미콘주식회사에서 6억 원이 넘는 돈을 내놓았다. 주영운이사장은 2012년 2월까지 행원문화재단의 기본자산을 15억 원까지 만들어놓을 계획이라 했다.

상(相)이 없는 무주상보시를 행하고 있는 주영운이사장은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은 참된 보시가 될 수 없어요.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잠시 빌려주는 것일 뿐 언젠가는 돌려받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했다.

주영운이사장의 인생철학이 궁금했다.

"이제까지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물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길 따라 흐르듯이 우리들도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면 되고 오늘 못 이루면 내일, 모레 이루면 되잖아요. 좀 늦게 이루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더 중요하지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 결과에 대해 조바심내거나 욕심내지 않는다'는 그 말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흐르는 물처럼 살아오신 주영운이사장의 얼굴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다. 마주한 행원거사의 얼굴엔 고요함과 평온함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다.



글=문윤정(본지 논설위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B257 강의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날마다 하는 강의이련만 오늘은 왜 이렇게 만감이 교차될까. 마지막 강의 시간이기 때문일까. 마지막이란 이렇게 아쉽고 설레이는 일인가 보다. 30년 전 첫 강의도 설레이긴 마찬가지였으나 오늘의 설레임과는 의미나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강의(2011년 12월 8일)입니다. 이번 학기 종강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단생활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경험으로 보면 학생들이 배운 것을 모두 잊지 않고 세상에 나가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 여러분에게 힘주어 강조하는 말은 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하라'이고 또 하나는 '질문하라'입니다.

자, 정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어느 거짓말쟁이가 지도를 거짓으로 그려 놓으면 어떠한 결과가 오겠습니까. 후세 사람들은 그 지도에 의지해 목적지를 찾아 가려고 하지만 그곳에 당도할리 만무합니다. 사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이렇게 혼돈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늘의 별이고 내 마음의 도덕율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진주를 깔아 놓은 듯한 하늘의 별은 우리에게 꿈을 키워주고 희망을 주고 인간을 선량하게 하는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도덕율은 양심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양심이 있으나 도깨비에게 홀리듯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는 것은 물질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 양심에 뿌옇게 성에가 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문(學問)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다. 이는 배우고 질문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질문하지 않는다면 배운 것이 옳은지 틀렸는지 검증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질문의 생활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 한다고 해서 그 일한 만큼 부귀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행복해지고 부유해지려면 열심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유 없는 행동은 피스톤 작용처럼 단순 동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나는 이 교정의 어느 나뭇가지에 새순이 제일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지도 알고 있고 어느 나무가 가을을 알리는 전령인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갈망하여 '독제타도!'를 외치다 간 선배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동우탑(東友塔)에도 4·19 의거일에 잊지 않고 찾아 분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는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끝맺음 했다. 복권을 구입해 당첨이 되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낙담하기도 한다. 그런데 당첨된 숫자에 기쁨이 담겨 있다거나 빗나간 숫자에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마지막 강의시간에 대한 의미부여는 내가 했을 뿐이다. 강의실이나 흑판이나 분필, 지우개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예전처럼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지 않았을까.

조(趙) 나라의 도읍지가 한단(邯鄲)이다. 노생(盧生)이란 가난한 선비는 어느 주막에서 여옹(呂翁)이란 도사를 만나 자기의 궁핍한 처지를 한탄했다. 그 때 여옹은 가지고 있던 보따리 속에서 베개 하나를 꺼내주면서 "이 베개를 베고 자면 뜻한 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리라"라고 말했다. 도사가 시키는 대로 베고 자니 절세의 미인을 만나 장가들고 과거에 급제해 무궁한 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 깨어나 보니 주막의 주인이 앉히던 메조 밥은 아직 끓지도 않았다. 쓴 입맛만 다시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노생에게 도사는 "세상일은 이와 같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유한한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유한한 인생 일장춘몽 같아 덧없어도
반드시 지닐 것은 '정직'과 '의문'

영원할 것 같은 것이 영원한 적이 없다. 어제의 세도가가 오늘은 얼굴을 떨구고 지상에 나타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이 노생의 꿈을 몸에 익혔더라면 저렇게 일그러진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아쉬운 연민도 갖게 된다. 노생의 꿈 보다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기회주의가 머리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누구나 찰나를 살다 가는 초로인생의 여정에 잠간 그 자리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인 것을.

현명한 어머니를 구모(歐母)라고 한다. 송나라 구양수(歐陽修)의 어머니는 집이 몹시 가난하여 싸릿대로 땅에 글을 써서 아들을 가르쳤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요즘 학부모들은 자식을 온갖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사연이야 구구절절하다. 학원도 중요한 몫을 하지만 원론적으로 사려 깊은 자녀로 키우려면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회상한다. 그 마지막 시간에 숙연한 모습으로 초롱초롱한 눈으로 귀 기울여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푸른 창공에 흰구름 마냥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안녕하라'는 목례로 답하던 그 모습을. 그들은 아마 희망이란 작은 불씨를 키워갈 것이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현대불교의 기틀 마련한 청담 스님의 주석처

조계종과 도선사(道詵寺)

조계종의 밑그림 그린 청담 스님
포교 · 교육 · 불교사회화에 역점
1962년 대장경 국역 정부에 건의
조선 정의공주 · 육영수 여사 원찰



한국불교와 사회의 관계를 제대로 읽어냈던 선지식 청담 스님



도선국사가 개산한 삼각산 도선사 전경. 주지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하는 108산사 순례단의 신행이 눈길을 끌고있다.

삼각산과 도봉산이 만나 고개를 이루는 곳이 우이령(牛耳嶺)이다. 이름에 걸맞게 그곳엔 소의 귀를 닮은 우이암이 있다. 그래서 동네 이름도 우이동이다. 이곳에서 삼각산 백운대로 오르다보면 도선사가 나온다. 사찰 홈페이지를 보면 신라 말 고승 도선국사를 개산조로 하고 있다. 처음부터 도선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조 기록에 의하면 도선사의 명칭은 도성암(道成庵)이었다.

우이동에서 동쪽으로 산길을 따라 방학동으로 가다 연산군 묘를 지나면 세종의 둘째 딸 정의공주(貞懿公主)와 남편 죽산 안씨 양효공 안맹담(安孟聃)의 묘가 나온다. 도성암은 정의공주의 원찰이었다. 정의공주는 1428년 그와 결혼하였다. 이 무렵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변음과 토를 붙이는 문제가 난제였다. 세종은 여러 자식들에게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모두 어려워서 힘들어 할 때 총명했던 공주가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세종이 매우 기뻐하며 노비 수백 명을 상으로 하사하였다. 왕실과 혼인하여 가문의 명예가 높아졌는데 아내의 지혜로 큰 재물을 얻은 안맹담은 죽산안씨 대동보에 이를 기록하여 후손에 남겼다.

정의공주의 원찰이었던 도성암은 조선 중기에 다소 어려운 과정을 겪은 것 같다. 선조 29년(1596) 3월 3일 병조 판서 이덕형이 중흥동 산성을 둘러보고 주위의 형세를 그림을 그려 올릴 때 東門으로 통하여 왕래하는 길로 성 밖에 수도암, 도성암 등의 암자가 있고 그 밑은 곧 우이동이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숙종 6년(1680) 7월 한성부에서 도성암 옛터를 한성부에 예속시켜 벌목을 금지하도록 건의하자 이를 윤허한 것을 보면 그 이전부터 사세가 어려워져 이 무렵 폐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또한 30여 년이 지난 숙종 39년(1713) 7월 사찰이 중건 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시 사세가 중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중창되면서 사명을 도선사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왕실과 인연이 깊은 도성암이었지만 전해지는 옛 기록이 없어 수많은 고승들의 활약을 알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나마 위안되는 것이 있다. 이곳은 현대불교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청담이 이곳에 머물면서 조계종의 큰 흐름을 정립하였기 때문이다. 종단의 중요한 소임을 맡은 60년대 이후 70년대 초 한국불교의 기본방향이 그에 의해 세워졌다. 당시 그는 사회와 불교의 관계를 제대로 읽어내는 몇 안 되는 수행자였다.

청담의 생애(1902-1971)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은 일제강점기와 격변의 현대사회를 살았다. 그 생애를 크게 나누어보면 일제강점기에서 보낸 생애 전반부와 광복이후 현대사회를 보낸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다.

생애 전반부인 일제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청담은 그 현실 속에서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출가한 청담은 일제의 지배로 한국불교의 전통이 상실되는 것을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일제의 방해와 기득권을 장악한 집단의 방해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시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염원이 담고 있었다.

생애 후반부인 1945년 광복이후 청담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고심하였다. 그는 일제의 강점에 의해 변질된 한국불교의 전통을 회복하려 하였다. 그리고 종단의 지도자로 새로운 산업사회 속으로 진입한 한국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그 가운데 승가교육은 종단의 장래를 위해 심혈을 기우린 불사였다. 불교계 인재 육성을 위해 불교전문학교를 세우는 일을 서원으로 세울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도제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승가대학의 설치였다. 그것은 현행 강원과 선원의 제도와 동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재의 교육체제를 개조하여 성불할 수 있는 수행자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스승을 배출할 수 있는 승가학원으로의 개조였다. 그가 도제교육을 현대화하려는 것은 젊은 대학 출신의 엘리트를 승려로 만들어 그들이 종교인으로서 지도이념에 충실하고 철저한 수행관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청담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불경 번역이다. 그런 생각은 일제하에서 불경 번역에 크게 기여한 용성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1962년 1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내는 공개 건의문에서 세 가지를 당부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팔만대장경의 국역이었다. 팔만대장경을 국역하여야 하는 이유는 남녀노소가 한번 읽음으로써 불법의 교리를 신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일들이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량을 高揚시키는 일로 여겼다.

청담의 활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미래의 한국불교에 대해 고민한 수행자였다는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 한국불교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집약된 것이 바로 불교의 대중화와 인류를 위한 역할 증대이다.

그는 한국불교가 인류를 위해 헌신할 것을 제안한 지도자였다. 한국불교가 우리의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를 염원하였다. 그렇게 되기 위해 체제 변화는 물론 신앙관의 전환을 통해 내재적 역량이 성숙되기를 염원하였고, 그 바탕 위에 인류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청담의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면 70년대 후반에서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필요하다고 주장된 이야기와 일치한다. 이런 면에서 그는 현대불교의 공과는 둘째 치고 분명 앞선 수행자였다.

도선사와 인연이 깊은 사람은 이야기 할 때 육영수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금도 연세 지극한 분들은 그녀에 대해 자태가 고왔던 영부인으로 기억한다. 그녀가 도선사와 인연이 맺은 것은 5 · 16이후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있을 때 청담의 호국참회불교에 감화를 받은 후 1974년 8 · 15기념식장에서 유명을 달리하기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선사를 찾았다.

호국참회불교는 신라불교의 통일염원, 고려불교의 호국염원, 조선불교의 구국염원, 그리고 현대불교의 평화염원에 입각하여 미신불교가 아닌 수행불교 이론불교가 아닌 실천불교 관념불교가 아닌 생활불교로 불교재흥을 도모한 사상이다.

당시 외적으로 남북의 팽팽한 대치 속에 내적으로 부패한 정부, 혼란한 사회질서, 극심한 가난에 직면한 지도자로서 새로운 시대적 비전을 제시한 청담의 사상은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었다.

불심이 있던 육영수는 대덕화(大德華)란 불명을 받았다. 그녀는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선사를 찾아 3 · 7기도를 하는 등 불심으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 불자였다. 지금 우이동에서 도선사 입구까지 험준한 산비탈임에도 불구하고 말끔하게 닦여져 있는 것도 불심 깊은 그녀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도선사의 불사 가운데 현대불교 포교의 모델이 된 것이 있다. 바로 108산사순례이다. 이 순례는 사찰참배의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 불사이다. 지금까지의 산사순례 대부분이 자신의 복을 비는 참배였다면 108산사순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순례이기 때문이다. 참가하는 신도수도 많을뿐더러 이들이 그곳에서 펼치는 새로운 포교의 모습은 신선하다. 순례단은 참배를 마치면 사찰 앞에 직거래 장터를 열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농촌에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난해부터는 농촌중심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과 인연 맺기를 추진해 조국을 떠나온 외국여성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었다. 점점 지방의 인구가 줄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사찰을 위한 뜻 깊은 불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본받아 인천의 사찰에서도 108산사 순례단이 발족하였다. 마음 같아선 대도시 많은 사찰들이 순례단을 조직해 도시와 지방의 원활한 가교역할을 했으면 한다.

이런 도선사의 모습을 보면 오래 세월 쌓아온 사찰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뛰어난 역량이 있는 선지식이 있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음을 느끼게 한다. 삼각산 정기를 받은 도선사에서 또 다른 선지식이 출현하여 한국불교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를 기대한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2년 3월 8일(목)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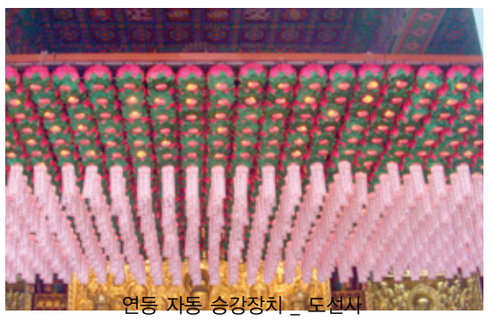
찬덕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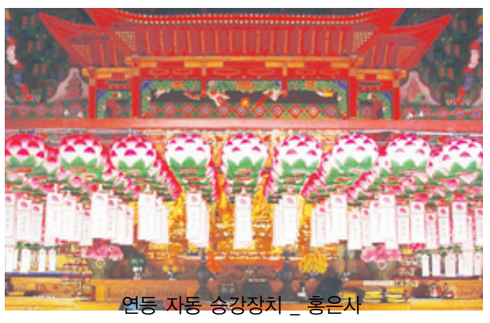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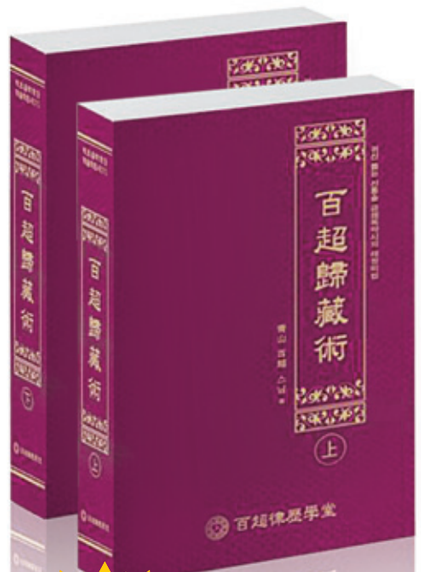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41)943-6882, 010-3813-4443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중생의 업이 눈앞에 펼쳐지다

내금강 면경대도 (內金剛 面鏡臺圖)


소정 변관식의 '내금강 면경대 춘의'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금강산은 그 명칭이 아홉 가지는 넘는다. 봄에 부르는 이름인 금강산(金剛山), 푸른 녹음(綠陰)이 짙어 신선이 사는 산과 같다해 부르는 봉래산(蓬萊山), 붉고 노란 단풍이 들어 가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풍악산(楓嶽山), 겨울이 되어 바위와 돌이 골격을 드러낸다는 개골산(皆骨山)등이 대표적인 이름들이다.

조선 선조 당시 성주목사(星州牧使)를 역임했던 경암(敬菴) 노경임(盧景任)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의하면, 금강산은 열반산(涅槃山), 지달산, 중향산(衆香山) 등으로도 불려, 단연 불교적인 이름들이 으뜸이다.

금강산 계곡마다 108개의 사찰과 암자들이 성황을 이뤘다고 전한다. 금강산 이름조차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첫 두자를 따온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실로 금강산은 곳곳마다 불교의 성지가 아닌 곳이 없다.

108도량 있어 곳곳마다 불교성지
소동파 '금강산 보고 싶다' 며 칭송
1000개 봉우리 중 명경대는
김홍도가 내금강서 제일 먼저 그려

북송대의 시인으로 당송(唐宋)을 통틀어 최고의 문사(文士)인 동파(東坡) 소식(蘇軾)은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 번 보고 싶다(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고 했으니, 이는 허세와 교만이 강한 중국인들조차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이 산은 천 개의 봉우리가 눈처럼 서서 높고 절묘함이 으뜸이며, 또한 불서(佛書)에 담무갈보살(曇無竭菩薩)이 거하던 곳이란 이야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인간정토(人間淨土)라 이른다"고 전한다.

담무갈보살은 법을 일으키는 보살로 법기보살(法起菩薩)이라고도 부른다. 〈금강경〉을 설하며, 1만2000명의 권속과 함께 지내고, 그가 머무는 곳이 바다에 떠 있다하여 금강산을 지달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원효 스님의 〈화엄경소(華嚴經疏)〉에 의하면, 법기보살의 주처를 중향성(衆香城)이라고 부르기에 중향산이라 하며, 법기보살의 덕화가 워낙 커서 스님들이 금강산에 살기만해도 수행을 하지 않아도 깨칠 수 있기에 열반산이라 한다.

내금강 명경대도 세 가지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앞뒤가 똑같이 반듯하고 판판하다고 해서 면경대(面鏡臺)라 하기도 하고, 선악을 밝혀 분명히 한다고 하여, 명경대(明鏡臺)라 하기도 하고, 지옥의 염라대왕이 지니고 있으면서 죄인들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업경대(業鏡臺)라고도 한다. 〈지장보살심인연시왕경(地藏菩薩心因緣十王經)〉에는 "사방팔방마다 업경을 달아두어 일체 중생의 업이 마치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저승사자가 안창이라는 곳의 이름난 부자를 불러 죄를 물었다. 그 부자는 자신이 평생 좋은 일만 했다고 했으나 업경에 비춰 보니, 거지나 가난한 이들을 매로 때리고, 키우는 짐승들을 농번기 때에는 일시키고, 농한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굶어 죽이는 악행을 일삼는 자였다.

그에게 중벌을 내린 염라대왕은 어찌하면,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 업경대를 세우고, 장안사 남쪽에 냇물을 만들고 이승서 저승으로 가는 곳이라 하여 황천강이라 하였고, 그 냇물 위에 앞뒤가 모양이 같은 거울(면경)모양의 큰바위를 세웠으니 그 바위가 명경대라는 이야기이다.

특히, 금강산 명경대 앞에는 염라대왕봉과 소머리를 한 옥졸을 상징하는 우두봉, 죄인봉, 판관봉 등이 줄줄이 늘어서 그 곳에 가면 누구나 마음이 엄숙해진다고 한다. 때문에 명경대를 다녀오면 황천길이 밝아져 극락에 간다고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경대 관광을 즐겼다고 전한다.

단원 김홍도가 내금강에서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이 명경대이다. 심사정과 겸재 정선도 명경대를 그렸다고 전하나, 소정 변관식이 명경대 그림은 실로 생동감이 있다. 이 그림을 보는 이마다 금생이 지나면, 극락왕생하시길 빈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오카리나로 표현한 전생 · 현생 · 내세

인터뷰

유승엽 대중음악가
오카리나 명상음반 '다시만나요' 발표


오카리나 연주자 유승엽씨는 오카리나는 인류가 다듬어가야할 마지막 악기라는 생각에서 20년 넘게 오카리나 연주를 해오고 있다.

1980년대 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라는 불음가요로 인기를 모았던 불교음악가 유승엽씨가 오카리나 명상음반 '다시만나요'를 발표했다.

'다시만나요'는 기타와 오카리나 두 악기만으로 전생 · 현생 · 내세의 3부를 음악으로 표현한 판타지한 느낌이 충만한 앨범이다.

오랜 세월 흙으로 오카리나를 고집스럽게 만들고 연주해온 유승엽 씨는 오카리나만이 갖는 독특한 영적소리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탈리아어로 '작은 거위'를 뜻하는 오카리나(Ocarina)는 누구나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도자기 악기다. 음색이 우아하고 맑고 깊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널리 애용되고 있다.

유승엽 연주가는 1975년 〈슬픈 노래는 싫어요〉를 작사 · 작곡해 가수로 데뷔했으며 1980년까지 이은하의 〈밤차〉 〈겨울장미〉, 윤승희의 〈제비처럼〉,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 심수봉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손현주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등을 작사 작곡한 대중음악가였다. 그러다 1980년대 초 스님들의 시를 모아 작곡 의뢰 요청이 들어오면서 김연숙이 부른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를 작곡해 불음가요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이후 마당세실극장 극장장을 맡게 된 유승엽 연주가는 김상렬 작가와 함께 만해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님의 침묵'을 작곡해 1985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유승엽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87년 '우리말 옮김 반야심경', '불음' 등 다수의 음반을 출반하면서 왕성한 불교음악활동을 펼쳤다.

그러다 1992년 캐나다로 이민한 유 씨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는다. 바로 오카리나를 알게 된 것.

"캐나다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오카리나 소리에 반했습니다. 오카리나야말로 인류가 다듬어 가야 할 마지막 악기라고 생각하고 제 영혼을 의탁한지 벌써 20년이 돼갑니다. 그야말로 나무 한 그루 건드리지 않고 흙 한 줌으로 신비한 소리를 내는 이 악기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오카리나 음색에 흠뻑 빠진 유 씨는 1997년 국내 최초의 오카리나 음반인 '혜초'를 발매했다. 유승엽 씨는 혜초 스님 당시의 원시적인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오카리나를 연주했다. 이후 유 씨는 1999년 2월 문화관광부 지정 '혜초의 달'을 맞아 현대불교신문과 진각종이 함께 국립극장에서 개최한 국악교성곡 '혜초'의 공연을 기획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한국오카리나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오카리나의 대중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유승엽 연주가는 이번 앨범 '다시만나요'에 대해 "'과연 전생이 있고 내세가 있을까? 만약 있다면…' 이라는 화두로 시작해 이 음반을 기획했다.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을 담담하게 오카리나 선율에 표현하고자 했다"며 "많은 명상 음악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만이 갖는 독특하고 고유한 음률들을 모아 서양음악의 코드와 접목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목인박물관 '용용 죽겠지' 展

韓·中 등 나라별 용 목조각 전시


용은 예부터 희망의 근원으로 삼아왔다.

국내 · 외 전통목조각상을 전문으로 전시하는 목인박물관(관장 김의광)이 임진년 새해를 맞아 3월 4일까지 '용용 죽겠지' 특별전을 개최한다. 목인박물관은 '명랑한 용 목인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다채로운 용 관련 유물들을 전시한다.

용은 상상 속의 동물로 여러 동물의 장점을 모아 만들어진 상서로운 동물이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용의 모습을 민족의 포부이자 희망을 근원으로 삼아왔다. 또 왕권의 상징과 등용의 의미로 보기도 하고, 출세와 성공의 상징으로 삼기도 했다

전시는 한국 · 중국 등 각 나라별 용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무신도 · 민화 등에 등장하는 용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용이 새겨진 목판화를 직접 찍어보고, 용에게 소원을 적어 달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목조각상을 통해 용의 다양한 표정과 모습,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고,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갔던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02)722-5066

이은정 기자

민속박물관대학 개강

한국사·종교·예술 등 강좌 진행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과 국립민속박물관회(회장 김의정)는 전통민속문화를 쉽게 알리기 위해 3월 5일 민속박물관대학을 개강한다.

강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청 돼, 우리의 민속 및 한국사,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이 병행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이번 강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문화전반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동시에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은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12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되며, 수강료는 30만원이다. (02)3704-3114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055)364-4849 ☎ 010-2840-820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사서실장 : 박연화연)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부회 장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원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부 원 장 석청공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보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법상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재무부장 석종률
문화부장 석법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범패, 육효, 학인모집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함.
문의 전화 : 055)364-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만난 화려한 재즈에 빠지다

재즈 싱어송라이터 웅산
2월 15일 예술의전당서 공연

50인조 오케스트라와 협연
클래식 탱고 등 장르 넘나드는 공연


웅산은 그녀의 현란한 스캣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중심으로 그만의 색깔을 편곡해 선보일 예정이다.

불자 재즈 싱어송라이터 웅산이 50인조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선보인다.

최근 6집 앨범 'Tomorrow'와 2집 기프트 앨범 'Once I Loved'를 동시 발매한 웅산은 2월 15일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12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웅산의 러브스토리'를 통해 그녀만의 웅장한 스타일과 그루브가 느껴지는 재즈를 선사할 계획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쿨블루스재즈 장르를 개척한 웅산은 이번 공연에서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한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50인조 오케스트라가 협연해 웅장한 스케일과 화려함을 더할 예정이다. 다양한 게스트가 참여해 공연의 흥을 돋운다. 아코디언 연주가 라벤타나의 정태호, 색소폰연주가 장효석이 게스트 연주가로 참여하며, 소울의 대부로 알려진 바비 킴이 게스트 보컬로 참여해 웅산과 'Baby come to me'를 함께 열창하며 무대를 장식하게 된다.

웅산은 이번 재즈 콘서트를 6집 정규앨범에 수록한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등 그녀의 현란한 스캣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중심으로 그만의 색깔로 편곡해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스탠다드 재즈뿐만 아니라 아코디언 연주가 정태호가 탱고음악과 클래식이 만나는 고급스럽고 로맨틱한 선율의 음악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오앤미디어는 "클래식과 칸쵸네 라틴, 탱고 팝과 펑크 블루스와 재즈를 오가는 그야말로 모든 장르를 망라한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의 숨겨진 진면모를 모두 보여줄 최고의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웅산은 수려한 외모와 중저음의 농염한 보이스로 객석을 압도하는 보컬리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재즈보컬리스트뿐만 아니라, 싱어송라이터, 뮤지컬 배우, 음악 프로그램 방송 진행 MC로 전방위적으로 종횡무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73년 부산에서 태어난 웅산은 고교시절 출가수행을 했다. 지금 쓰고 있는 그의 예명은 행자시절 당시 그의 법명이다. 환속한 이후 그는 상지대에 진학, 보컬로 음악을 시작했다. 1996년 재즈보컬리스트로 데뷔해 98년부터 일본 활동을 시작했다. 2000년 한·미·일 재즈페스티벌 참가를 시작으로 국제 무대에 올랐고, 2004년 앨범 1집(러브 레터)은 한일 동시발매로 내놓고 5집(Close your Eyes)을 발매했다. 2008년 한국대중음악시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음반상 및 노래상을 동시 수상했고, 2010년에 일본에서 〈스윙저널〉의 골드디스크상을 수상했다. 중부대학과 단국대 음악과 보컬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 포스트모던과 보컬교수로 있다.

웅산은 2009년 12월 5집 앨범 'Close your Eyes'로 한국인 최초로 일본 스윙저널 골드디스크를 수상, 2010년은 일본에서 발매된 2집 'Once I Loved'를 통해 일본 재즈 비평 '제5회 재즈오디오디스크대상' 보컬 부문 금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동시 발매한 6집 'Tomorrow' 역시 웅산의 자작곡을 통해 팬들과 평단 사이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웅산은 최근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의 제5차 여성불자 108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연문의 1588-443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허정법종 선사의 '설암화상을 추모하며 차운함(追次雪嵓和尙韻)'

다 날라가 버렸네

我師師道徹玄微	(아사사도철현미)	우리스님 사법이 현묘함을 다하여
得座披衣衆所歸	(득좌피의중소귀)	자리 얻어 옷 걸치니 대중 귀의하네.
講榻凄凉花藉藉	(강탑처량화자자)	강하던 경상 쓸쓸한데 꽃은 어지럽고
禪窓虛靜月依依	(선창허정월의의)	선하던 창가 고요한데 달은 희미하다.
千嵓山色看如怨	(천암산색간여원)	전 바위산색 한스러워하는 듯 보이고
萬壑溪聲聽似悲	(만학계성청사비)	온 골짝물소리 슬퍼하는 듯 들리네.
惆悵溟翎高擧後	(추창명령고거후)	슬프다. 드넓은 날개 높이 든 뒤
人龍僧鳳盡潛飛	(인룡승봉진잠비)	인용과 승봉 다 몰래 날아가 버렸네.

조선 허정법종(虛靜法宗; 1670~1733) 스님은 12세에 출가, 도안 스님에게서 모든 장경을 섭렵하고 도안 스님의 수제자였던 설암 스님에게 현지를 듣고 인가받았다. 스님은 "굳은돌처럼 뜻을 지키고 맑은 얼음처럼 정신을 모아 비고 고요함을 잘 지켜 물이 맑아지듯 하리"라고 자신의 호인 '허정(虛靜)'처럼 살기를 희망했다.

스님의 시집 곳곳에는 설암 스님을 추도하거나 차운한 시가 실려 있어 무시로 스님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구에서는 도안 스님에게서 전수받은 스승의 도가 현묘하고 미묘하여 모든 대중이 그 법에 귀의했다고 소개했다. 스승의 부재(不在)로 인해 달빛도 밝음을 잃고 흐드러진 꽃도 무상하다. 보고 들리는 산색과 계곡물 소리조차 슬프게만 보이는 스님의 심경은 슬픔과 그리움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음이다. 크나큰 법을 베풀며 언제까지나 제자 곁에 머물리라는 기대감을 저버리고 홀연히 떠난 황망함을 '잠비(潛飛)'로 은근히 나타내었다. 스승에 대하여 세간과 출세간을 통틀어 용이요, 봉새였다고 확신하는 큰 믿음과 존경심을 가진 제자는 이미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함련에 허정(虛靜)이라는 시어가 가져다주는 효과이기도 하다.

승속을 막론하고 때로 참스승을 잃어버린, 청안(靑眼) 제자를 상실한 시대라고 개탄하고 있는 현실에, 특히 교학의 큰 종장이신 비구·비구니 원로스님들께서 원적(圓寂)하시는 슬픔을 감당해 내야 하는 요즘에 있어서 스승됨과 제자 됨의 도리를 돌아보고 일깨우는 시가 아닌가 한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조계종 교수아사리)

조계종 문화부, 불교문화행사 보조금 지원

신작찬불가 노랫말도 공모…조계종 홈페이지 참조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는 종단 소속 사찰과 불교문화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공모를 시행한다.

공모대상은 2012년 4~12월 진행하는 불교문화행사 가운데 ▷불교문화행사로 자부담 50% 이상의 사업 ▷산사에서 진행하는 사찰문화행사 ▷젊은층(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문화행사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연계된 행사 ▷다문화 행사 또는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 ▷이웃종교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에 한한다.

2월 15일까지 총무원 문화부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 공문과 함께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신청서 1부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문화부는 찬불가 창작·보급을 위한 2012 신작찬불가 노랫말을 공모한다.

노랫말의 주제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하며 경전을 근거로 핵심구절을 쉽게 풀어서 표현해야 한다. 또한 노랫말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한문이 없는 쉬운말로 표현돼야하며 직접적인 불교용어(보살님, 부처님 등)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불교사상과 가르침을 표현해야 한다.

마감은 2월 24일까지이며 이메일(yungchang@buddhism.or.kr)·우편·팩스(02-722-3606)로 접수 가능하다. 노랫말이 채택된 자에게는 작사비용 20만원이 주어진다. (02)2011-1770

이나은 기자


임현자 씨 작품

단국대 도예연구소, 차 도구展

인사동 공예갤러리서 2월 14일까지

현대 생활 속에서 차(茶)의 확산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차도구들이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국대 부설 도예연구소(소장 박종훈)는 2월 8~14일 인사동 공예갤러리 나눔에서 다양한 차 도구를 선보이는 전시회를 연다.

2004년부터 찻그릇과 차 도구 제작에 관심을 가져온 단국대 부설 도예연구소는 찻그릇으로서 사발 다관 찻잔 등 차도구의 기능과 미적인 추구를 위해 꾸준한 관심과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여 회원들이 출품한 다양한 차도구들이 선보인다. 8일 2시 단국대 미술관 321호에서는 차도구 제작에 관한 학술세미나 진행도 개최한다.

박종훈 소장은 "단국대 도예연구소는 전통도자기와 현대도자기 전반에 관한 학문적 이론정립과 실질적인 표현방법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도자예술을 발전시키고 도자문화 및 연구활동을 진작하고 우리 도자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 부설 도예연구소는 2012년도 1학기 도예전문교육과정생을 모집한다. 도자에 대한 기초이론 및 물레형성 등 종합적인 도자교육을 비롯해 차 도구를 제작하는 연구과정과 도자 명인과정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돼있다.

접수기간은 2월 24일까지이며 개강일은 3월 5일 부터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dankookcec.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예갤러리 나눔 (02)723-5324

이나은 기자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콧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미얀마
▣ 3월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 1,290,000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 특급(세도나 또는 동급)호텔, 업그레이드 식사, 비자 포함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 인 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재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부처님과 함께해 심장이 고동치다”

불교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불자 108인 수행담 엮어



불교와 나의 삶
불교여성개발원 엮음
해조음 펴냄
8000원

“평생을 하루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히 살다가 손에 가진 모든 것을 하나, 둘 내려놓고, 언젠가는 떠나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 자신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돼 행복합니다.”(본문 122쪽)

분주하고 반복되는 일상. 사람들은 이런 삶의 연속에 점점 지쳐만 간다. 누구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꿈꾸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바람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각박한 삶 속에서도 가정과 사회에 자비를 베풀며, 자신들의 인연을 소중히 가꿔 스스로의 삶을 성숙시키는 이들이 있다. 여성불자 108인이다. 최근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제4차 여성불자 108인 중 42인의 수행담을 담은 〈불교와 나의 삶〉을 발간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09년 경제 교육연구 보건의료 언론출판 정치 교계단체 자원봉사 포교신행 문화예술 등 11개 분야에 종사하는 대표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해 제4차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했다.

책에는 불교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 불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불교와의 인연을 비롯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불교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지, 불교를 통해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 각자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제4차 여성불자 108인으로 선정된 이주현 해조음 출판사 대표는 책에서 “일체 현상이 나와 하나 되는 순간 ‘이와 같이 들었다’의 거대한 외침이 내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케 했다. 삼천년 전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나에게도 ‘이와 같이 들었다’는 나도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다. 부처의 존재감이 살갗을 파고들며 위대한 초월자의 마음과 밀착하는 순간 ‘이와 같이 들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무너짐과 열림이 동시에 전개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체감이 눈물을 쏟게 하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하면서 따뜻한 감성으로 자비사상과 자신들의 수행을 실천하는 이들의 모습은 또 다른 여성 불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특히 자신이 속한 사회적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법을 전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한 여성 불자들의 모습은 읽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선사한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애주 원장은 “여성불자 108인들은 책을 통해 다원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불교의 중흥과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불교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어가는 빛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책은 단순히 이들의 거창한 업적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다양한 위치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돋보인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누구나 놀이처럼 즐기는 명상

수잔 카이저 그린랜드의 명상법



미국 UCLA 명상수업
수잔 카이저 그린랜드 지음
이종복 옮김
웅진뜰 펴냄
1만5000원

아이가 갑자기 울고 떼를 쓴다거나 괴팍한 행동을 보일 때,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똑같이 화를 내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책의 저자인 명상 지도자 수잔 카이저 그린랜드는 아이들에게 스노우 볼을 보여주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도록 가르친다.

저자는 남편 · 아이들과 함께 명상 지도자 잭 콘필드와 조지프 골드스틴이 안내하는 불교명상법을 터득한 후, 명상이 아이들에게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 후 저자는 미국 ABC방송의 잘나가던 변호사 자리를 관두고, 명상 교사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책은 저자가 UCLA대학과 공동개발한 이너키즈 명상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주의집중법을 알려주고 있다. 놀이, 노래, 그림, 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의집중법을 키워나가고, 그 속에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식이다. 4~17세까지 누구나 놀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명상법은 아이들이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서재탐방 | 윤창화 민족사 대표

“‘사기’ 읽으며 미래 꿈꿨죠”

史 記

불교학술서 · 불교경전 · 불교입문서 등 불교 전문 서적을 출판하는 민족사 윤창화 대표(59).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아도 좋으니 제대로 된 불교개론서를 만들어 보급해야겠다는 일념 하에 외길인생을 걸어온 지도 벌써 올해로 32년째다.

지금까지 600여 권의 불교 서적을 펴낸 윤창화 대표는 “양서(良書)를 만들려면 출판인들도 항상 공부를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윤 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있는 9000여 권의 책 가운데 그가 읽은 책들에는 ‘포스트 잇’들이 덕지덕지 붙여져 있다. 좋은 글귀를 오래도록 보기위해, 또는 다음에 공부할 때 쉽게 찾아 보기위해 그가 표시해 둔 것이다.

강원도 진부 두메산골에서 자란 윤창화 대표는 14세 무렵 초등학교를 마친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권유로 탄허 스님이 계신 월정사로 향했다. 처음에는 ‘어머니 말대로 한문공부만 하다 나와야지’ 했었다. 그러나 탄허 스님을 모시고 〈화엄경〉을 비롯해 〈논어〉 〈장자〉 〈도덕경〉 등을 배우면서 한문과 경전 공부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고 사미계와 비구계를 받고 스님이 됐다. 그러다 윤 대표는 22세(1974)가 되던 해 겨울, 탄허 스님을 모시고 대원암에서 〈화엄경〉 간행불사에 매진하고 있을 때 그의 가치관을 정립시켜준 책을 만나게 된다. 사마천의 〈사기(史記)〉가운데 백미만을 모은 〈사기열전(史記列傳)〉이라는 책이었다.

“… 좌구명은 실명(失明)함으로써 국어(國語)를 저술했고, 손자(孫子)는 다리가 잘림으로써 병법(兵法)을 편찬했으며,… 한비자는 진나라에 갇힘으로써 세난(說難), 고분(孤憤) 두 편이 쓰여 질 수 있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윤 대표는 온 몸이 오싹하면서 소름이 돋아 머리끝이 솟아올랐다.

“제 머리통은 뒤죽박죽이 되었죠. 꼬박 3일 동안 이 책을 붙잡았어요. 삶에 대한 가치관을 놓고 생애 최초로 일대 회전을 치뤘습니다. 20~30대에 난처한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이 책을 읽었어요. 현실의 급급함에서 벗어나 먼 미래를 꿈꿀 수 있었거든요.”

윤창화 대표는 “〈사기(史記)〉는 인간의 삶이란 참으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며 “댓가와 고난 없이 이루어진 삶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아내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면서 1979년에 환속한 윤 대표는 탄허 스님 밑에서 배운 출판 업무를 살려 이듬해 1980년 민족사를 설립했다. 당시 불교관련서적이라고 해봤자 스님들의 수필집과 시집 또는 법문집이 대부분이라 읽을 만한 불교 개론서와 입문서가 전무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때였다.

윤 대표는 ‘불교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무장된 불자들을 양산하고 싶다’는 생각에 불교학술서를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초판 1000권을 찍은 책이 15~20년이 걸려도 다 판매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힘든 여정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표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민족문화추진회에 들어가 3년간 〈사서삼경〉 〈경국대전〉 등을 공부하고 한문을 배우는 등 학문에 매진했다. 한문(漢文)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불교를 공부할 수 없고 좋은 불서를 선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좋은 불교 학술서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민족사 윤창화 대표는 늘 공부를 한다. 그가 읽고 공부한 책에는 항상 메모지가 붙여져 있다.

고난없이 이루어진 삶 의미없음 깨달아
독서를 할 때는 줄치고 음미하며 읽어야

윤창화 대표는 민족문화추진회와 탄허 스님 밑에서 키운 학문적 역량을 토대로 현재까지 민족사에서 나온 600여 권의 학술서를 꼼꼼히 읽고 교정 · 검수를 한다.

현재는 중국선의 실제적인 모습의 고찰을 통해 한국선을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중국선과 선원청규 자료들을 탐구하고 있다.

윤창화 대표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법구경〉 〈아함경〉 〈논어〉 사마천의 〈사기열전〉 장주의 〈장자〉, 인도의 고전 〈바가바드 기타〉,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 요시다 겐코의 〈도연초(徒然草)〉, 선어록인 〈임제록〉등 고전들을 인생의 보물로 여긴다고 했다.

윤 대표는 “9권의 책만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장주의 〈장자〉를 읽고 권력, 출세, 명예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관은 저열하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깨달았고 〈바가바드 기타〉를 읽으며 복잡한 인간의 감성이 순수하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 대표는 또한 “중국의 석학 임어당이 저술한 〈생활의 발견〉은 훌륭한 인격을 이루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라며 “요즘 출판되는 책 만권을 능가할 정도”라고 극찬했다. 이 밖에 윤 대표는 1300년대 일본 스님인 요시다 겐코가 쓴 수필 〈도연초〉를 동서고금을 통틀어 최고의 수필로 꼽았다.

지금까지 좋은 학술서 만을 내겠다고 고집해온 윤 대표였지만 요새는 관심 가는 분야가 생겼다. 바로 응용불교와 마음공부, 명상과 관련된 분야다. 윤 대표는 경쟁시대를 살면서 스트레스와 허무를 느끼는 대중들이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책 만들기를 모색하고 있다.

윤창화 대표는 “앞으로는 폭넓은 불교 교양서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지만 대중 불자들에게 정확한 불교 지식을 전달하는 책 만드는 것은 계속 될 것”이라며 “책만 많이 읽는 지식인보다는 책을 읽고 음미할 줄 아는 성찰하는 지성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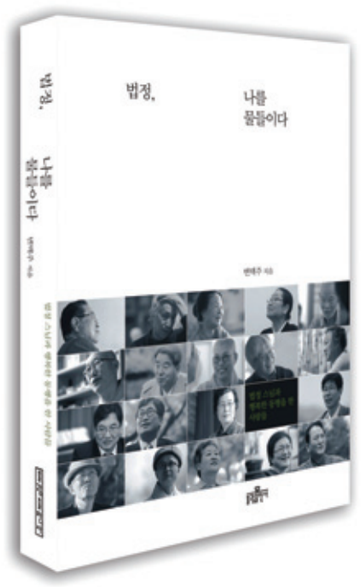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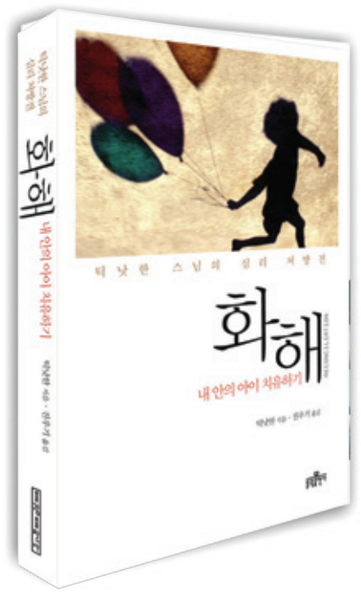
1/25~1/31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3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4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	보경	조계종출판사
5	마음수업	이광정	휴
6	무문관 참구	장휘옥,김사업	민족사
7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명진	말글빛냄
8	법정 나를 물들이다	변택주	불광출판사
9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10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법정 스님과 행복한 동행을 한 사람들
법정, 나를 물들이다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
꽃은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다 모두 내맡긴다.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변택주 지음 | 352면 | 15,000원


화해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화〉 이후 9년, 틱낫한 스님 마음 치유 이야기의 결정판!
“당신 안의 아이와 화해하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240면 | 13,000원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 / bulkwang 불광출판사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언제 어디서나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본격 생활명상 입문서! 숨 쉬고 걷고 울고 화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상이 곧 명상
잭 콘필드 지음 | 추선희 옮김 | 156면 | 12,000원


도법 스님의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날마다 좋은 날 만드는 10가지 방법
3만 리를 걸으며 8만 명의 사람을 만나
도법 스님이 깨달은 생활을 위한 지혜
도법 지음 | 280면 | 13,800원


무비 스님이 전하는 이 시대 희망의 메시지
당신은 부처님
“마음이 부처라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 몸이 부처다. 깨치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부처인 시대가 왔다. 지금 부처로 살지 않고 어느 세월에 부처로 살겠는가?”
무비 스님 지음 | 168면 | 9,000원

“한국선에 독참 알리고 싶다”

오곡도 명상수련원 장휘옥 · 김사업 박사 참선수행서 발간



무문관참구
장휘옥 · 김사업 제창
민족사
2만2000원

“한국 간화선이 위기인 것은 독참(獨參)이 없기 때문이다. 좌선하고 있어도 아무도 점검해 주지 않으니 수행이 샛길로 빠지기 쉽다. 한국 간화선의 ‘방목선(放牧禪)’ 풍토를 바꿔야 한다.”

김사업 · 장휘옥 박사는 서울대 · 도쿄대 출신 불교학자이다. 동국대에서 강의하던 그들은 어느날 강단을 떠나 세계 각국의 수행처를 떠돌기 시작했다. 두 학자는 언어로만 추구하는 진리탐구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10여 년간 티벳 · 유럽 · 일본 등을 다니며 수행을 했다. 최근에는 남해 통영 인근의 작은 섬 오곡도에 명상수련원을 세우고 수행정진을 거듭했다.

그런 그들이 한권의 책을 들고 돌아왔다. 간화선의 교과서라 불리는 〈무문관〉을 풀이한 〈무문관참구〉이다. 책은 집필기간만 2년이 넘는다. 특히 1인 10역을 해도 항상 손이 모자라는 섬생활과 참선수행을 하면서 저술한 작품으로 더욱 눈길을 끈다. 책은 에피소드 중심의 기존 선 관련 서적들과 달리 ‘독참’이라는 청규제도를 더해 차별을 꾀했다.

김사업 · 장휘옥 박사는 일본 임제종에서 독참을 경험했다. 김사업 박사는 첫 독참의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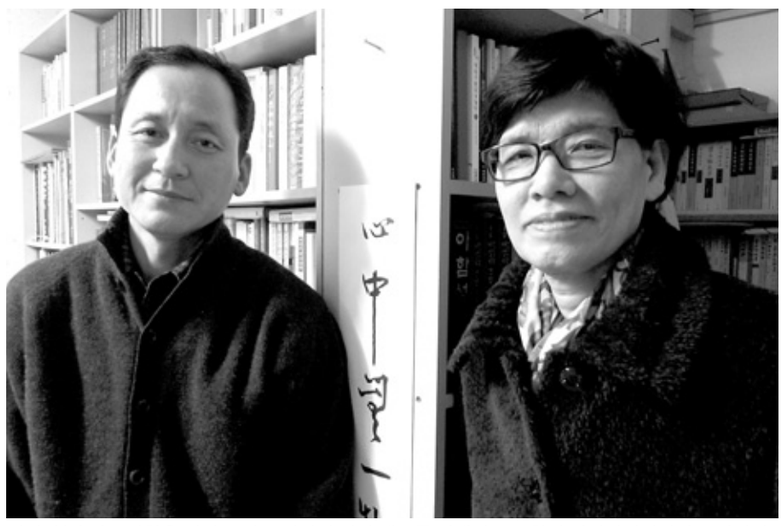
“무(無)자 화두를 받은 다음날 방장스님 방에 들어갔더니, 스님이 눈길도 주지 않는 겁니다. 정적이 흐른 다음, 방장스님의 첫마디가 ‘무(無)를 보았느냐’ 였습니다.”

김 박사는 “아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말끝에 바로 방장스님의 벽력같은 호통이 떨어졌다. “네가 아직이라고 말한 것은 화두를 들 의지가 없는 것이다.” 방장스님은 요령을 흔들었다.

김사업 박사는 “방장스님이 요령을 흔들면 독참을 거두고 바로 물러나야한다. 방장스님 방을 나온 이후 다음 독참 때 대답할 것이 두려워 화두에 죽기살기로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안거 결제 · 해제때 큰스님이 법상에서 주장자 두드리는 가르침만으로는 간화선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휘옥 박사는 “위빠사나 수행에서는 인터뷰 형식으로 선지도자와 다수의 실참자가 수행에 관해 편안한 대화를 나눈다. 반면에 간화선은 1:1로 모든 것을 걸고 한마디씩 하는 엄숙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사업(왼쪽) · 장휘옥 박사는 한국 간화선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독참이 되살아나야한다고 말한다.

두 박사는 독참 제도가 〈선원청규〉에 기록된 방식임에도 일본을 제외한 한국 · 중국불교에서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사업 박사는 “섬 생활을 해보니 사고방식이 달라졌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소중할 수 밖에 없다. 일본도 대륙 문물을 소중히 여기는 습성이 있어 중국 송대의 간화선 전통이 잘 간직돼 있다”고 설명했다.

책은 두 저자가 일본 임제종 14대본산 가운데 한 하나인 고오가쿠지에서 안거하며 미야모토 다이호오 방장스님으로부터 900여 회 독참 지도 받은 내용을 오곡도에서의 7년여 수행생활로 되새김해낸 결과물이다.

책에는 두 저자가 참다운 대자유를 공유하기 위해 갈구했던 의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끼’ 많은 스님의 첫 시집

명상전문가 수덕 스님 “다음 책은 다이어트 서적”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수덕 스님 지음
지혜의나무
1만3000원



수덕 스님은 명상전문가이다.

스님은 출가 전 기자였다. 달라이라마를 인터뷰하다 불교에 매료돼 출가했다. 인도 간디자연치료대학, 미국 샌디에고의 막스거슨연구소, 멕시코 티후아나 자연치료병원 등에서 수학하며 명상지도를 해왔다. 스님은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40여 년간 자신이 갈무리한 세상을 렌즈에 담아왔다. 마음 속 상념들을 정련해 시도 썼다. 그림과 사진 등 다방면의 예술분야에서 실험적 전시회도 열어왔다. 스님의 ‘끼’는 서울문학에 추천작가로 활동케 했고, 〈문학과문화〉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면서 시인으로도 자리매김했다. 오랜 작품 생활 끝에 스님은 그간의 작품들을 모아 책을 냈다.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수덕 스님의 첫 시집이다.

저자는 1월 30일 출판기념 간담회에서 “명상은 생각을 여의게 하는 것이다. 생각은 ‘나’가 아니다. 시는 한 부분을 투철히 살펴 명상을 통해 재해석하는 과정과 같다”며 명상과 시의 관계를 말한다.

저자의 시제는 다채롭다. 책 제목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비롯해 ‘지랄병 났나?’ ‘노가리 한 마리’ ‘디아스포라와 가뮈의 혼재를 말하다’ 등 시제들은 스님의 기발함을 대변한다.

특히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재가신도의 결혼식에 참여한 저자가 혼주측 약속과 달리 채식 아닌 스테이크 공양을 받아야 했던 당혹스러움이 시가 된 것이다.

저자는 “모든 현상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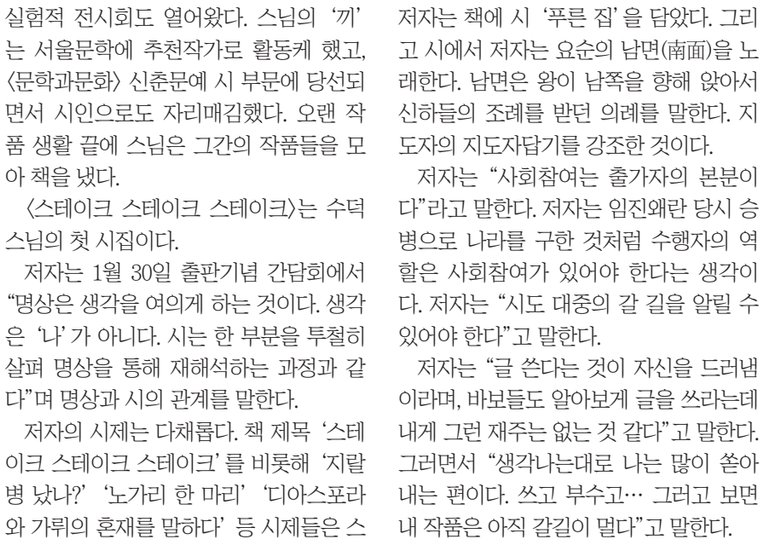
3년 전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차량을 경찰이 검문했던 것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책에 시 ‘푸른 집’을 담았다. 그리고 시에서 저자는 요순의 남면(南面)을 노래한다. 남면은 왕이 남쪽을 향해 앉아서 신하들의 조례를 받던 의례를 말한다. 지도자의 지도자답기를 강조한 것이다.

저자는 “사회참여는 출가자의 본분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으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수행자의 역할은 사회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자는 “시도 대중의 갈 길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글 쓴다는 것이 자신을 드러냄이라며, 바보들도 알아보게 글을 쓰라는데 내게 그런 재주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생각나는대로 나는 많이 쏟아내는 편이다. 쓰고 부수고… 그러고 보면 내 작품은 아직 갈길이 멀다”고 말한다.

저자는 책을 설명하면서도 첫시집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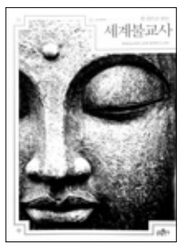
“다음번엔 잘 쓸게요.” **조동섭 기자**



수덕 스님의 책에 실린 사진. 책에는 스님이 직접 찍은 작품 사진들이 담겨 시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12개 나라 불교사 일목요연 정리

승가대학 필수교과 교재 출간…재가자도 보세요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
불학연구소 편찬
불광출판사
2만3000원

인도 중국 티베트 몽골 일본 미국 등 12개 나라의 불교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이 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허정)는 최근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를 출판했다. 책에는 12개 나라 불교의 과거와 현재 모습이 담겨있다.

책은 2012년 개편된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 필수교과목 ‘세계불교사’의 교재로 사용된다.

불교의 발상지면서 흥망성쇠 과정을 거쳐 쇠퇴해 버린 인도, 선불교 등 독자적인 대승불교를 발전시켜 불교사의 위대한 꽃을 피워온 중국, 계율 준수 및 대승불교 구세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현대적 불교로 새롭게 약진하는 타이완, 7개 계통 180파에 이르는 종파로 각 종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해온 종파불교의 일본, 후기 인도불교 경론을 온전히 전승하며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금강승의 나라 티베트,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불교국가이면서 티베트불교 문화권의 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던 몽골, 동남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대승불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베트남, 초기불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스리랑카 · 미얀마 · 태국 ·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 다양한 문화와 민족의 용광로이자 종교와 과학의 융합점인 미국 등으로 책은 나라별 특징을 요약 · 정리했다.

이들 나라별 불교사 저술에는 ▷명법 스님(미국) ▷김성수 서울과학기술대 조교수(몽골) ▷김진영 동국대 외래교수(동남아) ▷서인범 동국대 교수(중국) ▷양승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티베트) ▷양정연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연구교수(타이완) ▷원영상 동국대 일본불교사연구소 연구부장(일본) ▷이필원 동국대 외래교수(인도) 등이 참여했다.

책은 ‘세계불교사’ 과목을 공부하는 스님들의 교재로 사용되지만 일반인도 세계불교 역사와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 · 구성됐다.

부록으로 세계불교사 연표를 첨부해 불교사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은 “현대는 지성의 통섭 시대로 지성의 내적 구축이 요구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바로 알아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변모시키는 세계종교로서의 미래불교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간에서 유럽불교사는 제외됐다. 불학연구소는 유럽불교사를 〈세계불교사〉 개정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그대는 신이다



책 〈그대는 신이다〉는 1910~1997년 북인도에 살았던 슈리 H.W.L 푼자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노래들을 모은 것이다. 이 노래들은 숭고하면서 단순한 진리에 대한 완전한 경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인 슈리 H.W.L 푼자는 그 진리를 우리는 순수의식이며 전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한다. 저자는 거듭 당부한다.

“세상에서 쓰는 언어들을 제쳐놓고 내가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진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지식을 초월해 존재합니다. 진리는 분석하고, 확인하고, 자르고, 머리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동섭 기자**

한방(韓方)치료로
간 질 환
백 반 증(백납)
건 선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090226-중-4825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215-중-9677호
알츠하이머 치매!
아직도 방치 하십니까?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알츠하이머성치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적 화두 치매...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리는데 저희 한의원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명 지 한 의 원
예약 문의 052)261-7502~3
울산 남구 야음2동 459-44
(야음시장 맞은편)
한의사 원장스님 흥화(권대일)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12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당면판단완성 정가650만원
· 군자수첩 103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농 협 301-0071-8027-01/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신라 법흥왕 내외의 출가

왕의 사신捨身, 불교 토착 앞당겨

1. 대왕의 호칭 사용

일연은 신라의 불교공인을 담고 있는 조목을 '원종흥법(元宗興法) 염촉멸신(猒髑滅身)'이라고 명명했다. 여기서 원종은 법흥왕이고 염촉은 이차돈이다. 법흥왕은 즉위 당시 신라 고유 왕호인 매금(寐錦)왕으로 불렸다. 영일의 냉수리비(冷水里碑; 503)와 울진의 봉평비(鳳坪碑; 524)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불교 공인이전까지 그는 왕으로서의 초월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신료들과 동렬에 머물러 있었다. 오랫동안 신라는 경주 지역을 분할 통치했던 여섯 부족의 득세로 말미암아 왕권이 미미했다. 왕은 나라를 대표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여섯 부족장들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 어렵게 병부를 설치하고 공복을 제정한 뒤 율령을 반포한 법흥왕은 불교의 공인을 통해 강력한 왕권 확보를 모색했다. 당시 여섯 부족들은 지증왕대 이래의 축전(祝典) 성립과 냉수리비와 봉평비에 보이는 살우(殺牛)의식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교사상과 고유신앙에 기반해 있었다.

일연은 이 조목에서 염촉의 '멸신(滅身)'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정작 원종의 '사신(捨身)'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다. 법흥왕은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일련의 개혁과정 아래 불교 공인을 시도했지만 여섯 부족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쳐 그 의

불교는 왕권 확보 차원 도입
개혁과정 중신 극렬 반발

욕이 좌절됐다. 그는 이차돈과의 밀약을 통해 불교의 공인을 성공시켰지만 불교 교화에 대한 중신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법흥왕은 할 수 없이 특단의 조치로서 몸소 사신(捨身, 出家)을 통해 출가를 감행했다. 그러나 중신들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흥왕의 사신 행위는 조정과 재야를 막론하고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통치자의 사신 행위는 일찍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보니 조야에서는 그 일에 대한 기억을 좀처럼 지워버릴 수 없었다.

법흥왕은 염촉이 제안한 흥륜사의 창사 명령의 부인을 통해 정미년(527)에 불교를 공인했지만 왕의 사신을 계기로 흥륜사 불사는 중단됐다. 이 때문에 신라의 불교 공인을 정미년을 기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학자들도 있다. 신하들은 이차돈과의 밀약에 의해 불교 공인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왕의 신분을 유지한 채 삭발 염의한 법흥왕에 대한 비판 의견들을 쏟아내었다. 하지만 법흥왕의 사신에 대해 최치원은 '봉암사지증국사비'에서 중국 양나라의 무제와 같이 "이미 신라에서도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與民同樂] 뿌리를 심었다"며 신라불교사를 중국불교사와 대등하게 기술하고 있다. 법흥왕의 율령 반포 8년째가 되는 해인 을유년(535)에 흥륜사 중창불사가 시작됨으로써 신라 불교의 홍법이 본격화됐다. 그렇다면 이차돈의 처형은 정미년 당시가 아니라 을유년 이전이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삼국유사〉의 '원종흥법 염촉멸신' 조목의 할주(割註)에 인용된 향전(鄕傳)에는 법흥왕의 칭호가 변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차돈이 맹세하기를 "대성법왕(大聖法王) 이 불교를 일으키고자 하기에 몸과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얽힌 인연들을 버리오니 하늘은 상서로움을 내리시어 두루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소서"라고 한 것처럼 불교 공인 이후 법흥왕은 '영즉지태왕(另即智太王)' 또는 '대성법왕' 혹은 '성법흥대왕(聖法興大王)'으로 불렸다. 이제 법흥왕은 더 이상 신료들과 동렬에 있는 '매금왕'이 아니라 그들 위에서 초월적 지위를 확보한 '법흥대왕'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신라의 왕이 '대왕'이란 호칭으로 금석문 위에 처음 나타나는 갑인년(534)이 되면 법흥왕은 명실공히 신하 위에 군림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이것은 이차돈의 처형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사신의 내력

불교에서의 '사신(捨身)'은 불교 수행의 한 형식으로서 자리해 왔다. 즉 사신은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자신의 육신을 붓다 혹은 진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소신(燒身) 또는 분신(焚身) 혹은 자해(自害) 등으로 보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개 사신은 왕과 귀족에게서 이루어졌지만 일반인과 노비에게도 행해졌다. 궁내 인척이나 반역으로 멸문한 후손들도 사찰의 노예로 삼았다. 왕의 경우는 인도의 아쇼카왕이 불교에 귀의한 뒤 세속의 신분과 업무를 저버리지 않은 채 승의(僧衣)를 입고 교단에 머물며 함께 수행을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신라 왕실이 흠모했던 아쇼카왕과 관련 사적으로는 진흥왕대(573 또는 574) 또는 진평왕대에 조성됐다는 황룡사장육존상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아쇼카왕 관련 사적은 진(晋)대에서 남조와 수당대에 이르기까지 아육왕사와 아육왕탑 등의 조성을 필두로 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또 중국 남조의 양나라 무제 역시 대통 원년(527)에 황궁 옆의 동태사(同泰寺, 現 남경 鷄鳴寺)에 가서 붓다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사신한 뒤 궁으로 돌아왔다. 그는 불은(佛恩)을 갚기 위해 자신이 통치하는 전국 곳곳에 천불과 천탑을 세우며 사신을 거듭했다. 양무제는 자신을 '삼보의 노예[三寶之露]'로 절에 바치고 신하들은 노예가 된 황제를 위해 수억만전(數億萬錢)을 절에 주어 죄를 대속[贖罪]하고 궁으로 돌아오게[還宮] 했다. 양무제는 짧게는 4일에서부터 17일, 37일, 43일간 네 차례나 동태사에 거동해 사신을 하고 교화를 했다. 심지어는 정화조를 푸기도 하고 불목의 일도 했다고 전한다. 사신이 끝나면 돌아와 크게 사면을 베풀고[大赦] 연호를 고쳤다[改元]. 이 모두가 불교 수행과 신행에 기반해 이루어졌다. 그는 고기와 술을 엄격히 금지하는 단주육문(斷酒肉文)의 조칙도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불사는 신라에까지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법흥왕의 사신이 이루어진 해 역시 양무제의 사신이 이루어진 해와 동일한 정미년이다. 최치원은 '봉암사지증국사비문'에서 양무제가 동태사로 나아가



경주 흥륜사지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

불교수행과 신행기반 정치 펴
남조불교가 신라불교로 발전

사신을 하고 돌아온 날까지 기록하고 있다. 무제가 사신한 그날이 바로 법흥왕이 흥륜사에서 사신한 날이기 때문이었다. 최치원은 '같은 (해) 봄[一春]'에 양무제와 법흥왕이 사신했다는 사실을 통해 신라가 중국 남조불교와 접촉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호불황제인 양무제는 '단주육문'의 조칙을 반포했고 호불대왕인 법흥왕은 살생을 금하는 영을 내리고 있다. 일연은 '왕력' 편의 법흥왕 조에서 "처음으로 십재일(十齋日)에 살생을 금하고 사람들이 비구승과 비구니승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고 적고 있다.

십재일은 재가 신도가 매월 1·8·14·15·18·23·24·28·29·30일 열흘 간 몸과 마음을 삼가고 맑고 깨끗한 일에 힘쓰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팔재계를 지키며 착한 일을 하면서 정진하는 날이다. 법흥왕은 이들 10일 동안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게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출가를 허가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라는 빠른 시일 내에 불교를 자기화 하고 주체화 할 수 있었다. 신라는 양무제 이래의 남조불교를 모범으로 삼기는 했지만 이내 신라 '본위(本位)'의 불교로 소화해 내어 신라불교로 자리매김 해냈다. 법흥왕의 사신은 결과적으로 왕비의 출가로 이어졌고, 나아가 진흥왕의 사신과 그 왕비의 출가로까지 이어졌다. 이들 두 왕의 내외의 사신과 출가는 결과적으로 후발주자로서 갖은 산통을 겪은 신라의 불교가 국가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던 고구려 불교와 백제 불교 및 가야불교와 대발해 불교와 달리 이땅의 자생적인 불교로 자리잡는 원동력이 됐다.

3. 흥륜사의 금당과 오당

법흥왕은 신라 최초의 절인 대왕사(흥륜사)에서 사신했고 그곳에 살면서 왕무를 보았다. 그는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됐으며[入寺爲僧] 스스로 불법을 펼치고 행했다[肇行佛法]. 비구 법공(法空)이 된 그는 출가자의 몸으로서 세속의 신분과 세간의 업무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러한 법공의 모습은 조정과 재야 모두에게 낯설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밀고 나갔다. 그 과정에서 중신들과 적지 않은 갈등도 생겨났다. 불교에 대한 군신들의 반발은 천경림 숲을 베고 대왕사(흥륜사)를 세운 이차돈을 처형함으로써 활로를 열어나갔다. 해서 이차돈의 멸신을 통해 법흥왕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그리고 을유년에 대왕사(흥륜사) 중창불사가 시작됐다. 울주 천전리서석의 을사제기(乙巳題記)와 을미제기(乙未題記) 뿐만 아니라 갑인제기와 을묘제기 등 불교관계의 단편적 명문에 의하면 흥륜사에는 안장(安藏)이라는 승려가 머무르며 법흥왕의 개인적 신불(信佛)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차돈의 순교로 중단됐던 흥륜사 조성공사는 을묘(535)년에 천경림을 베면서 본격적인 불사가 이루어졌다. 흥륜사는 정미년(527)에 흥륜사 공사를 처음 시작[始開]했으나 군신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됐다. 그러자 법흥왕은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되는[入寺爲僧]' 특단의 조처를 통해 '불법을 펼치며 행했다[肇行佛法]'. 이 표현은 그의 '조행'이 처음에는 왕 개인의 신불 행위로 시작됐음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왕이 사신을 감행하자 군신들은 이것을 크게 문제삼았고 이차돈에게 흥륜사 창건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이차돈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처형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차돈 순교는 흥륜사 중창의 물꼬를 텄다. 해서 을묘년에 흥륜사는 법흥왕 개인의 사찰에서 국가사찰로 크게 개창[大開]됐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왕과 귀족간의 타협으로 왕의 정무를 대행하는 상대등(上大等)을 둠으로써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흥륜사에는 금당(金堂)과 오당(吳堂)이 특히 유명했다. 중국 남조의 덤칭인 '오(吳)'를 딴 전각인 '오당'은 신라 중고기말 경에 김양도(金良圖)가 남조의 동태사를 본받아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주' 편의 '밀본최사' 조목에 의하면 그는 불교를 돈독히 믿어 일생토록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다. 김양도는 흥륜사 오당의 주불인 미륵존상과 좌우보살을 소성하고 아울러 그 당에 금화를 가득 채웠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흥륜사의 창건과 법흥왕의 사신이 남조 불교를 모범으로 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법흥왕 이전 미추왕과 눌지왕 대에 이미 불교가 민간에 널리 전해져 있었다는 사실과 양나라 사신 혹은 오나라 사신이 신라 왕실을 찾아와 불교를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차돈 순교는 불국토의 신호탄
흥륜사 비롯 신라불교 중흥

또 흥륜사 금당은 오당과 함께 절의 상징이었다. 금당의 십성은 의상(625~702)의 제자인 표훈이 자리해 있음을 통해 경덕왕대에 소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흥법'편의 '동경 흥륜사 금당 십성' 조에는 주불이 등장하지 않지만 '신주' 편에 의하면 오당의 미륵존상과 달리 아미타불이 주존으로 모셔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최초의 절에 붓다를 시위하는 열 명의 제자를 붓다의 10대 제자가 아니라 신라 여덟 명의 성인(聖人) 출가자와 두 명의 현인(賢人) 재가자 염촉과 사파를 모셨다는 것은 대단한 주체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서향으로 앉은 동쪽의 아도 염촉 혜숙 안함 의상과 동향으로 앉은 서쪽의 자장 혜공 원효 사파 표훈 등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10성의 면면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배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10성 모두를 이땅 신라의 '흙'과 '물'과 '기술'로 빚은 소상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증폭된다. 법흥왕의 불교 공인과 그의 사신은 신라 불교의 진경을 열어가는 초석이 됐고 전륜성왕을 꿈꾸었던 진흥왕이 이를 이어가면서 민족불교의 르네상스를 열어갔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 40년 노하우, 김철회 회장 직접 지도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회장 –한국설법연수원회장

교육일정

◆ 기 간 : 매주 목요일 (2개월 과정)
◆ 종 합 반 : 10인 이내 – 선착순 접수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 직접 상담 결정
◆ 개강일자 : 2012년 2월 16일 (목) 오후 7시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진도식 교육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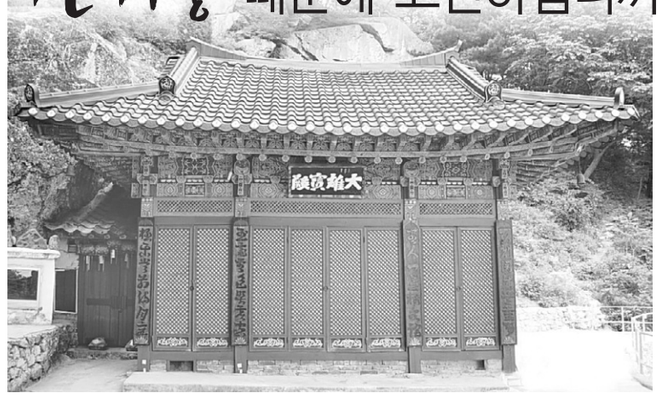
韓國說法硏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 화엄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행자(비구니) 구합니다.

1. 신체조건에 관계없음
2. 학력 관계없음
3. 나이 관계없음
4. 불법을 구하고 수행정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011-858-0306

염불 • 역학

승려가 1:1 개인지도
속성완성
천도재 49재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011-716-3811

불교(범음,범패)교육대학

범음,범패,작법무
단기간 속성(실무위주),행사 출장
퇴마(5일완성), 사주(5일완성),
작명(3일완성) 전수
풍수상담, 교육 출장교육
부산 미타사
010-4611-3738
010-4519-3738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010-4735-3232
범 송

웰강. 황토. 상황. 氣 토굴. 쑥 뜸방 훈증침대

누워서 허리 뜸 /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 편안히 무릎 뜸
잃어버린 건강 / 사고 후유증
편안히 꼭 건강 찾아 장수하세요
훈증 침대 특허번호 제10-2011-011722호
가맹점 모집
011-573-4438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강남 소재 사찰)
011-368-374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기장 일광, 세룡암)
010-3553-0993

50대 비구승입니다. 천일기도를 발원하여 맑은 기도도량, 인연처를 찾습니다

010-5420-8240

극락사 사찰 운영하실 분 구합니다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전북 김제 극락사 납골공원
010-4427-2256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2012년 임진년의

직업운, 사업운, 재물운, 진학및 성적운,
이성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적중률
90%가 넘는 효타비결서(신수비결)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해결하세요.

효타비결서(신수비결: 정가 1만원)

전국유명 서점 도서출판 청연

삼 혼 칠 백 기 도

• 삼혼칠백은 귀신이 아니며 모든 유정무정의 흥망성쇠는 삼혼칠백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행자 (출가자) 모집

출가 하여 자기완성과 더불어 중생제도에 뜻이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출가자 행자 교육 후 사미계 수계 ▷ 본 총림 승가교육기관 교육
▷ 교육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총림 및 소속 각 사찰 배속
▷ 자세한 것은 본산 중앙협의회에 문의 ▷ 기타 종단 등록 및 사찰 등록 환영

한국불교 원융교단 무문총림 . 중앙불교대학원
문의처 : 본산중앙협의회 서울 (02) 496-3951-3
총 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영평사

한글 팔만대장경 시주하실 분이나 파실분

덕산 스님 합장
011-9228-67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60세 이상 가능)
010-3746-8887

수 강 생 모 집

역학은 5~10년을 해도 쉽게 되지 않으니
이제 효타비결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세요.
효타비결은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게 해 드리고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 개인 지도반(1개월 완성)
2. 초급반(6개월 완성)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010-7121-9406

무형 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 (바라. 작법)

(사)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보유자 스님 직강, 범음 범패,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운심게, 삼귀의)
010-2563-5550 (개인지도)
사찰행사 : 49재, 산신, 수륙대재
(사주, 명리학, 영가 찾는법 1개월 속성)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종도 가입안내
본 종단에서는 종도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부산 동구 범일동 1454-17 영축사
총무스님 010-2563-5550

봉은불교미술원 탱화 벽화 전문

수월관음도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천수천안 관음탱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나한탱
오백나한 산신탱 독성탱 먹탱화 홍탱화 무속종합탱
충남 아산시 041)541-3545 / 010-8237-3545
홈페이지 : 봉은불교미술원 www.bongen.pe.kr
가 암 오재택

공양주 구합니다

010-4174-7410

공양주,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사찰입니다
(보시는 상담 후 결정)
상담전화 033)682-8101
(야간) 019-262-6400

3년 동안 숙성한 진짜 100% 효소 145가지의 약초가 들어간 백초 효소

백초효소는 불가에서 승려나 수도자들이 오랜 기간 토굴에서 참선을 하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머리를 맑게 하기위해 먹던 약초입니다.

< 백초효소를 권장하고 싶은 사람>
– 목과 어깨가 뻐근함, 입어 설 때 느끼는 현기증,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비만, 변비, 요통, 식욕감퇴, 불임, 생리불순 등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제반증상과 경년기 장애등
– 병원에서 진단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가 아프다고 느끼는 분
– 알레르기성 체질(아토피, 비염)이나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
– 잦은 과음으로 인한 숙취, 약물중독 만성피로, 수족냉증, 정력증강
– 각종 암, 당뇨병 등 만성병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한 자연요법을 실시할 경우 최고의 자연식품

중시세의 절반 스님들에게
보급가액 1병 : 5만원
(2병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부처골 풍경소리
cafe.daum.net/jijangsw
지장선원 www.jijangsw.com
※ 보급처 : 부처골 영농조합
cafe.daum.net/jijangsw.8899

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번지 부처골 지장선원 ☎054) 383-8553 , 011-9585-4908
입금계좌 :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6(화) 저녁반, 3/8(목), 3/9(금) 오전반 , ■ 3/10(토), 3/11(일) 특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등록가입안내

불교문화회관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설립운영하실 분
설립운영하고 계신 분
등록 가입 받습니다
한국불교문화원 연합회
010-6838-8040
법 광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부산경남 실전위주 범음범패 학인 모집

일 년 과 정

1학기
1) 조석 예불, 타종, 상단불공
2) 사물 다루는 법

2학기
1) 각종 재공편 의식 49재, 시다림, 다비식
2) 천수바라, 오공양나비춤, 작법, 태평소

◑ 강 사 진 : 도성(영담), 성암, 철암
◑ 교 육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까지
(단, 초하루, 15일, 18일이 월요일인 경우 다음날로 교육)
◑ 찾아 오는 길 : 김해시 지내동 504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영 봉 정 사
◑ 개 강 : 2012년 3월 5일(월) 입강
◑ 문의전화 : 011-852-8595
055)322-8595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 〈新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시까지

○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기존상담 모든 분야
○ 평생운, 해운(단기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제왕절개 수술일자, 묘이장
○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 운명궁합도 함께 풀이
○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 체질 & 건강 – 5기체질론에 의한 발병원인, 식이요법까지
○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특수 교육강좌〉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0주)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천부경 숫자풀이법 인연법(10주)
◈천부경 진로상담법(장사/사업)

타로카드 강좌
〈DVD 발매〉
– 30만원 (2장/set) (타로카드 포함)
– 천부경 운명과학회 하나은행 〈629-910035-12505〉
– 각교육원, 카페신청

▣ 서울 • 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 전 교 육 원 (010)-6476-1021
▣ 대 구 교 육 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ttp://cafe.daum.net/cheonbu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18평
- 요사 : 43평
- 부지 : 400평
- 가액 : 4억

- 위치 : 경기
- 법당 : 15평
- 요사 : 37평
- 부지 : 350평
- 가액 : 4억 3천

- 위치 : 부산
- 법당 : 30(목조)
- 요사 : 70평
- 부지 : 150평
- 가액 : 6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역 지하철 7번출구)
- 7층 건물 : 3층 : 지하주차장
- 총평수 83평, 법당 약 30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 지장, 삼존불
- 월성, 신중, 영가단
- 방3개, 주방, 거실, 실내 화장실
- 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없음

010-9376-5633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 60평
-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6천만원
- 비구니스님 적합

010-2501-367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시내중심
- 3층건물중 3층(27평)옥상사용
- 방2개,법당1개,거실,욕실,주차시설완벽
- 불보살님 및 각단탱화(스님,법사,보살 누구나가능)
- 시장옆 유동인구많음 (포교하기 좋은곳)
- 보증금 500만원 월 22만원 시설비 1500만원
- 대장경 및 불교서적 700권 포함
- 일본유탁 모든 것 위임

010-3772-5431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9335-848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전답 : 827평
- 법당, 요사채 약 50평
- 산신각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평당 40만원

010-8034-8309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 대웅전 목재3포(31평)
- 종각, 산신각, 요사채등
- 부지 약 1,000평, 임야 약 3,000평
- 교통양호 (국도변)
- 가액: 11억

011-257-4985
052)238-9001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상구 마을 버스 종점에서 약 120m 도보
- 30년된 도심 산속의 작은기도도량 (국유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가액: 8천 5백만원(조절가능)

010-5015-851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포 교 원 안 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불자님께
- 전주 시내 중심
- 원룸 빌라 고급음식점 밀집지역
- 1층 25평 내 - 법당, 방1, 부엌, 욕실, 도시가스, 살림가능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50만원
- 철학하시는 분 환영

063)246-848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청료동 (범어사 역 지하철 7번출구)
- 7층 건물 : 3층 : 지하주차장
- 총평수 83평, 법당 23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 지장, 삼존불
- 월성, 신중, 영가단
- 방2개, 주방, 거실, 실내 화장실
- 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없음

010-9376-5633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구봉산 사찰
- 내용: 전망 좋은 도심 산자락
- 80년된 청정기도 도량
- 대지 50평, 국유.사유지 50평
- 1층 요사채 50평 (방4, 공양간1, 관음전)
- 2층 법당 35평 • 옥탑, 목탑1, 해수관음입상
- 공원이 조성되어 주변 환경이 좋으며, 공영주차장 100여대 완비되어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8660-58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중 2층
- 평수 :32평 시설완벽
- 법당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2칸 시설비 :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5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2563-555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정릉2동
- 2층 50평 (아파트상가)
- 가액: 4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3022-82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 거실
- 보증금55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천광리
- 천수천안관세음, 신중탱화,
- 후불탱화, 소불
- 방3, 공양간, 탈의실 별도
- 시설비 1800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051)721-8350
010-9243-835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중 2층
- 평수 :32평 시설완벽
- 법당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2칸 시설비 :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

종교관련시설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약 40평 있음
- 특징: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가액: 15억

011-372-77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 사용평수 50평
- 삼존불, 지장보살, 인등, 소불
- 주차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3500만원

010-9350-8989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5분거리
- 종교부지 300평, 국유지600평
- 법당 25평, 요사31평, 산신각
- 문화재급약사석불
- 가액: 1억 8천만원

011-677-852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7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0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16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12억5천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100평
- 종각30평-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55억, 꼭 하실분만 연락

011-1703-27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경남 창원시 도계동 도계주유소 인근 4층 건물중 2층 (53평)
- 법당1 ,방4 ,화장실2(실내외 화장실 각1개)
- 창고1,큰 주방 ,거실,
- 도시가스 ,각방 전기페널 설치
- 전세5천 월30, 시설비 답사후 결정
- 현대식 시설, 산사 이전관계로 양도

010-3869-71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지하철 4호선 서동역도보 2분
- 법당 35평, 요사채 70평
- 공양간 30평, 주택밀집지역
- 시장, 교통최적지, 생활보장
- 부동산사절직거래(취득세없음)
- 가액: 5억 (은해융자가능)

010-3867-4747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비록 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 법구경 -

874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부천시 소사역 2분거리
- 평수 78평(옥상사용)
- 상가 건물 3층 • 시설 A급
- 보증금 5천만원 월 1백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6-309-9812 (김태호)

포 교 원 안 내

- 대구 북구 읍내동 2층 50평 • 최고시설
- 법당1, 방3, 공양간 1, 창고방1, 화장실1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9-7897

포 교 원 안 내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동 494-40호
- 용호시장 우리은행 뒤 • 평수 28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 삼존불, 소불 지장보살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2914-353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5.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명상 8주 프로그램

용서해야 과거 놓아 버리고 새롭게 출발

잭 콘필드의 명상 레슨 ⑤ – 용서의 명상

호흡과 몸, 감정과 마음을 다루는 통찰 명상을 보완하는 명상법으로 용서의 명상과 사랑의 명상이 있습니다.

용서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타인을 용서해야 자신의 과거를 놓아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언제나 '과거에 누가 누구에게 했던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즈에 의해 대학살이 일어난 후 피난민 캠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크메르 루즈는 사찰을 세우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한 스님이 피난민 캠프 한 가운데에 사찰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절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찰이 문을 여는 날 종이 울리자 2만 5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경전의 한 구절을 스님이 읊자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치유됩니다."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복수할 이유가 충분하며, 그 누구보다도 큰 슬픔을 가진 그들이 한 목소리로 경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가슴에 품어야 할 용서입니다.

용서는 지난 일을 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 잘못됐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악이 그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무지와 혼동과 고통으로 인해 잘못 행동한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몰아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란 과거를 놓아 보내고 잘못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어 새롭게 출발해야 함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50번 혹은 100번 이상 용서의 명상을 해야 그나마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 들 것입니다. 명상을 하는 도중에 분노와 격분, 슬픔과 비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용서 명상을 하다보면 자신의 내면에 아직 커다란 화가 있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용서에 관한 진부한 관념으로는 이 고통을 감출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에게는 해가 됩니다. 따라서 용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미국인 수감자가 함께 지냈던 다른 수감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잡아넣은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그 사람은 "안했습니다. 하는 그를 단 한 시도 용서한 적이 없소"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인 수감자가 그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들이 아직도 당신을 수용소에 감금하고 있군요. 그렇지 않나요?"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용서를 하는 것이 의도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괜찮습니다. 용서의 명상을 계속해보십시오. 그러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분노나 좌절, 공허함과 같은, 사랑과 반대되는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을 사랑의 명상으로 품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을 갈망하고 안전을 원하며 타인과 자신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상처받지 않으려는

상처와 슬픔의 분노 떠올려 어루만지며 떠나 보내세요

두려움과 오래된 상처, 냉소와 고통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저 아래에 묻혀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부드럽게 감고 호흡을 지켜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호흡의 미세한 변화까지 느껴보십시오. 먼저 생각과 말, 행동으로 알게 또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러했습니다. 늘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미숙하게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입힌 경우를 마음과 가슴으로 불러와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두려움과 고통, 무지와 게으름,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방식을 자각하고 용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슬픔을 느껴보십시오. 두려움과 고통,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았음을 이해하십시오. 분노를 품었던 가슴을 느끼고 친절함과 용서로써 보듬어 안고 이제 내보낼 때가 됐는지 살펴보십시오. 알게 혹은 모르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십시오.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에서 발췌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유도문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눈을 부드럽게 감고 호흡을 바라봅니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듯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지켜봅니다. 강물 위에 고요히 부는 산들바람처럼 그렇게 호흡이 온몸을 지나갑니다. 호흡을 조절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생겨나는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집중하고 느껴봅니다.

이제 이 고요함 속에서 용서 명상을 시작합니다. 용서 명상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욱 드러나는 명상입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호흡을 느끼면서 가슴을 열고 부드럽게 호흡하십시오. 생각이나 말 또는 행동으로 일부러 혹은 모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청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미숙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심하게 행동했습니다. 용서는 가슴의 벽을 허물고 자신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두려움과 고통, 무지, 태만, 거짓으로 인해 소중한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십시오.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용서만이 당신의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슬픔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돌처럼 굳은 마음과 분노로 상처와 슬픔을 대하며 냉담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들에게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들을 용서합니다.

상처입고 분노했던 장소와 사건을 떠올려보십시오.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지면서 용서하십시오. 분노를 떠나보낼 때가 됐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 온 세상이 용서와 자비와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을 바라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2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월봉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 입 학 식 :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전 11시
   - ■ 개 강 :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후 1시
   -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자혜불교대학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53)581-0232 / 053)581-0233
   054)974-2605 / 011-544-2605



영 남 전 통 범 음 · 범 패 교 육 원

범음범패 학인모집

부처님의 말씀이나 게송을 노래(천보음악)로 만들어 보는 이나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 가득찬 환희심을 일어나게 한다면 그는 이미 도를 이룬것과 같다(법화 3부경 제1권 방편품 제2장 39절), 옛날부터 전래되는 범음범패의식을 2년 동안의 수련과정을 거쳐 의식에 능숙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 ◇ 자 격 : 스님 및 삭발 염의하실 예비스님
- ◇ 예비소집 : 2556(2012)년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 개강일 : 응화복전 3039년 남전열반 2556년(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지장사 2층 범패의식교육원
- ◇ 수업일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핵심경전 집중강의(초발심자경문부터), 중식 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이론 및 소리실기 + 작법 2시간실기
- ◇ 과 목 :
  - ◆바 라 작 법 = 천수, 사다라니, 관욕화의재, 요잡, 츰부다라니(예수재전점안시 바라작법)
  - ◆착복무작법 = 도량게, 향화게, 다게, 옴남, 귀경이, 운심게, 오공양, 법고무
  - ◆사물장단은 기본 국악관악기 : 산조대금, 소금, 단소, 향피리, 태평소, 퉁소다루기 (착어, 영가축원, 생축시 배경음) 의향 있으신 학인에게만 전수
  - ◆법당북연주타법 : 송주성타법 3가지의 에드립타법 7가지 합10가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 산사음악회용 찬불국악리듬
  - ◆재 의 식 반 : 49재, 천도재, 기재, 상용영반, 산신재, 해상용왕재, 시다림 등
  - ◆대재의식반 : 영산대재, 생전예수대재, 무차수륙대재, 국가적위령대재 등
  - ◆이운의식반 : 삼신이운, 불,사리이운, 고승사리이운, 대종사이운, 설주이운 등
  - ◆각종 점안의식반 : 각종불상, 보살상, 신장, 나한, 탱화, 가사, 전 점안의식, 복장의식 등
  - ◆핵 심 경 전 강 의 : 의식집에 있는 경전의 핵심인 열반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아미타경 등의 사구게를 영가와 산자에게 들려줘야 함에 이들 경전의 핵심만을 추려서 학인의 이해를 도와 지식을 증장해야 의식을 집전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

강 주 : 교육원장 홍인 스님 010-5325-8123, 053-632-0078
문의전화 : 지장사 대구 포교당주 학장 범성 스님 010-9243-0113

'현우경' 이야기 (6)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은 화를 부르니…

흑에서 태어난 정생왕

옛날 잠부드비파에 구살라 왕이 있었다. 구살라는 8만4000 나라를 거느린 대왕이었다. 어느 날 구살라 왕의 머리에 흑이 생겼다. 혹은 점점 자라나 박 만큼 커져버렸다. 왕이 머리에서 혹을 떼어내자 흑이 두 개로 쪼개졌다. 그 혹 안에는 한 사내아이가 있었다.

구살라 왕은 이 아이를 괴상하게 여겨 점쟁이를 불렀다. 점쟁이는 왕에게 아이가 자라나 훗날 성군이 될 재목이라고 말했다. 왕은 아이의 이름을 '정생'이라 짓고 정성껏 돌봤다. 아이가 성인이 되자 구살라 왕은 자신의 나라 중 하나를 정생에게 맡겼다.

시간이 흘러 구살라 왕은 몸이 쇠약해져 죽고 말았다. 신하들은 정생에게 찾아가 왕위를 이으라고 간청했다. 정생이 말했다.

"만일 내가 왕위에 오를 재목이라면 하늘에서 하늘의 임금과 제석천왕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늘의 임금과 제석천왕이 내려와 정생에게 관을 씌워 줬다. 정생은 잠부드비파의 왕위에 오르고 난 후, 나라의 백성들을 두루 살피기 위해 길을 나섰다. 길을 가던 정생은 백성들이 밭에서 씨를 뿌리는 것을 발견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백성들은 저렇게 곡식을 심고 길러내 끼니를 해결합니다."

"내게 복이 있다면 많은 음식이 생겨 백성들을 배불리게 먹이고 싶구나."

정생이 이렇게 서원을 세우자, 온 나라에 음식들이 저절로 생겨나 백성들은 온갖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됐다. 정생은 또 길을 가다 사람들이 길쌈하는 것을 보고 신하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옷이 없어서 옷을 해 입기 위해 길쌈을 하는 것입니다."



삽화 · 강병호

"내게 복이 있다면 여러 가지 옷이 생겨 백성들에게 맘껏 입히고 싶구나."

정생이 또 서원을 세우자 나뭇가지의 나뭇잎들이 옷으로 변해 백성들은 여러 옷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정생이 원을 세우기만 하면 모두 이뤄지자, 정생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어째서 내가 서원을 하기만 하면 모두 이뤄지는 것인가."

"그것은 전하의 복이요, 백성의 복이기도 합니다."

"만일 내 복이면 궁에 온갖 보배가 쏟아질 것이고, 백성의 복이면 온 나라에 보배들이 쏟아질 것이오."

그러자 궁에는 온갖 보배들로 넘쳐났고, 정생은 그 덕에 8만4000년 동안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됐다. 어느 날 갑자기 궁안에 야차가 나타나 정생에게 말했다.

"동쪽으로 가면 푸르바비데하라는 나라가 있소. 그곳으로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정생은 곧장 푸르바비데하라로 떠났다. 그곳에 간 정생은 무려 8억 년의 세월 동안 즐겁게 생활했다. 그때 야차가 또 나타나 정생에게 말했다.

"서쪽으로 가면 고야니야라는 나라가 있소. 그곳은 보물과 신기한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오."

정생은 야차의 말을 듣고 또 고야니야로 떠났다. 정생은 그곳에서 16억 년을 보냈다. 야차는 또 정생 앞에 나타나 말했다.

"천왕들이 사는 하늘에 가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소."

정생은 군사들을 이끌고 천왕들이 살고 있는 하늘로 갔다. 천왕들은 정생이 몰고 온 군사들에 의해 항복하고 하늘을 정생에게 바쳤다. 정생은 그곳에서 10억 년을 지냈다. 그러자 정생은 생각했다.

'도리천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리라.'

정생은 군사들을 이끌고 도리천을 향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석천왕은 1200개의 문을 걸어 잠그고 몸을 피했다. 정생이 활을 쏘자 1200개의 문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정생 왕은 말했다.

"내 힘을 보라. 나와 대적할 이는 아무도 없느니라. 하늘에 왕이 두 명인 것은 무의미하다. 제석천왕을 죽이고 내가 왕위를 차지해야겠다."

정생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제석천왕을 해치려 하자, 갑자기 정생은 땅으로 떨어져 죽게 됐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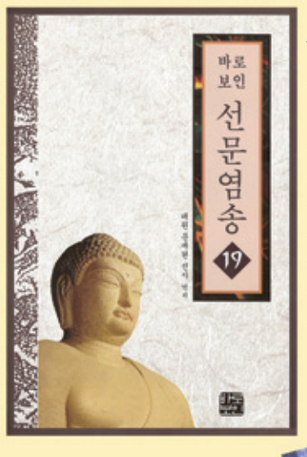
"정생 왕은 40억 년 동안이나 천하를 통치했음에도 욕심이 그칠 줄 몰랐다. 그의 탐욕이 그를 곧 죽게 한 것이다. 비구들아 이처럼 탐욕이 끊이지 않으면 결국 재앙이 찾아온다. 그러니 현재에 만족하면서 진실한 도를 구해야 한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홍화선사, 관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대행 스님

나로부터 알아야 진짜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큰스님: 입력과 출력요?

질문자2(남): 예.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왕이면 좋은 거 입력해 갖고 좋은 출력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왕 입력하려면 크게 입력해 갖고 크게 출력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방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입력을 해 봤습니다. '이 생 몸 벗기 전에 꼭 큰스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 입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과대망상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분명히 자성불은 있는데 그걸 있다고 믿고 내가 꼭 이 생에 몸 벗기 전에 이걸 해 보겠다는 입력을 시키면 입력한 대로 나온다 하니까 분명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이 생에 스님 육신이 아닌 알갱이를 꼭 닮고 가겠다.' 고 입력한다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큰스님: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입력을 하되 내가 판단을 잘해야겠죠. 그러나 그 경우에는 판단을 하고 안 하고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이지. 그냥 무조건입니다. 입력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벌써 문을 막는 겁니다. 잘되려니, 그렇게 되려니, 안되려니 하는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도 붙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나도 불성이 있고 저 스님도 불성이 있으니까, 저 스님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고 하세요. 불성을 발견해서 융통성 있게, 이 세상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베풀어 주는 그런 지혜 넓은 분이, 일체 제불이, 일체 선지식이 있다면, 다 통하는 일이고 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입력을 할 때에도 '이게 언제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아이, 나 같은 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거기 들어간다면, 금반지를 만드는데 그냥 무쇠도 넣고, 허허허…, 다른 걸 모두 넣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반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입력을 해 두고 '이생에 못하면 내생에라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가짐.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부산을 지금 갈 텐데 말입니다, 아주 급하게 부산을 꼭 가야 하는데 '이거 가야 옳은가?' 또 가다가도 '이거 가야 옳은가, 안 가야 옳은가?'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급해서 꼭 가야 할 일이라면 그냥 무조건이지, '내가 여길 가는데 지장이 없을까? 내가 가는데 실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갑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빌딩에 들어가서 자는데 불이 났다 합시다. 불이 나니까 살 궁리만, 살 궁리도 아니고 그냥 구멍을 뚫고 나갈 생각만 나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불이 그냥 전부 타올라서 사방이 막혔는데 내가 어디로 나가야 나갈 수 있는가? 요것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자기가 죽어 갈 때, 숨이 딱 끊어지려고 할 때는 자식들을, 조그만 새끼들을 죽 앉혀 놨어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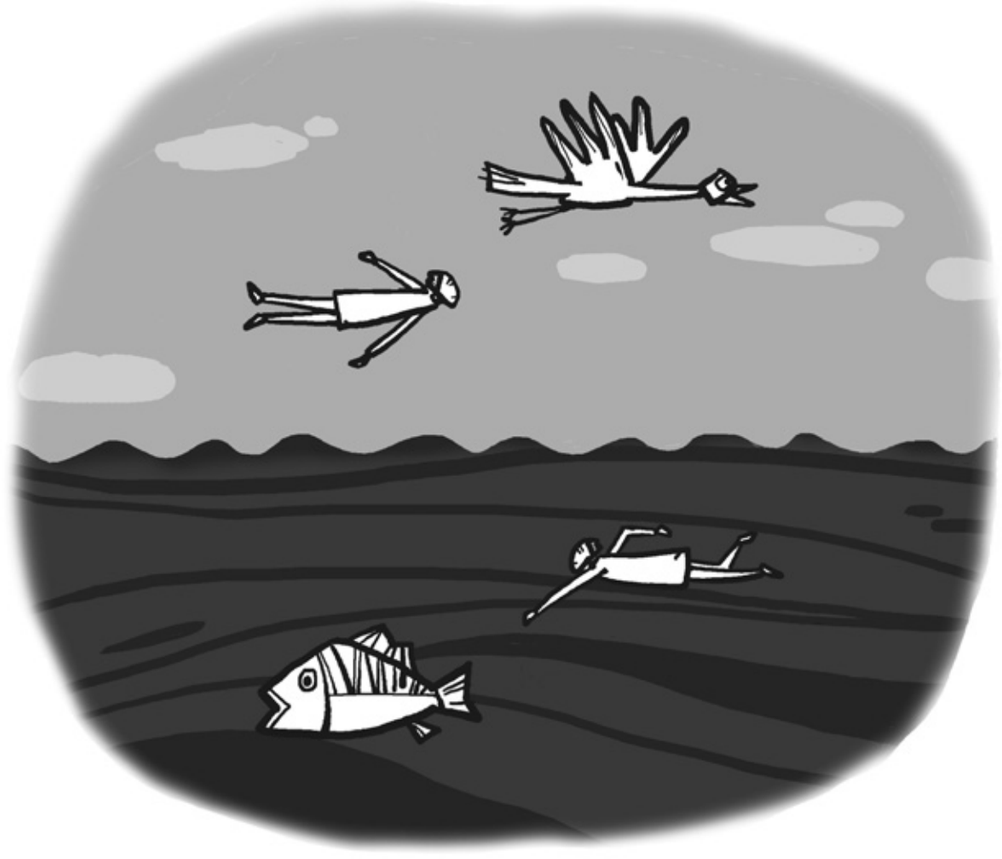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2(남): 맞습니다.

큰스님: 네. 내가 숨이 끊어지게 돼 있을 때는 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자식이고 뭐고. 그것도 숨이 붙어 있고 살 때 얘기죠. 그런 마음이라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오직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그 구멍이라는 건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여기 자기 선장의 구멍밖엔 없어요. 통신이 되는 것도 그렇구요. 하다못해 새 한 마리도 통신을 하려면 거기밖엔 없거든요. 그래서 서산 대사가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데도 그 마음이 통해서 새가 됐으니까, 서산 대사가 새가 돼 버렸으니깐 새가 자기가 앉고 싶은 대로 앉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실답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공부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누구나 다 있으니까 내가 관하는 것이 대뇌를 통해서, 사람 기계가 그렇게 돼 있단 얘깁니다. 대뇌를 통해서 정수에 입력이 된다는 얘깁니다. 정수에 입력이 되면 사대(四大)로도 통신이 됩니다, 또.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작용도 해 주게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살들이, 즉 말하자면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응신이 될 때에 지장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또 약사도 되고, 칠성 부처도 되고, 주해신의 보살도 되고, 주산신의 보살도 되고, 지신의 보살도 되고 그냥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응신으로서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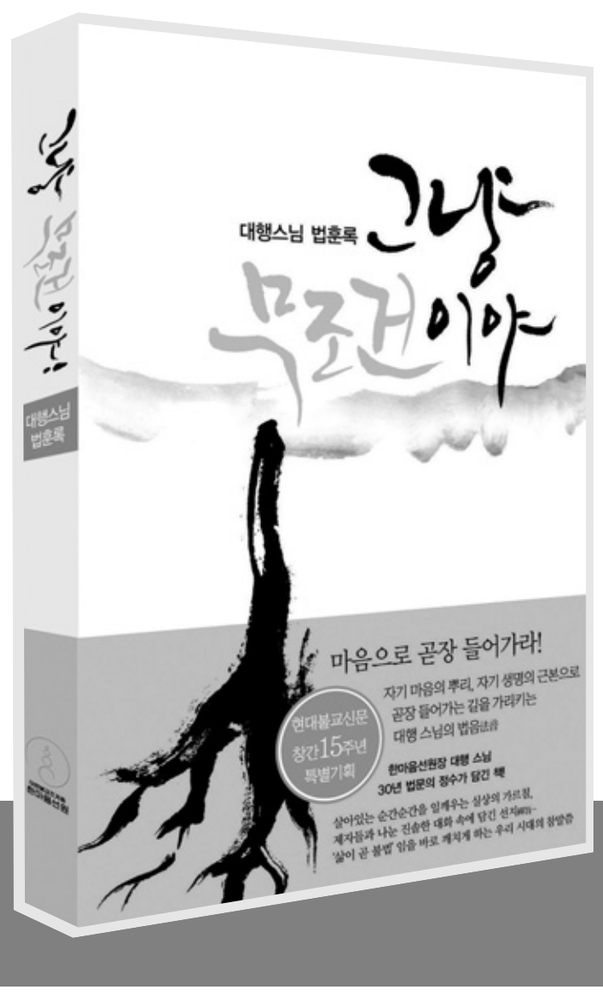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해야 여러분이, 한 마디 해서는 생소하다가 두 마디 해서는 좀 낫고, 또 세 마디 하면은 좀 더 낫고 그러다 보면 아주 자기 게 돼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냥 실천을 하는 거죠. 작든 크든 간에 내 앞에 대치를 하는…, 그냥 그냥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잘 안되면 되게끔 하는 실천. 그러나 자기가 과거로부터 지어 놓은 그 모든 것은 차원이 넓어져야 그게 없어지지 차원이 좁은 대로 그냥 있으면 그걸 아무리 되게 하려 해도 자기 마음이 좁기 때문에, 차원이 좁기 때문에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들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입력이 됐다고 믿었으면 '아, 입력했으면 나오겠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난번에 어느 보살 얘기가요, 자식이 학교도 떨어지고 삼수를 했다던가 뭐 어쨌다고 그러는데,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울고불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자식이라는 착을 떼지 못하느냐고, "왜 자식 마음대로 가서 학교도 붙지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잘되지도 못하게 그냥 꽉 붙들고 있느냐." 하고 막 야단을 쳤더니 엊그저께 웃으면서 와서 "어이구, 그거 떼느라고 혼났어요. 그거를 다 떼고 나니까 붙었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이게 착을 두면 외려 자기와 더불어 꽉 붙들려서 자기 영혼을 자기 근본이 리드를 못해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셈이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붙들지 마세요. 자동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대해 주면서 그대로 놔 보세요. 그러면서 '마음, 그거는 둘 아니니까 네 마음도 내 촛불과 같고, 내 촛불도 네 촛불과 같으니 둘 아닌데 어딜 가겠느냐? 나쁜 일을 하겠느냐.' 하고 진짜로 믿어 준다면 그 아들이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돼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모습은 여자니 남자니 이렇게 부르지만 마음이야 어찌 여자 남자가 따로 있으리까. 그렇게 물리가 터져서 지혜로워지면 차원이 높아지죠. 차원이 둥글어지고 그러면 스스로서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데도 그냥 요렇게, 털구멍 끼었다가 도로 빼고, 요렇게 끼었다가 도로 빼서 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융통성 있는 마음이 돼서,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다 그냥 대치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어떤 이유도 붙이지 말고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 29면에서 계속

질문자2(남): 예. 스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이 공부할 적에는 '주인공, 너는 뭐, 뭐, 뭐, 뭐 할 수 있잖아. 네가 해결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탁 나면 그냥 '해결해.' '해결해.' 하고 난 뒤에 바로 '해결해 줘서 고마워.' 하고 또 가거든요. 가다가 생각이 또 나면 '해결해.' 하고 바로 '고마워, 해결해 줘서.'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 배울 적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요렇게 요렇게 너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그냥 '해결해.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큰스님: 아, '해결해.' 해 놓고선 그냥 해결되기도 전에 고맙다는 말이 뒤따라요? 하하하….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그거는 잘하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고맙다고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지극하게 한다 하더라도 주인공은 자기 전조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지 자기 아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등하단 얘기예요, 자기와 자기가. 자와 부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자식 부리듯 하지 말란 얘기죠. 즉 말하자면 유하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 드리고 싶군요. 터무니없는 거를 자기 나름의 상상으로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거기다 입력을 하지 마세요. 꼭 나한테 해당하는 거를 하시란 얘기죠.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또 연구하실 분들은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 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도 거기에 붙을 자료가 될 수 있다면 입력을 해도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자궁에 혹이 있었는데, 그 혹을 제거를 하면 어린애를 다시는 못 낳는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진짜로 관해 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칠 뒤에 다시 진찰하려고 가니까 다 낫고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너무 쉽게 없어지니까 쉽게만 생각하고, 자기가 고생하고 고통을 당할 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데도 그게 쉽게 되니까 또 이상스럽게 생각을 하는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편하고 좋은 것인데도 어떤 땐 좀 애석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쉽고 간편한데 자기는 가서 수술을 해야 하고 그 뭔가, 뭐 쐬는 거 있잖아. 방사선인가, 뭐.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속으로 '아이구, 저 방사선을 쐬면 또 딴 데가 나빠질 텐데, 저거 그냥 죽을 때까지 아픈 거를 면치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 가면서 여간 애석하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을 빼고 내가 대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진짜 가난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을 때,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쩔쩔매는 사람에 한해서만이 대신 내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결정이!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큰스님의 가르침 받게 된 지도 어언 4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의심도 가고 체험했던 것에 대해 의문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편히 앉아서 말씀하세요.

질문자3(남): 죄송합니다. 가끔 가다가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지금 무얼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스스로 뭐 채찍이랄까 이렇게 독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어떤 체험을 했는데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스님으로부터 호흡법을 좀 지도를 받고 했었는데 큰스님 가르침을 받고부터는 일절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저녁을 먹고 운동을 가볍게 하다가 '도대체 이 천지만물과 내가 둘이 아닐 텐데 어찌 내가 이렇게 모르는가.' 해서 합장을 한 번 하고는, 예전에 어떤 분이 소나무의 기를 뺏어서 소나무를 죽이는 걸 봤습니다마는, 저의 집 화분에 심어져 있는 벤자민 나무를 보고 '너에게 기운을 줄지언정 어찌 뺏을 수가 있겠는가.' 하며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온 천지에서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기운이 콱 밀려와서 이글이글하더니만 그 나무로 확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황홀하다고 할까요? 너무나 이상해서 나도 모르게 '아-' 하면서 손을 대는 순간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뭘 잘못 체험했는 건가. 이것이 과연 정말 천지만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가. 우선 그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누구나가 다 기를 생기게 하고 기를 없어지게 할 수 있죠. 그것은 이렇게 찰나찰나 나투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전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용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의해서 다 되는 건데, 자기가 기를 얻는다고 해서 배꼽 밑에다 항상 축적하고 그렇게 기를 어디서 받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기한테서 기가 스스로 생기는데도….

그러니까 그 나무도, 그게 우리 체나 마찬가지거든요. 나무도 생각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너한테 내가 기를 줄지언정 어떻게 나무에서 네 기를 뺏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대로요. 그것은 나무의 마음과 댁의 마음이 통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뿐이 아니라 높이 선 바위라 할지라도, 내놔도 붙잡을 것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마음으로는 서로 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바위가 됐다가 바위 마음이 나한테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를 가지고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둘이 한데 붙을 수가 없지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로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일임하고 거기다가 믿고 입력을 한다면, 입력을 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들을지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큰 회사에 수백 명이 있다 하더라도 원자에다가 놓으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백 명의 입자로 화해서 들어가서 조절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 공부가 엄청난 공부라서, 그전에도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차원이 높아져야 허공의 에너지도 꺼내 쓸 수 있다고요. 내 차원이 높지 못하면 꺼내 쓸 수가 없다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정신계를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예 정신계고 물질계고 그냥 다 팽개치고, 자기 몸뚱이, 자기 정신은 다 팽개치고, 지금 딴 형상에다가 빌고 기도하고 그러잖습니까? 자기로부터 소중한 게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무슨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나로부터 알아서 가게 되면 진짜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두.

질문자3(남):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는 입이 잘 안 떨어져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끔 가다가 이 공부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거 힘이 미약해서 도대체 공부가 안되는 건가 싶어서 스스로 판단을 잘 못 내릴 때가 있습니다.

큰스님: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이 즉, 교재고 공부입니다, 인생 공부. 그런데 뭐, 여기서 이런 걸 안 한다 하더라도 댁은 살아나가면서 겪어야 하고 그런데 뭐 '내가 다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거 걱정을 합니까? 사실상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있는 건데 내가 공부가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거는 못 믿기 때문이거든요.

꽃나무가 만약에 자기 뿌리를 못 믿어서 '내가 지금 꽃이 피고 있는가, 안 피고 있는가?' 이런다면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나무들이 '아, 내가 지금 열매가 맺을까?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맺을까, 못 맺을까?' 이런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으니 그대로, 그대로 여여하게 살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거를 내가 공부가 잘되는가 안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못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내 뿌리가 있다는 것만 믿는다면 그 싹은 거기에 의지하고 전체가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질문자3(남): 예, 감사합니다.

큰스님: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사회자: 끝났습니다.

큰스님: 예. 하여튼 올해일랑은 더 한층 내가 마음으로 점프를 해서라도 내 할 일을 해 가면서 내 가정을 지켜 가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불사한다고 하는 것만이 불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게 그게 불사입니다. 내 앞도 다 가리지 못하고 남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욕심입니다, 또 그것도. 그러니까 내 앞을 가리고 가면서도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 아프면…, 그런 보살들이 많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책을 주고 그렇게 관하라고 했더니 관해서 그냥 나았다고, 아주 고맙다고 그러더라는 얘기를 해서, 그 사람 그것 나은 거만 알지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또 대치를 못할 테니까 열심히 관하는 도리를 잘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저 지나가다, 오다가다가도 소 눈 하나만 쳐다봐도 그 소가 그저 무명을 벗고 요다음 생에…. 소는 또 빨리 죽죠, 잡아먹으니까. 허허허…. 그러니까 그저 다음 생에 나오더라도 인간으로, 그 순하디 순한 눈처럼 다시 아주 출중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줘야죠.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가, 사람들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이 지구도 수명이 또 길어질 테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는 나만이 이렇게 다니라는 게 아니라 알고 나면 길을 가다 오다도 생각이 나면 그냥…, 테레비를 보다가도 무주상 보시를 하게 되고, 테레비를 보다가도 '저거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꼭 벌을 받아야 되거든. 허허허…. 그러니까 테레비를 보면서도 법관들이 되시는 거죠. 진짜입니다, 그거. 법관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가는 이 도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그냥 절대적인 판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사 노릇을 한다 하고, 그 책임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아주 올바르게 투철하게 해야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 버리면, 아무렇게나 된다면 먼저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지구가 잘 돼야지 지구가 그 패어진 것도 메꿔지고, 또 오존층이 뚫어진 것도 메꿔지고,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해 나가야 됩니다. 잘라진 것도, 뚫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원력이 벌써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걸 거짓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성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위 법문은 1997년 2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빌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불이 났다 합시다.
불이 나니까 살 궁리만,
아니, 살 궁리도 아니고 그냥 구멍을 뚫고 나갈 생각만 나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직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그 구멍은 자기 마음의 선장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 34㎝ /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 34㎝ / 육각초 7.0ϕ × 34



연화 大 9.5ϕ × 11㎝, 연화 中 9ϕ × 10㎝, 연화 小 7ϕ × 6.5㎝ / 밀납연화 小 7ϕ × 6.5㎝

New 신제품 흑룡초



임진년은 흑룡의 해 입니다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 하십시오

크기 ϕ7.5 × 29cm



와까바 / 후라지아 / 영원향 장,단(소바라) /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백목향,목향 / 향수림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불자 세상보기

자본주의 위기를 논하는 시대



석 길 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교수

42회째를 맞이하는 세계경제포럼, 매년 1~2월에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개최된다고 하여 일명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전망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민간회의이다.

민간회의라고는 하지만,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는, 소위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전망하고 조율(?)하려는 성격을 가진, 실상은 사회 상위계층 1%끼리 반공개적으로 쑥덕거리는 그들만의 리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그들만의 리그에 올해는 재미있는 주제가 개막 세션의 주제로 내걸렸다.

"20세기 자본주의는 21세기 사회에서 실패한 것인가?"

거창하게 각 국가사회 나아가 세계 전체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의도하고 있는 듯하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미국의 주도로 거세게 휘몰아쳤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혜택을 독점하였던 1%의 그들이, 99%의 저항을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내건 것에 불과하다.

너무 시니컬한 평가인 듯도 하지만, 우리 사회뿐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중산층의 몰락이, 그 몰락을 대가로 1%의 성벽을 더욱 두텁게 쌓을 수 있었던 이들의 고민 아닌가.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고민이 부의 재분배라든가 하는 좀더 희망적인 방향성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호들갑을 떠는 듯하다.

그러나 다시 그 주제를 읽어보면 "우리의 독점적 우위를 확실하게 보증해주던 자본주의 체재를 어떻게 하면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의 독점적 우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머지 99%가 당연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읽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들어있는 내재적 심리는 향유해왔던 그리고 향유하고 있는 매력적인 애착의 대상인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소유'를 어떻게 하면 좀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을까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온 20세기의 자본주의 곧 '사회 내부의 그리고 세계를 아우르는 범세계적이고 합법적인 제도적 폭력'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한 생각의 정점에 존재하는 것은 '욕망의 지속가능성'이다. 하지만 이미 99%는 저항하고 있고, 그 저항하는 99%가 가진 생각의 정점에 있는 것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생존의 지속가능성'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보스 포럼에서 또 하나 심도있게 다루어진 것은 어떻게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최소한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였다. 최소한의 성장, 곧 발전과 확장이 지속되는 한, 그 만큼의 떡고물에 한정하여 찔끔 나누어주고 달래면 되는 것이니까. 아이의 과자봉지를 통째로 빼앗아서는 아이가 울 때마다 그 과자봉지 안의 과자를 한 개씩 건네어 달래겠다는 속셈이다.

너무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보시바라밀'을 사회적 실천의 첫걸음이자 개인적 완성의 토대로 삼아온 대승불교 집단의 일원으로서 오히려 그 냉소는 당연한 것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사회의 제도적 폭력을 번연히 실감하면서도 쥐꼬랑지만한 생존울타리가 무너질까 저어하고, 행여나 저 성장의 떡고물을 조금이라도 더 묻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망이 스멀거리는 스스로의 작태를 자각하다 보면 오히려 당연하게도 느껴지니.

나눔은 보살행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나눔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고민한다.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지금 겨우 이어가고 있는 최소한의 생존에서 탈락하지 않을지를. 아마도 작태의 절망성을 자각하고 있는 보살님들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사회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는 것일 게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은 돌려도 좋지 않을까. 나는 그 시선의 방향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설치'로 돌릴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좀더 많은 99%에게 생존에 대한 절박감이 아니라, 행복이 어떤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근대 이전 사회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의 최대 존재 가치 중의 하나는 이 '사회안전망'의 마지노선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종교마저도 '근대'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휩쓸려 자본에 대한 갈망, 욕망의 확대에 충실해진 지가 오래인 것도 사실이다.

이제 내가 속한 한국불교사회에 요청하고 싶다. 우리가 지난 날 지녔던 최대존재가치를 이제는 되돌려 받자고. 누구에게서?

미안한 말이지만, 스스로에게서 부터이다.

사부대중 칼럼

우리도 부처님같이



김 재 영
청보리회 법사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 라자가하의 맛다꿋치 숲에 있는 미가디야에 계셨다. 그대 세존께서는 돌 조각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으셨다.

세존께서는 몸이 몹시 아프고 불쾌하고 언짢은 것을 심하게 느끼셨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올바르게 마음 지켜보며(sati)과 올바른 지혜로 마음을 가다듬어 고통 없이 참아내셨다. 그때 악마 빠삐만이 세존께 다가와서 말했다.

[빠삐만]
"게으르게 생각에 잠겨 누워있는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은가?
홀로 외로운 휴식처에서
졸린 얼굴로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는가?"

[붓 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생각에 잠겨 눕지 않았고
나는 할 일을 다 마쳐 번뇌를 떠났네.
홀로 외로운 휴식처에서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며 누워 있네.

이것은 〈쌍윳따니까야〉에 나오는 '돌조각의 경(Sakalika-sutta 사깔리까 숫따)'이다. 이 짤막한 '돌조각의 경'은 부처님의 실체에 관해 또는 불교의 본질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1세기인 지금도 인도의 도로는 험로이다. 군데군데 비포장이고 돌들이 나뒹굴고 끊겨있기 일쑤이고 교통사고가 다반사로 많다. 2600여 년 전이야 오죽했으랴.

그런데 부처님은 이 길을 걷고 있다. 뙤약볕을 쐬며 가사와 발우를 손에 잡고 독충이 들끓는 이 험로를 맨발로 걷고 있다. 돌조각에 다쳐 피를 흘리며 걷고 있다. 말 그대로 피땀을 흘리며 걷고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라고 축복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며 그들에게 담마를 설하고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상담한다. 그들의 고통을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하나하나 치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끊임없이 험한 길을 걸으며 담마를 전파하고 법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사셨다.

전법고행 45년, 팔십 노인이 되어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면서도 부처님은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사셨다.

마침내 부처님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중생들-말라족 사람들이 지켜보는 속에 숨을 거두시고 그들 마을에 안치되고 그들 손으로 화장되고 그들 민중들에 의하여 마을 네거리에 조그맣게 뼈무더기로 모셔졌다. 그리고 그 뼛조각 하나하나가 사리가 되어 사람들을 다시 구해내셨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의 참담한 몰락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일부 승려의 이기적 권력구조로 변질된 앞에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속만 태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이 기사회생의 기회다. 만해 스님도 '밤의 어둠이 깊은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소식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희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부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조각에 발을 다쳐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 중생들을 연민하고 구원하시는 저 부처님께로, 붓다 석가모니께로 돌아가, 우리도 부처님같이 사는 것이다.

한 분의 스님이라도 이렇게 부처님같이 길을 간다면, 우리 불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 분의 우바새 우바이라도 이렇게 부처님 가신 길을 따라 걸으려고 애쓰고 애쓰면, 머지않아 우리 불교 거대하고 푸르른 본래 숲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2012년 새봄이 오는 소리 들으면서, 우리는 희망으로 다가올 한분의 스님, 한분의 우바새 우바이를 기다리고 있다.

社說

美서 기립박수 받은 진제 스님

조계종 차기 종정 진제 스님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다. 한국 불교계로는 최초로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차 방문한 스님은 1월 30일에는 세계 각국 종교지도자를, 2월 1일에는 전세계 국가지도자들을 만났다. 2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는 국가조찬기도회 본행사에 참석했다.

진제 스님은 미국 일정 내내 종교평화와 간화선의 세계를 주창했다. 이는 종정 추대 전부터 폴니터 교수와의 종교간 대화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렸던 스님의 발원이었다. 이제는 차기 종정이 되어 주장자에 2000만 한국 불자의 염원을 담아 전세계에 법음을 전한 것이다.

진제 스님은 2월 1일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지도자세미나'에서 180여 개국 1200여 명의 국제지도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봄이 오니 100가지 꽃은 누구를 위해 피었는고? 자고새 우는 곳에 100가지 꽃이 향기롭도다"라고 선시로 법문이 마무리되자 1200여 명 전원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이에 앞선 1월 30일 뉴욕 맨해튼 유대교 교회인 템플 임마누엘에서 개신교 카톨릭 이슬람교 배화교 등 세계 각국의 종교지도자 20여 명이 자리한 세미나에서도 스님은 종교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제 스님은 "모든 인류가 각자 생활 속에 마음을 닦는 수행을 꾸준히 해서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인류평화에 큰 공헌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스님의 이러한 믿음이 현실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수행해야 한다.

진각종 문화재단 설립

진각종이 2012년을 '종단의 문화포교 원년의 해'로 정하고 신년계획을 발표했다.

신년계획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회당문화재단 설립이다. 진각종은 울릉도 회당문화축제, 폐사지음악회, 회당학회국제학술대회 등 활발한 문화·학술 활동을 펼쳐왔다. 회당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진각종의 문화분야 역량이 총결집돼 다방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지난해 12월 종의회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인가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서 있을 진각문화전승원 개관법회와 함께 회당문화재단 설립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로드맵도 내놓았다.

한류스타들의 해외 진출이 이슈가 된지 오래이다. 과거 무력에서 무역으로 국가간 경쟁의 수단이 확장됐다면 이제는 문화를 통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콘텐츠 경쟁력이 하드웨어의 수명을 좌우하는 시대인 지금 불교문화에 불교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진각종의 회당문화재단 설립 계획 발표는 불교계의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 혜정 정사는 "회당문화재단은 진각종 불교문화의 대중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창종 이후 교육·복지 사업 등을 통해 불교계에 새바람을 몰고 왔던 진각종이 회당문화재단을 통해 또 한번 불교중흥의 훈풍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토종참옻으로 헐은 위, 지친 간 다스린다!!



대한민국 신지식인대상과 산림청신지식인에 선정된
옻안타는 토종참옻 국내최초 개발자 池龍禹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피부 질환, 아토피
療咳嗽(료해수) : 가래, 기침병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九服恒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 골을 채워줌, 골다공증 치료.

어혈을 파하면 저절로

消瘀血痺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어혈을 풀어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削年深堅結之積(삭년심견결재적체) : 몸안에 오래묵은 병덩어리를 없애줌.
破日久凝結之瘀血(파일구응지어혈) : 오래묵은 어혈, 응혈을 파하여 피를 맑게함.

50대 전후에 많이 생긴다하여 이름붙여진 오십견은 어깨가 굳고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힘든 질환이다. 통증은 낮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밤에 특히 잠을 청할 때 나타난다.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증거이다. 오십견 통증은 양상이 대부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데 이것 역시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깨 힘줄에 쌓이고 굳어진 어혈을 파하여 어깨 주위의 힘줄을 부드럽게 하면된다.

관절의 염증을 삭히는 토종참옻

風寒濕痺(풍한습비) : 뼈가 저리고 수시고 쓰림.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리골속을 채워줌.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다. 한방에서는 관절내 어혈이 쌓여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는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혈액순환장애의 원인

혈액순환장애의 원인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1)과잉 영양섭취로 혈액내에 지방과 탄수화물의 과다로 인해 혈액이 탁해진 상태 2) 혈관이 나빠져 막혀있거나 좁아진 상태 3) 몸이 허약해 심장기능이 떨어져 심장박동이 약한 상태 등 여러가지 원인이 나, 병균이 몸안에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모든 병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생리통 효과없다면 100% 환불!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한달에 1번 그날이 오면 진통제 5~6정 복용하던 분들도 최소 1~2정이면 지나가고, 월경때 피가 잘 나오지 않고 배꼽노리가 차면서 몹시 아픈것과 몸뚠뒤에 혈기가 고르지 않아 배에 징가가 생긴것을 풀어준다.

옻가네 참옻대보를 이용한 옻닭요리

우리의 전통식품인 옻닭은 모든 세대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옻닭이 몸에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옻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참옻의 원조 옻가네참옻진액은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참옻진액입니다.

※옻닭은 이런분께 특히 좋습니다.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나, 시장이나, 건설현장,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몸살 없는 건강한 겨울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옻닭)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사례공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있는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근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을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케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은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 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 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 양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준것을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1) 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 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 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 복부비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거래협회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15th Anniversary 옻가네15주년기념

고급형 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5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토종참옻환은 온 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5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상담전화 :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